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맞지 않은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2월 12일)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春三月 폭설로 雪國된 도량

봄으로 접어드는 춘분. 지난 3월 21일 남부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다. 다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듯, 겨울은 그렇게 남아 있었다. 부산 범어사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시절의 도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자연은 다시 한 번 가르쳐 주는 듯했다. 마치 다시 한 번 알려줄 때가 됐다는 듯, 하얀 눈을 우리 어깨 위에 죽비처럼 내렸다. 사진가는 눈을 맞으며 그 겨울을, 그 봄을 카메라에 담았다. 시절 속의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부산 범어사=하성미 기자**

공의 없는 사면, 한계는 분명했다

[뉴스분석]

굴곡진 멸빈자 사면史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현재 조계종 최대관심사인 멸빈자 사면관련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서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20일 개원한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헌 개정의 건을 다뤄 지난 208회서 상정 이후 1년여 간 이월된 멸빈자 사면관련 종헌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다. 투표에는 총 79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투표결과 찬성 35표 · 반대 44표로 끝내 부결됐다. 이로써 십수 년간 지속된 조계종단의 멸빈자 사면 노력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집행부의 정치력 시험대

이번 종헌개정안 논의는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치력 시험대로 평가됐다. 하지만 투표결과 찬성표가 과반수도 넘지 못한 채 종헌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집행부의 종단운영에 중앙종회가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해 초부터 설정 스님은 멸빈자 사면을 통한 종단 대화합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서 각 교구의 협조를 요청, 본사주지들이 이를 지지하면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집행부도 관련 계획을 알리며 멸빈자 사면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나 종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결국 종헌개정안 가결을 지지한 몇몇 종회의원들이 "부끄럽다"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제210회 중앙종회서 종헌개정안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

역대 멸빈자 사면 논의 과정

2003	제156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41/반30)
2004	제162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53/반21)
2004	제163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50/반28)
2007	종정 법전 스님 교시
2008	제176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24/반46)
2014	원로의장 밀운 스님 호소문 발표
2015	종정 진제 스님 교시
2017	종정 진제 스님 교시
2017	제208회 중앙종회 종헌개정안 상정
2018	종정 진제 스님 교시
2018	제210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35/반44)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79명 투표, 찬성35 · 반대44표
집행부 기대에 못 미친 결과

서의현 前원장 의식에 영향
부칙 따른 종헌 제한 반감도
집행부 "겸허히 받아들인다"

위로부터 형성된 사면여론

멸빈자 사면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 2003년 이후 수차례 중앙종회에 종헌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특히 2004년 3월 제162회 중앙종회서는 가결정족수에 1표 모자란 찬성 53표가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그간 이뤄진 종헌개정안 부결의 가장 큰 공통 배경은 '위로부터 형성된 사면여론'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멸빈자 사면은 주로 종정 스님과 원로회의의 당부 · 호소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자비문중' '대화합'이라는 표현만으로 대중을 설득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랜 시간을 들여 풀뿌리 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점차 종단 핵심 소임자쪽으로 논의를 확산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물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의현 前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서 前원장을 구제하기 위해 멸빈자 사면 논의가 이뤄진다"고 표현할 만큼 그에 대한 반감이 크다. 게다가 2015년 6월 재심호계원이 초심 호계원의 멸빈징계 판결을 21년 만에 뒤집어 '공권정지 3년'으로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거듭된 논란에 집행부의 행정처리는 보류됐지만, 진제 스님 교시 직후 이뤄진 일이어서 '서의현 살리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종회의원 A스님은 "바라이죄나 재산비위를 제외하면 사면 대상자는 몇 안 된다. 결국 서의현 스님으로 사면 대상자가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면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종회의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종회의원 B스님은 "원칙적으로 사면에 동의한다고 해도 헌법에 해당하는 종헌을 부칙으로 1회만 제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이 많았다.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았다는 시각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설정 스님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 종단 정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몇몇 중진 스님들은 설정 스님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후인 11월 종회까지 내다보며 사면 논의를 천천히 이어갈 것을 직접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능대표선출위원장이 당연직 총무원장인 만큼 오랜 기간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종헌개정안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종헌개정안 부결로 제16대 중앙종회서는 사실상 멸빈자 사면 논의가 불가능해졌다. 오는 10월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이를 장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앞으로 멸빈자 사면 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천태종 신임 총무원장 문덕 스님 임명

종의회, 임명동의안 만장일치 통과
4년 임기… "여론 수렴해 종단운영"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에 원로원 위원 문덕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는 3월 2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6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전날 종정 도용 스님이 신임 총무원장으로 지명한 문덕 스님 임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문덕 스님은 이날부터 4년간 총무원장 임기를 수행한다. 취임식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종의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문덕 스님은 "여러모로 부족한 소납을 총무원장으로 지명해주신 종정예하, 임명 동의를 해주신 종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대중의 여론을 수렴하고 힘을 모아 종단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종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 대충대종사를 계사로 득도했다. 종정 사서, 8~15대 종의회의원, 15대 종의회의장, 종정 사서실장, 총무원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법화경〉 출판전문위원, 2급 법계 품수, 금강대 이사, 포항 황해사 · 울산 정광사 · 부산 광명사 등 사찰 주지를 비롯해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 4월 22일에는 원로원 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번煩뇌惱를 끊는 이야기
- 간화선看話禪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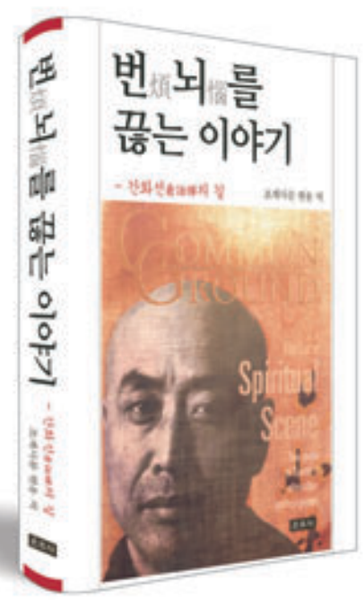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사람 성품性品에는 본시 번뇌가 없지만 성품을 보지 못한 이는
날마다 번뇌를 보듬고 산다.
이 책은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지키고 있는 이에게 '뜬 눈'을 갖게 할 것이다.

| 현웅玄雄 스님

송광사 구산九山 스님 문하로 출가하고, 용화사 전강田岡 선사 문하에서 공부길을 간택받았다. 그 후 대중 선방 생활을 뒤로하고 깊은 산중 토굴에 들어가 6년간을 홀로 지냈다. 1984년 스위스 불승사에서의 초청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에서 20여 년 동안 서양인들에게 선을 지도하였다. 2005년 한국에 돌아와 서울 육조사 선원을 열고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다.



| 조계후학 현웅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조계종 일반사면, 사면위원회 심사 거친다

[정리]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 결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그동안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진행된 조계종 징계자 사면이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21일 속개한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헌종법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멸빈 미만 징계자에 대한 사면과 경감, 복권은 종법에 따라 종정이 행하도록 종헌에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아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조계종 일반사면 법적절차가 정립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계자 사면과 경감, 복권은 9인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종회의원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동의를 받아 종정에 사면안을 품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정은 징계의 사면과 경감, 복권을 행한다.

이와 함께 사면·경감 대상자의 구분도 명확히 했다. 공권정지 징계가 확정돼 집행 중인 자는 징계기간의 3분의1,

사면·경감·복권 종법 제정
성보보존법 개정안도 가결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문도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복권 대상은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특히 승려법에 의해 벌금이나 변상금 징계가 병과된 자는 납부 이전까지 사면과 경감, 복권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성보에 대한 불사관련 사항의 적정성과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총무원과 교구본사에 불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직영 및 직할사찰과 교구사찰서 시행 중인 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혜광사 소유권, 동국대에 증여

시설노후로 인해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 혜광사(유지재단 재산)의 소유권은 동국대에 증여됐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비구니 수행관 소유권 증여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혜광사는 동국대 교비 투입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보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간 혜광사는 붕괴위험까지 제기되며 건물 보수가 절실했지만 조계종유지재단 재산인 관계로 동국대의 보수비 투입이 불가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를 투입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동국대 소유 교육용재산으로 등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국대는 총무원에 혜광사 건물 소유권 양도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중앙종회는 비구니 스님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증여 조건을 달았다. 또한 사용목적이 종료될 시 증여재산을 종단에 반환토록 했다.

각종 인사안 처리도

아울러 중앙종회는 각종 인사안을 처리했다. 먼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추천된 성파 스님 추대의 건과 원로의원(수덕사 우송 스님) 추천의 건,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 재정분과위원장 정념 스님의 사직에 따라 후임 위원장으로 정오 스님, 신임 초심호계원장에 왕산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효성 스님을 선출했다. 이어 임기만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태성 스님을 다시 선출하고,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법원(직할교구)·우봉 스님을 선출했다.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끝으로 "평화의 불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길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촉구 결의문'은 종단 대표 대북지원단체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하도록 한 뒤 채택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공양 부처님 공경하듯 이웃 섬기네

공양(供養)은 이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고 잘 돌보아 이롭게하는 덕행입니다. 공양은 보시바라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보시행에 공경과 찬탄 그리고 봉사의 뜻을 담아 공물(供物)과 마음을 올리는 것이 공양입니다.

"일체중생에게 순종하면서 섬기고 공양하기를 마치 부모와 같이하고 스승과 같이 받들며 아라한이나 부처님과 다름없이 받들라"〈화엄경〉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입니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아상과 집착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참다운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양(供養)을 화안애어(和顔愛語)라고 합니다. 화안애어는 참다운 공양이고, 부처님 마음입니다.

봉사자의 희열(helper's high)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내과의사 앨런룩스가 2001년 〈선행의 치유력〉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봉사자 3천명 중 95%가 남을 도우면서 행복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도 5년에 걸쳐 봉사자 423쌍의 장수부부들을 조사했는데, 혈압, 콜레스트롤 수치가 낮아지고 엔도르핀이 정상수치의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봉사는 장수와 건강, 행복감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제목·공양-만행화 그림·조향숙

'화안애어' 참다운 공양
봉사는 건강·장수에 도움
연기사상 함축 '공양게'

*불자들은 부처님께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올립니다. 이 의식은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6가지 공양물이 상징하는 공양의 참 뜻을 되새기며 보살의 삶을 다짐하는 정진입니다.

육법공양물이 상징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이 6바라밀 수행임을 알게 됩니다. 향(香)은 해탈향, 등(燈)은 반야등(般若燈), 꽃은 만행화(萬行花), 과일은 보리과(菩提果), 차(茶)는 감로다(甘露茶), 쌀은 선열미(禪悅米)입니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서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많은 불자들이 애송하는 문수보살 게송입니다.

성 안 내는 그 얼굴 화안시(和顔施)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 언시(言施)를 화안애어(和顔愛語)라고 합니다. 화안애어는 참다운 공양이고, 부처님 마음입니다.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안을 받았다는 봉사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절에서는 식사를 '공양'이라고 하고, 공양전에 공양게(오관게五觀偈)를 독송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 대지와 햇빛, 물, 농부의 땀, 생명의 희생같은 공양의 연기적 관계를 관(觀)하는 공양게는 연기사상이 함축된 깊은 뜻의 게송입니다.

재가자들도 식사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음식에 감사합장을 합시다.

*공양은 이웃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합니다. 자비심을 길러줍니다.

'허공계와 이웃의 번뇌가 다할때까지 공양한다'는 보현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동국대 석좌교수〉

총지종 종령 법공정사 4월 12일 추대식 봉행

서울 강남 총지사 서원당서



불교총지종은 4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총지사 서원당서 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사진〉 추대식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법통 및 법의 이운 △종령 선서 △헌화 및 훈향정공 △유가삼밀 △봉행사 △추대사 △창교가일동합장례 순으로 진행된다.

前통리원장 법공 정사는 지난 1월 18일 승단총회서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됐다. 임기는 2월 17일부터 6년간이다.

한편 법공 정사는 1943년 포항 출신으로 1983년 출가했다. 총지종 제10대·제13대 통리원장과 법장원장을 지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와 BBS불교방송 이사, BTN불교TV 이사 등을 두루 거친 뒤 2010년부터 기로원에 주석해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법진 스님, 원로 불러 "조계종 모략" 변명

시국성명 낸 원로들과 첫 비공개 간담회

이사회, 도리어 원로 비판도
"성명 동참 분원은 몇 안 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시국성명을 발표한 원로스님들을 초청해 "조계종의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국성명에 동참한 분원은 몇 되지 않는다며 도리어 원로들을 지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최근 시국성명에 동참한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에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재단 구성원으로서 3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동참해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원로스님들은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방문했지만 공문과는 달리 이사회 아닌 간담회가 진행됐다. 또한 선학원은 시국성명에 참여한 39명 중 현직 창건주와 분원장만 출입케 해 13명의 스님들만이 회의장에 들어갔다. 원로스님들의 시자를 비롯해 기자들의 출입은 금지됐다.

이사회, 재차 판결 잘못 주장

간담회는 2시간동안 이어졌다. 스님들에 따르면 간담회는 △이사장 인사말 △불교문화기념관 불사 경과보고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원로스님들의 발언기회는 많지 않았다.

원로스님들은 이사장 법진 스님이 선학원 사태에 대한 사과나 사퇴의사 표명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음을 강조했다. 연대선원 자민 스님(80·前선학원 이사)은 "여직원 성추행 문제에 대해 법진 스님은 조계종의 중상모략이자 사실무근이라고 변명했다. 또 피해여성이 정신착란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국가법이 잘못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맞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몇 마디밖에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간담회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총무 심원 스님은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이 공찰 주지다. 임명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이사회를 비판했다.

또한 원로스님의 위임장을 들고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한 스님은 "선학원 분원 300개 중 시국성명에 참여한 분원이 소수라고 지적했다. 가장 불쾌한 발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분원장회의서 거취 표명

이외에 원로스님들은 위압적인 간담회장 분위기가 불편했다고 밝혔다. 한 스님은 "현직 이사들과 이사회가 초대한 장로원 스님 등 30여 명이 이미 앉아있었다. 시국성명에 함께한 성열 스님(강남포교원·前선학원 이사)이 법진 스님에게 사퇴하라고 하자 전직 이사로서 선학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했냐고 도리어 비난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로스님들에 따르면 이사장 법진 스님은 4월 24일 봉행되는 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 후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 자리서 법진 스님은 본인의 거취를 밝히겠다고 원로스님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로스님들이 밝힌 간담회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선학원 관계자에게 연락했으나 "비공개 행사였기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3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숲속 선사들이 서울 강남에 뜬다

참불선원, 4월 19~26일 '선승, 육조단경 대법회'

대원 · 보광 · 혜국 · 일오 스님 등 대표 선사들, 참선 정수 설파
집중수행도 병행… 매일 실참



육조단경 법회에 참여하는 선사들. 왼쪽부터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내소사 선덕 일오 스님,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속세에서 떨어진 채 깨달음을 찾아 정진하는 선사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심 서울 강남에 뜬다.

서울 참불선원(선원장 각산)과 BBS 불교방송은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8일간 간화선 특별 집중수행과 함께 '선승, 육조단경 대법회'를 참불선원서 개최한다. 선원장 각산 스님은 "평생을 은둔 수행한 한국불교 대표적 선사들이 참선의 정수를 설파한다"고 밝혔다.

법회에는 세간에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이 20여년 만에 대중법문에 나선다. 아울러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내소사 선덕 일오 스님,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차례로 간화선맥의 근본 텍스트인 〈육조단경〉을 주제로 법문한다. 매 법회에는 약 600명의 불자들이 몰릴 것으로 참불선원은 내다보고 있다.

참불선원은 "보광 스님은 세상을 내려놓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독야청청의 고매한 은둔의 삶을 사는 수행자들의 사표로서 그동안 대중에게 거의 법문을 하지 않았다. 또 일오 스님은 초기불교와 선어록을 꿰뚫은 선사로 알려져 있다. 속세를 떠나 제자들과 오로지 수행에 전념해온 선지식들이 한자리에서 야단법석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이번 대법회는 주목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조단경〉은 육조 혜능선사(638~713)의 어록이자 선종의 대표적 경전이다. 자신이 육조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도정(道程)과 문인들을 위한 갖가지 설법을 담고 있다. 선불교 시조격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즉,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육조단경 법회에 대해 "바쁜 현대인에게 경전을 배우지 않고, 불교지식이 없어도 선승들의 법문만 듣고도 삶을 전환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불교의 비밀과 깨달음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야단법석 자리가 바로 육조단경을 강설하는 법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육조단경은 닦지 않고도 마음의 고통과 업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선(禪)의 특징적 면모를 갖고 있는 참선 지침서다. 점차적 수행법이나 자세와 호흡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치유명상, 요가명상, 단전호흡, 마음수련 등의 일반명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육조단경 법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7박8일 집중수행비는 별도다. 집중수행 참가 인원은 70명으로 한정되며, 매일 〈육조단경〉 강설과 8시간 좌선실참을 하며 선문답으로 수행지도 한다. 1577-36%

조계종, 4.3영령 추모 영산재 연다

70주년 맞아 광화문서
본사 추모 현수막 게재
당일 사찰별 축원 진행

조계종이 제주 4.3항쟁 70주년을 맞아 희생 영령들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전개한다.

조계종은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3일 광화문 광장서 영산재를 봉행한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참석하며, 시민분향소도 설치해 희생영가들을 기릴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4월 3일 열리는 공식 추념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직접 참여한다. 이는 지난 1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범국민위원회 측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또한 조계종은 4.3항쟁 인권평화주간을 맞아 각 교구본사에게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현수막 게재와 기념일 당일 희생자 추모법회를 열 것을 권고했다. 현재 추모 현수막 시안과 상단 축원문 등이 각 본사로 전달된 상황이다. 축원문에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왕생극락과 해원상생의 길을 가도록 노력할 것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4.3사태에 불교의 피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특히 우리 스님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 참혹한 실상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고, 더 많은 분들이 추모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불교계 #미투운동' 3월 29일 토론회

성불연대, 우리함께빌딩 기룬서 '성폭력 사례 분석' 등

강선미 소장 '젠더정치학'
이채은 등 청년불자도 발제

불교여성단체들이 '#미투 운동'의 배경과 의미를 되짚고, 불교계 성폭력 사례를 통해 그 특징과 예방책을 살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성평등불교연대는 3월 29일 오후 3시 '불교계 #미투운동을 말하다' 주제 토론회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연다.

토론회는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의 사회로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장이 '젠더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미투운동의 흐름',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이 '불교계 성폭력의 사례를 통한 특성 분석', 옥복연 종교와젠더 연구소장이 '성폭력에 대한 경전적 해석 및 대안 모색',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가 '젊은 불자의 눈으로 본 불교계 성폭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주최 측은 "지난 30여년간의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가져가고자 했던 과정이었다. #미투는 무관심하게 방치, 조장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용기 있는 폭로, 말하기다. 성폭력은 여전히 조직과 집단 내에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은 폭로한 후에도 비난 등의 사회적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 대상화시키고 다른 사안으로 몰고 가거나 다른 의도를 의심 받기도 한다"며 "이것이 공동체의 성찰과 자성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젠더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성평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미투가 다른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고 종교계 역시 피해자의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젠더 권력을 비롯한 일상적 권력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성폭력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종교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절대적 권위, 신앙을 의심받고 배제되는 종교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에 성불연대는 "'불교계, #미투운동을 말하다' 토론회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꺼내는 것조차 낯선 불교계에서 최근 #미투운동의 배경과 의미를 공유하고 불교계 성폭력의 사례를 통한 성폭력의 특징과 예방책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경전에서 나타난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침묵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말하기'의 용기를 주겠다는 의미서 시작됐다. 또한 성폭력을 묵과해온 것에 대한 성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자리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문화재 재난매뉴얼 마련 의무화된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지정문화재에만 적용됐던 재난 · 도난 대응 매뉴얼 제작 의무화가 등록문화재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은 화재 · 재난 대응 매뉴얼, 동산문화재는 도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국보 ·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문화재 중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이 지났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근대문화유산'으로도 알려진 등록문화재에는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이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문화재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학생단체와 'With You 선언'

중앙도서관서… 관련 리플렛 제작 · 1달간 집중 신고 운영

신임 동국대 인권센터장엔 안석모 前인권위 사무총장



동국대 인권센터는 3월 19일 오전 11시 중앙도서관에서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 학생단체들과 함께 '위드유(WithYou) 선언식'을 개최했다.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에 동국대도 이에 동참하는 '위드유(WithYou) 운동'을 전개한다.

동국대 인권센터는 3월 19일 오전 11시 중앙도서관에서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 학생단체들과 함께 '위드유(WithYou)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성희롱 ·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용기 있는 이들에 대한 지지를 보낸다"며 "동국대는 피해자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인권센터는 위드유 운동을 구체화 하기 위해 'WithYou' 팔찌 및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며, 학생 중심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 성희롱 · 성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인권센터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을 통한 다채널 신고 및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국대는 학내 인권센터의 신임 수장에 안석모 前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안 前사무총장은 지난 3월 1일 동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안 신임 동국대 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 학생 모두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최근 '미투(Me Too)운동'에 나선 대학생들의 용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표하는 '위드유(With You)운동' 또한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련사 창건 119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양주 청련사의 역사와 문화」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천년고찰 청련사에서는 문헌고증을 통해 청련사의 지난 역사를 정립하고 현재와 미래의 종교적 역할을 제시함과 더불어 1200여년 동안 유지, 전승되어온 유형 · 무형 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천년고찰 청련사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18년 4월 14일(토) 14시

장 소 : 양주 천년고찰 청련사 대적광전

주 최 : 천년고찰 청련사

후 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태고총림 선암사, 양주시청, 장흥면사무소, BTN불교TV, BBS불교방송, 한국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 푸른연꽃마을

문 의 : ☎ 031)836-243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청련사)

세미나 식순

시 간	내 용
〈입 재 식〉	▸사 회 (철오스님)
14:00 ~ 14:30	▸경과보고 (효능스님)
	▸인사말씀 (천년고찰 청련사 총무 상진스님)
	▸축 사 (내 · 외빈)
	▸축 가 (심향합창단 - 공심공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주제발표〉	
14:30 ~ 14:50	【제1주제】"청련사의 역사적 변천과 위상"
	■발 표 : 이종수 (순천대학교)
14:50 ~ 15:10	【제2주제】"양주 청련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
	■발 표 : 유근자 (동국대학교)
15:10 ~ 15:30	휴식
15:30 ~ 15:50	【제3주제】"조선 말기 청련사와 왕실발원 불화"
	■발 표 :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15:50 ~ 16:10	【제4주제】"청련사 어산상진 계보와 성음의 특징"
	■발 표 : 윤소희 (동국대학교)
16:10 ~ 16:30	【제5주제】"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발 표 :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전체토론〉	
16:30 ~ 17:30	▸좌 장 : 최종남 (중앙승가대학교)
	▸토론자 : 김종진 (동국대학교), 최엽 (동국대학교)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손인애 (서울대학교)

새로운 전법 위한 대중공사 열린다

포교원 전법단 22일 회의
9월 개최 · 매월 모임 결의

경찰,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법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전법단이 새롭게 변화하는 포교지형에 맞는 포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중공사를 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3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전법단(단장 가섭, 포교원 포교부장) 대표자 회의를 열고 9월 전법단 대중공사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전법단 회의에는 체육인 전법단, 경찰 전법단, 장애인 전법단, 병원 전법단, 청년대학생 전법단, 국제 전법단, 교정교화 전법단, 신도시 전법단, 어린이청소년 전법단, 어르신 전법단, 군 전법단 대표자와 실무자 25명이 동참했다.

전밥단 대중공사는 불교가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내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중공사에서는 신행혁신 '붓다로 살자'의 실천 방안, 전법단의 포교 활성화, 지역 사찰과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대중공사에는 해당 전법 분야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준비모임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포교원 측은 "전법 포교를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이젠 SNS로 대학생 캠퍼스 포교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페이스북 · 웹자보 활용 전법 눈길

불교상식 정보소개 '불나방'
카드뉴스 형식 이색 콘텐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충주 석종사에서 진행된 2018 대불련 템플스테이에서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대불련 회원들.



불나방 알쓸불상 '천왕문' 편.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페이지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수정 씨

'청년불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졌네요.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 법상 스님

3월 입학 시즌에 맞춰 대학 새내기 전법 포교에 SNS를 활용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 이하 대불련)는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불나방'을 개설했다. '불교를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방'의 약칭인 '불나방'은 동아리 소개와 함께 대학생들이 쉽고 친근하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코너는 '알쓸불상'(알면 쓸데 있는 불교 상식)으로 예능프로그램 '알쓸신잡'을 본떠 불교교리부터 불자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불교계 정보 등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담았다.

일주문과 사천왕상 등 사찰문화에 대한 소개, 불교의 업과 윤회 등 불교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밖에 '오늘 하루 불교 갬성'이란 코너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불교 사자성어를 재치있게 풀어냈다.

이윤섭 불나방 기획팀장(대불련 부회장)은 "대불련 중앙회와 각 지회에서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하고는 있지만 청년불자를 위한 콘텐츠를 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새로운 페이스북을 운영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고서연 불나방 디자인 팀장은 "청년들에게 불교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높다.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고 홍보를 해도 직관적으로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알리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불교동아리 홍보의 경우 입학 초기 캠퍼스에서 짧은 시간동안 진행하기에 재미와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웹자보를 활용한 온라인 캠퍼스 포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불련 공식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대불련 연희단', '다온 봉사단' 등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회에서도 동아리 현장 홍보와 함께 웹자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경우 이미 90명 가량이 가입한 상황이다. 대불련 중앙회 측은 홍보 진작을 위해 포교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들의 문화에 맞는 다양한 포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동아리 홍보 현장에서도 팝콘 등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물품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기자단, 봉사단 등 대학생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포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은 23일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대불련 소모임 공동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설된 소모임은 '다온 봉사단' '봉축연희단' '기자단'으로 '다온'은 "다온다"는 순 우리말의 줄임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불자들이 학업과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본 서의 원제(原題)는《삼원연수참찬서(三元延壽參贊書)》이니, "천원(天元), 지원(地元), 인원(人元)을 참찬(參贊)하여 장수하는 내용의 책"이라고 해제(解題)할 수 있다. 본 서의 대강(大綱)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준 수명 60세, 땅이 준 수명 60세, 노력해서 되는 수명 60세, 총 180세가 인간의 본 수명인데 사람들은 하늘이 준 수명은 정기(精氣)를 모손(耗損)하여 삭감시키고 땅이 준 수명은 기거(起居)가 절도 없어 삭감시키며 노력해서 되는 수명은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 삭감시킨다. 만약 모손하지 않고 절제하면 능히 180세의 천수(天壽)를 누릴 수 있으며 복이(服餌)하고 음덕(蔭德)을 쌓으면 그 이상도 장수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양생법(養生法)을 열거하였고 거병강장(祛病剛壯)하여 장생구시(長生久視)할 수 있는 보약처방도 등재하였다. 본 서의 저자는 원대(元代)의 지주(池州, 지금의 貴州市) 사람으로 A.D1291에 본 서를 저술하였다. 도가(道家) 30대 명저에 꼽히면서 양생서(養生書)중에서도 중국도교학회(中國道教學會)와 중의학계(中醫學界)에서 수위(首位)라고 인정받고 있다. 본 지(紙)에서는《삼원연수서 · 김재두 역주(한국학술정보)》의《卷之二. 14 거주함起居》에서부터 매주 전재(轉載)할 예정이다. 김재두는 기타《양성연명록(養性延命錄 · 학고방),《몽점일지(夢占逸旨) · 은행나무),《한산자 시집(寒山子 詩集) · 경서원》등의 역서가 있다. 김재두는 20여년간 수원시 한의사회관, 상지대, 세명대에서 기공(氣功)과 양생학(養生學)을 강의하였고 현재는 경기도 양평의 김재두한의원에서 연구와 진료를 하고 있다.

14 거주함. 起居。

○廣成子曰, 無勞爾形, 無搖爾精, 乃可以畏生。所謂無勞者, 非若飽食坐臥, 無然不動, 使經絡不通, 血氣凝滯。但不必提重執輕, 兀兀終日, 無致精力疲極, 則妙矣。

광성자(廣成子)⑨가 말하기를, "너의 몸을 피로하게 말고 너의 정(精)을 흔들지 말라. 그것이 양생(養生)하는 것이다."

피로하지 말라는 말은, 배불리 먹고 편히 앉거나 누워 마냥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경락(經絡)이 불통하여 기혈(氣血)이 응체된다. 단지 꼭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있을 필요는 없이 가볍게 움직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힘과 정(精)이 원활히 소모되어 극히 피로해지지 않아 묘(妙)함이 있다.

○莊周曰, 人有畏影惡迹而走, 擧足愈數而迹愈多, 走愈疾而影不離身。自以爲尙遲, 疾走不休, 絶力而死不知處。蔭以休影處, 靜以息迹, 愚亦甚矣。

장주(莊周)가 말하기를, "어떤 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꺼려하여 살금살금 여러 걸음을 걸으니 발자국은 도리어 많게 된다. 혹은 빨리 달리기도 하나 그래도 그림자는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히 달리기를 그치지 않으면 힘이 소모되어 어느 곳에서 죽을지 알 수 없다. 또한 그림자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휴식만 하며 지내는 것도 역시 어리석음이 지나치다.⑩

○書云, 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蓋敢於有爲卽殺身, 不敢有爲則活其身也。

용감하여 남을 견강(堅强)하게 대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용감한데도 남에게 견강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는 살게 된다. 대개 인위(人爲)적으로 견강하게 남을 대하는 자는 곧 죽임을 당하고 인위(人爲)적이라도 견강하지 않게 남을 대하는 자는 그 몸이 살게 된다.

○書云, 起居不節, 用力過度, 則絡脈傷。傷陽則飧, 傷陰則下。

기거(起居)에 절도가 없고, 지나치게 힘을 쓰면 맥락(脈絡)을 상한다. 그리하여 몸의 양(陽)을 상하면 코피가 나고 음(陰)을 상하면 하혈(下血)을 한다.

○書云, 起居不時, 食慾不節者, 陰受之而入五臟, 塡滿拍塞爲飧泄, 爲腸癖, 賊風虛邪者, 陽受之而入六腑, 身熱不得臥, 上爲喘呼。

기거(起居)에 절도가 없고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으면 병사(病邪)가 몸의 음분(陰分)으로 들어가서 5장(五臟)에 침입하여 가득 차서 막히게 되면 손설(飧泄)⑪, 장벽(腸癖)⑫이 된다. 적풍(賊風)⑬과 허사(虛邪)⑭는 몸의 양분(陽分)으로 들어가서 6부(六腑)에 침입한다. 그리되면 몸에 열이 생겨서 잠을 못 이루고 상초부(上焦部)는 숨이 가쁘게 된다.

○書云, 精者神之本, 氣者神之主, 形者氣之宅。神太用則歇, 精太用竭, 氣太勞則絶。

정(精)은 신(神)의 근본이고 기(氣)는 신(神)의 주인이며 몸은 기(氣)의 집이다. 신(神)을 지나치게 쓰면 흩어져버리고 정(精)을 지나치게 쓰면 고갈되며 지나치게 노역(勞役)하면 기(氣)가 다해 끊어진다.

○書云, 甚勞則喘息汗出, 損血耗氣。

심하게 노역하면 숨이 가쁘고 땀이 나며 혈(血)이 손해나고 기(氣)가 소모된다.

註解

⑨ 광성자(廣成子): 上古時代의 仙人. 崆峒山(河南省 臨汝縣)의 동굴에 살았는데 黃帝가 찾아와 至道의 要諦를 물었다. 광성자의 道說은《莊子 · 在宥篇》에 전한다.

⑩ 어떤 자는 ~ 자신의 어리석음이 지나치다. : 그림자 · 초상화 · 사진 · 이름에는 그 사람의 魂靈이 배여 있다. 초상화 · 사진 · 이름을 앞에 놓고 기도나 저주를 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감응하는 이유는 그것을 안테나로 하여 그 사람에게 通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이 자신의 그림자를 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달리거나 그늘에만 있는 것은 생활에 불편이 지나치니 운명이라고 체념하여 허용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렇다 해도 시체, 오물 위에 자신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게 해야 하며 본인의 초상화나 사진이 찢겨지거나 길에서 뒹구는 일이 없게 해야 神魂이 불안정하지 않게 된다.

⑪ 손설(飧泄) : 大腸이 寒冷하여 腸鳴하여 설사하는 증상.

⑫ 장벽(腸癖) : 痢疾의 異名이며 俗稱 腸病이다. 소량의 묽거나 진한 膿便을 자주 보는 경우이다.《素問 · 通便虛實論》에 이르기를, 腸澼하여 便血하는데 身熱이 있으면 죽고 寒하면 산다.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조계종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조계종 디지털대학 4월 28일부터 3개월간 강의 진행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도지도자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조계종 디지털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4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불교교리 및 소양, 포교실천 역량, 신행 · 교육 역량, 신행혁신과 불자상, 조직실천지도 역량 등 5가지 영역으로 총 27강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강의 외 입재식과 회향연수가 열리며 교육 이수 후 '선혜' 품계가 품서된다. 선혜 품계는 종단 신도품계제도의 가장 높은 단계다.

교육대상은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해 포교사단 추천을 받거나, 일반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활동한 포교사들이 대상이다.

또 부동품계 품수자 중 신행활동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발심' 품계를 수지하고 신행활동경력 30년 이상으로 중앙종무기관장, 본사 주지 스님, 중앙신도회장, 포교사단장 추천을 받은 신도, 재교육을 희망하는 '선혜' 품계 품수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4월 13일까지로 이메일(kjs@buddhism.or.kr)이나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내 종무행정 포교 자료실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포교원 등에 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티벳불교에서 배우는 '웰다잉'

세첸코리아 티벳 고승 켄뽀 졸덴 스님 초청 법회

세첸코리아는 4월 18~19일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세첸명상센터에서 '켄뽀 졸덴' 스님을 초청해 만다라 수행 전수를, 4월 21~22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죽음명상 주제 법회를 진행한다. 또 4월 26~229일 인제 백담사에서 자비명상 로종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한편, '켄뽀'는 선지식을 의미하는 말로 켄뽀 졸덴 스님은 티벳 전통 교육을 마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네팔 사캬파 국제불교학술원 (IBA)에서 원장으로 있으며 불교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박진형 기자

명상리더십센터 '인문학으로 읽는 선불교' 강좌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정진희)는 4월 4일~6월 20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인문학으로 읽는 선불교' 강좌를 진행한다.

김흥근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강좌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재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다.

김흥근 교수는 "선불교 깨달음의 내용을 인문학적 언로로 해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강좌에서 무명을 밝히는 자세한 방법을 익힌다면 실생활에서도 내면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722-2101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남성어르신 요리로 인생 가꿔요"

영주시노인복지관 3월 22일 대일 요리학원과 MOU

천태종복지재단 영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이경희)은 3월 22일 대일요리학원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영주시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집밥의 대가'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집밥의 대가' 요리 교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혼자 거주하거나 은퇴 직후의 남성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요리교실이다.

장소는 대일 요리학원으로, 마지막 회기에는 배운 요리들을 토대로 요리 경연 대회도 실시될 예정이다. (054)632-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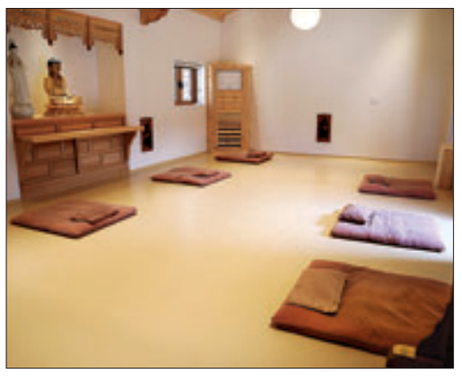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내빈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새로 낙성한 화계사 국제 선문화체험관. 전통사찰양식과 서양식 인테리어를 활용했다. 사진은 낙성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현판 제막을 하는 모습.



건물 맨 위층에 마련된 국제선원. 여러 스님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외국인스님들이 거주하는 방. 원룸형태로 옷장과 냉장고 등이 갖춰져 있다.

世界一花 가르침 아래 핀 국제수행도량

서울 화계사, 국제 선문화체험관 3월 17일 낙성

국제선원 · 템플스테이 복합기능
3층 규모, 수행공간 · 차담실 갖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삼각산 화계사가 외국인스님과 템플스테이 체험객 숙소로 활용될 대규모 시설을 완공,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도량으로 발돋움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는 3월 17일 경내에서 600여 사부대중 축하 속에 '국제 선문화체험관 낙성식' 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화계사 조실 설정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계룡산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 LA달마사 주지 정범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몽골스님들을 비롯한 외국인스님들이 대거 함께했다.

이번에 낙성한 국제 선문화체험관은 외국인스님들의 거처였던 국제선원과 템플스테이 시설을 함께 모아놓은 건물이다. 앞서 기존 국제선원은 낙후된 시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선원과는 거리가 먼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화계사에는 별도의 템플스테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적광전을 활용해 템플스테이를 운영해오기도 했다. 화계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선문화체험관 건립에 나섰다.

선문화체험관은 총 3층 규모로 지어졌다. 맨 위층은 외국인스님들이 거주하며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선원과 손님을 맞이하는 차담실 등을 갖췄다.

각 방에는 개별 화장실, 옷장, 시스템에어컨 등을 구비했다. 단열을 위해 외벽에만 20㎝에 달하는 단열재를 넣고, 원활한 통풍을 위해 건물 외벽과 복도쪽 벽에 각각 창문을 달았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 포행할 수 있도록 'ㄷ' 자 형태로 건물을 설계했으며, 시각적인 답답함이 없도록 건물 가운데는 통째로 비웠다. 이 때문에 방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산자락과 삼각산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체험관은 외국인스님 10여 명이 거주할 예정이며, 템플스테이 체험객은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선문화체험관에는 만공선사가 무궁화 꽃에 먹을 찍어 쓴 근화필(槿花筆) '세계일화(世界一花)' 현판이 걸렸다. 이는 수덕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떠 새로 만든 것으로 세계일화를 강조했던 만공선사와 이를 전 세계에 알린 제자 숭산 스님의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화계사 조실 설정 스님은 치사를 통해 "그동안 화계사는 숭산 스님의 인연에 따라 외국인스님들을 위한 도량으로 알려졌지만 마땅한 수행장소가 없어 대적광전 다락방을 사용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선문화체험관 낙성으로 불성의 꽃을 피우기 위해 '세계일화' 를 주창하셨던 만공선사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지 수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많은 불자님들의 기도 공덕으로 선문화체험관을 낙성할 수 있었다. 줄탁동시(啐啄同時)처럼 응집된 기도의 힘과 건립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의 원력이 만났기에 가능했다"며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듯이 화계사는 점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원융회통, 만공선사의 세계일화 사상이 건물 이름처럼 전 세계에 전파되길 바란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대중공양과 장애인 복지, 자비나눔 등 화계사 덕분에 강북구는 행복한 지역구가 된다. 선문화체험관 낙성으로 강북구가 세계적인 도시이자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고 인사했다.

"화계사는 외국인스님들 출가본사"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저는 화계사가 외국인스님들의 출가본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거 결제에 들어가면 제방선원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해제하면 돌아와 언제든지 편히 쉬라고 당부하죠. 외국인스님들은 숭산 스님과 인연 맺은 곳이기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내하며 생활했는데 개선된 시설에 다들 편안해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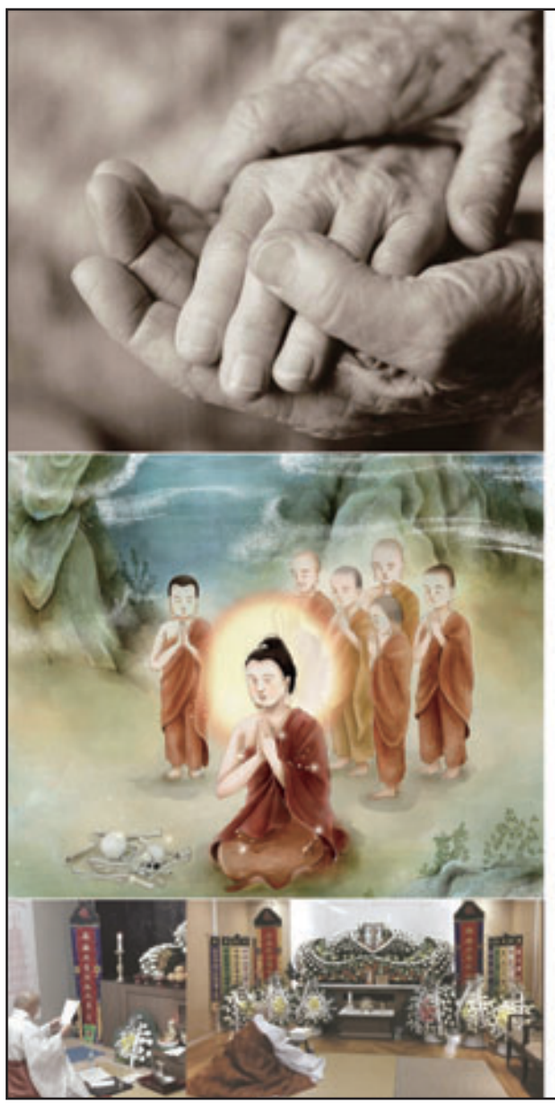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국제 선문화체험관 낙성의 가장 큰 의미로 '외국인스님들의 편의성 향상' 을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화계사는 동국대 백상원으로 활용되던 건물을 인수해 외국인스님들 거처로 사용했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쉬이 해결하진 못했다. 다행히 화계사는 선문화체험관을 지으며 해묵은 과제를 털어냈다.

수암 스님은 "앞으로 무상사 스님들과 협의해 이곳을 총괄할 선원장을 임명하고, 방부를 들일 때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지 개입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스님들의 자율성을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체험관이 템플스테이 시설 기능까지 갖춘 만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느끼는 질의 변화도 기대했다.

수암 스님은 "기존에는 대적광전을 템플스테이 숙소를 사용했다. 개별 방이 없어서 대방에서 함께 자고,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시설이었지만 그럼에도 연간 4000명의 체험객이 다녀간다"며 "인원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체험객 개인이 느끼는 변화는 확실할 것 같다. 프로그램도 내실을 다져 손꼽히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암 스님은 끝으로 기도와 나눔을 모토로 하는 화계사의 정신을 외국인스님들이 잘 이해하고, 대중에 회향하는 데 나서줄 것을 기원했다. 스님은 "승속과 이사를 떠나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화계사 사부대중이 힘을 쏟겠다.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 없이 정토구현에 앞장서 희망이 넘치는 강북을 위해 정진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TN불교TV 불국토상조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에…
부처님 모시듯이 진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전 효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뜻하지 않은 그날, 불국토상조가 곁에 있겠습니다.

NAVER 불국토상조 를 검색하세요.
www.btnlife.co.kr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설립한 불국토상조
가입상담 1577-7675

진흥원 화요열린강좌

불교정신치료…“이론 아닌 실제 보게 돕는 것”

주제 : 불교정신치료는 무엇이 다른가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전문의는… 부산대 의대 졸업 후 순천향대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됐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2003년 한 달간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체험하고, 2007년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를 만들었다. 주요 저서로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생각 사용 설명서〉 등이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저는 오늘 새로운 정신치료를 소개코자 합니다. 1900년 초 프로이드와 융의 분석심리학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불교정신치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1985년 우연한 기회에 불교를 만나고 정신치료를 기본적으로 하다가 ‘불교가 진리구나’ 하고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 사는 게 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에게도 적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불교와 정신치료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불교가 정신치료가 될 수 있을까

불교가 정신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는 사유를 한 게 아니라 관찰을 통해 보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관찰을 통해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관찰하면 과학이 될 수 있듯이 불교적인 인간의 이해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관찰을 통해 나온 겁니다. 불교에서 나온 것은 다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붓다가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관찰을 하니까 과연 그랬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 과학으로 다 증명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오는 불교, 윤회는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과학은 거시적 관찰과 미시적 관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붓다는 삼매를 통해 정신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985년에는 불교정신치료를 할 때 사람들이 불교와 정신치료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잘 밝혀놓았기 때문에 정신치료가 가능합니다.

불교정신치료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교는 충분히 검증된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계속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그러나 불교정신치료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검증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람에 맞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강점은 인간 자체를 고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인간존재자체가 시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항상 괴로움을 동반하고 인간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괴로움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어떤 괴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탁월합니다.

불교 치료의 세 원리

불교 치료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게 해주는 것. 둘째,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 번째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불교 치료의 원리입니다.

불교는 인간 이해 바탕 하는
충분히 검증된 진리로 치료해
내 마음 바라봐 몸과 연결하고
공감 통해 ‘실제’ 보도록 도와

우선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야하는 이유는 그것에 의해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 그것을 잘 처리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괴로운 것을 처리 못해서 뇌도 심리적인 것도 문제가 생기므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보면 몸의 속성은 조건에 따라 생명활동이 왕성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명상을 해보니까 몸이 간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작용을 하여 생명활동에 작용을 합니다.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영향을 줍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되면 그것도 좋은 순간이 됩니다. 마음의 반응을 떠나서는 몸이 절대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보행명상을 해보면 걷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발을 들고 놓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삼매 · 순간삼매 · 본삼매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눈이 생기면 근본적인 물질과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네 가지 업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것은 다 업이 만들어냅니다. 또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면 물질 자체도 분열합니다.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몸보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돈 없는 상태를 못 견디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강화시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붓다의 제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조금도 컨트롤 할 수 없고 마음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고정된 원인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원인에 의해 움직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가서 영향을 받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이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가는 마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대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존재의 인식을 하기 전의 상태에 가있는 대상이 있는데, 삼매수행을 하다보면 내가 누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대상에 우리가 가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대상에 가있는 상태를 알아야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마음이 불안한 상대에 가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미리 가있어서 생깁니다. 마음은 한 번에 한곳으로 갑니다. 좋은 곳에 가면 행복하고 정신이 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대상을 접촉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야합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마음이 많이 가는 쪽으로 길이난다는 사실입니다. 길이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좋은 쪽으로 가야합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좋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면 몸이 더 빨리 낫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플 때 결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화날 때 몸이 무거운 것은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안 보이니까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낼 때 어떤지 알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 실천하려면 몸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합니다. 몸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것을 항상 순간순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남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판단한 내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게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쁘게 보면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이 좋은지 아닌지 잘 압니다. 문제는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 입니다. 현대에는 공감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태어난 동네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서나 삽니다. 그러니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공감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공감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봤습니다.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네 마음이 그게 아니다’ 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정확하게 보려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원리가 지혜로써 살아가는 것이었죠,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사람의 실제는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면 그 사람과 충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영화 ‘뷰티플마인드’ 에서도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지금껏 본 것이 실제가 아니었구나’ 하고. 그리고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치료 작업은 실제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를 보려고 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나’ 입니다. 내 이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보다 실제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불교정신치료는 이론을 보려하지 않고 실제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실제를 보아야합니다. 이론으로 보려하지 않고 실제를 보게하는 것이 불교정신치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각박해지고, 마음의 병을 앓는 현대인은 늘었다. 마음의 병으로 병원이나 상담가를 찾는 사람들도 주변에 흔히 보인다. 그런데 불교 수행을 통해 마음의 괴로움을 치료할 수 있다면 불자들에겐 그야말로 희소식일 것이다.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3월 20일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서 ‘불교정신치료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전 전문의는 “남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공감과 실제 있는 그대로를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 불교정신치료는 불교를 통해 실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등



위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초의의 부상 걱정한 절절함을 담다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上書

⑥ 대은암 유정 스님의 편지

대은암 승려 유정(有正)이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1843년 12월 9일에 일이다. 편지의 피봉에 '초암(草庵) 정수 대은암 소승 유정 상후서(草庵 淨水大隱庵 小僧 有正 上候書)'라고 쓴 것으로 보아, 대은암(大隱庵)은 정수사(淨水寺) 산내 암자라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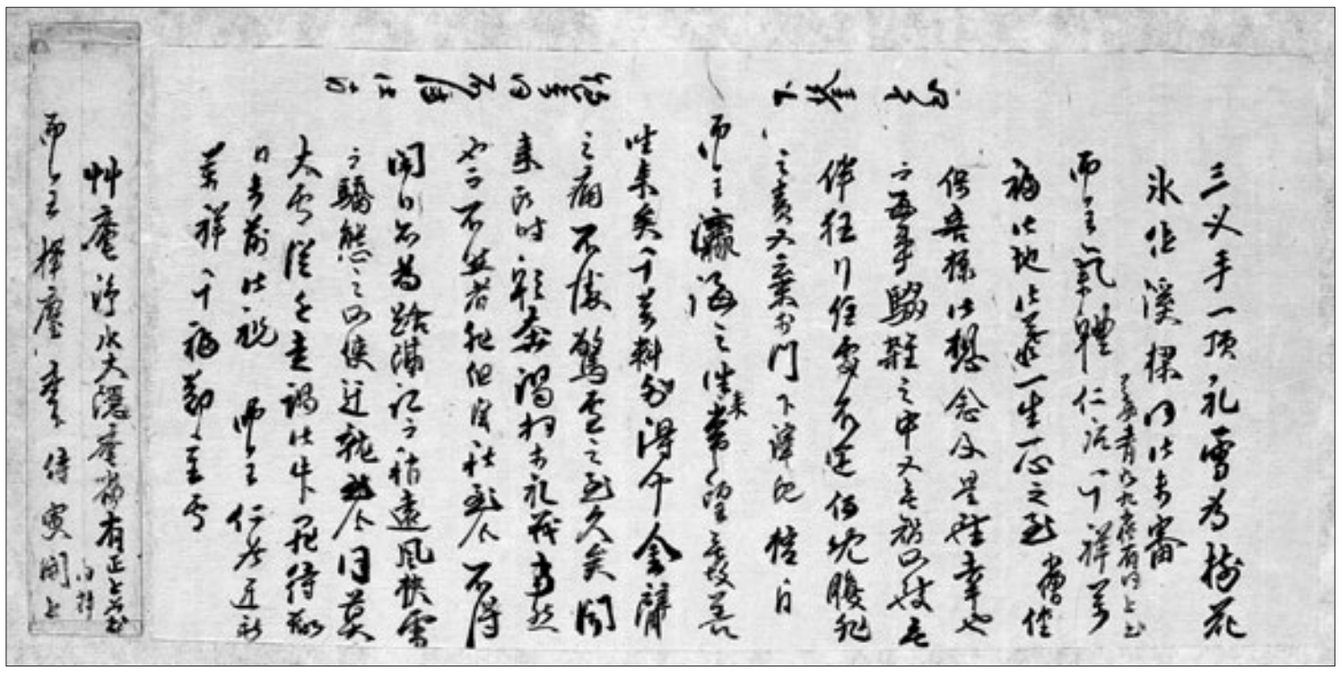
이뿐 아니라 조선 후기 전라남도 일원의 사찰들이 대부분 대흥사의 말사였고 초의를 사주(師主), 즉 스승이라 칭한 점에서 유정은 대흥사 출신 승려로, 초의와 사제의 인연이 있었던 인물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혹 그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대흥사 권속에 관한 자료 및 범해의 〈동사열전〉을 살펴보았으나 그 자료는 찾기란 불가능한 듯하였다. 추후 그에 대한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이 편지를 살펴본다.

유정의 편지는 그 크기는 대략 23.1×45.5cm 정도이다. 이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서간문체로, 초암 즉 초의에게 보낸 문안 편지이다. 이 편지의 겉봉투의 좌편에는 '휘진좌상 시연 개상(揮 座下 侍寅 開上)'이라 쓴 대목이 눈에 띈다. 바로 '스승의 자리에 먼지를 떨고 모시는 이가 편지를 열어 올리시오'라고 하였다. 옛날 편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문투이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성의 어린 마음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편지의 피봉은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피봉에 드러난 정보는 이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그의 편지 내용 중에는 사주(초의)가 제주에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애를 태우는 그의 심정을 서술해 두었다. 그러나 1843년 경 초의의 부상은 제주에서 말을 타다가 볼깃살이 헤지는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편지 속에 언급된 초의의 부상은 실제와는 다르게 경향에 회자되었던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어는 시대이건 소문이란 실제와 다르게 퍼진다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소문이 지닌 속성인 듯하다. 그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삼가 차수(叉手)하고 정예를 표합니다. 눈이 내려 나무엔 꽃이 핀듯하고, 얼음은 시내 다리를 만든 듯합니다. 삼가 문안을 드립니다. 스승께서는 어떠신지요.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만복과 모든 상서로움이 깃드시길 빕니다. 땅에 엎드려 일생 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소승은 겨우 객지를 떠도는 처지이지만 생각이나마 미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매번 일마다 뒤섞이고 또 지혜도 없어 이르는 것마다 짝할 이 없이 미친 행동을 하며 머물 곳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을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또 문중에서 버려져 더럽혀지고 막힘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스승(초의)께서는 제주도를 왕래하시는데, 항상 탈 없이 잘 왕래하시길 빌었습니다만 천만 뜻밖에도 팔을 다치는 고통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놀래고 염려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는 즉시 달려가서 배알하는 것이 예의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가을부터 지금까지 한가한 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길이 강으로 막혀 조금 멀고 눈보라가 쳐 교만한 태도에 부림을 받아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민망함이 이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날에 달려 배알하길 계획하여 수일이 되기 전에 죄를 받겠습니다. 삼가 사주께서 인후하시길 빕니다. 새로운 많은 상서로움을 맞으시고 모든 복이 은근하시길.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삼가 아뢰니 상서를 살펴주십시오. 1843년 12월 초9일 소승 유정 삼가 올립니다.

三叉手一頂禮 雪爲樹花 氷作溪樑 謹伏未審師主氣體仁厚 千祥萬福 伏地伏慕 一生一心之至 小僧 僅保客樣 伏想念及 是雖幸也 而每事駁雜之中 又無智所致 無伴狂行 住處不定 何免腹非之責 又棄於門下 滓沈椌白 師主瀛海之往來 常望無故善往來矣 千萬料外 得聞金臂之痛 不勝驚慮之至久矣 聞來卽時躬奔謁拜 於禮義當然也 而不然者 非但自秋至今不得閑日 亦爲路隔江而稍遠 風挾雪而驕態之所使 遷就至今 悶莫大焉 從近走謁伏計 罪待數日未前 伏祝師主仁候 新萬祥 千福鄭重焉 餘萬謹不備 伏白下鑑 上書 癸卯 十二月 初九 小僧 有 謹上書



대흥사 말사 대은암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 유정이 1843년 12월 사형인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가 제주에서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걱정하는 절절함이 담겨 있다.

대흥사 말사 대은암 유정 스님
1843년 12월 초의에 문안 편지
제주서 골절상 입었단 풍문 접해
사형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 담겨

골절은 풍문, 말안장에 둔부 다쳐
초의의 부상도 세간 관심사였을 듯

이 편지에는 그가 대흥사 사중에서 잘못을 저질러 "어떻게 잘못된 것을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또 문중에서 버려져 더럽혀지고 막힘이 깨끗해지겠습니까"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가 객지를 떠도는 객승의 처지가 여기에서 연유된 듯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주(초의)에 대한 성의는 변함이 없어 늘 사주가 편안하게 수행하길 소원했던 그였다.

또 다른 정보는 초의에게 보낸 그의 편지는 1843년 12월 9일에 쓴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초의가 제주도를 찾아간 시기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초의가 제주도를 방문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를 밝힐 문헌적 자료는 제법 풍부하게 남아 있으니 초의의 〈일지암시고〉와 〈완당전집〉, 추사 김정희의 편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일지암시고〉에 초의가 1843년 여름, 제주목사 이원조가 그의 시를 구하기에 지었던 '제주목사 이공이 시를 구하기에 마침내 망경루를 차운하다(濟牧李公索詩遂次望京樓韻)'이 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추사의 〈완당전집〉 '여초의' 18신이라 하겠다. 이 편지에는 초의가 제주에서 말을 타다가 부상을 당했던 고충을 피력했지만 편지를 쓴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그 시기를 밝히는데 아쉬움이 많았던 자료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 전 발굴된 〈벽해타운첩〉이다. 벽해는 제주를 말한다. 초의가 제주시절 추사 김정희(秋史金正喜1786~1856)가 보낸 편지를 묶어 〈벽해타운첩〉이라 명명한 것인데 이 첩이 한 옥션 경매에 출품된 바가 있다. 이를 확인해 보니 바로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추사의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 18신과 같은 편지였음이 확인되었고, 이 편지는 1843년 7월 2일에 쓴 것임도 밝혀진 셈이다. 자료 발굴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초의가 말을 타다가 부상을 입은 시기는 1843년 음력 7월2일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 것이다. 아울러 그가 제주를 찾아간 시기도 1843년 3~4월경(음력)으로 추측할 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럼 1843년 7월2일에 보낸 추사의 편지에는 초의의 부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안장에 볼깃살이 벗겨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니 가여움이 절절합니다. 크게 다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말을 듣지 않고 경거망동을 하셨으니 어찌 함부로 행동한 것에 대한 업보가 없겠습니까. 사슴 가죽을 아주 얇게 떠서 (이것을) 상처의 크기에 따라 잘라 밥풀을 짓이겨 붙이면 좋아질 것입니다. 이는 중의 살가죽이 어떻게 사슴 가죽과 같겠는가. 사슴 가죽을 붙인 후에는 곧바로 일어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찌는 더위가 괴로울 뿐입니다. 겨우 적습니다. 그럼. 1843년 윤7월2일 다문

卽聞不勝鞍馬致有 肉損脫之苦 奉念切切 能不大損耶 不聽此言 妄動妄作 安得無妄報也 以鹿皮薄薄片 量其傷處大小裁出 以米飯糊緊粘則爲好 此僧皮何如鹿皮者也 皮粘後 卽爲起身還來至可至可 此狀一味苦熱而已 艱草不宣 癸卯閏七月二日 茶門

추사는 "(초의가)말안장에 볼깃살이 벗겨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니 가여움이 절절합니다"라 하였다. 바로 초의는 제주에서 말을 타다가 볼깃살이 헤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던 추사로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해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초의 부상 소식을 제주 목사 이원조를 통해 듣고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추사가 초의에게 알려준 좋은 치료법은 "사슴 가죽을 아주 얇게 떠서 (이것을) 상처의 크기에 따라 잘라 밥풀을 짓이겨 붙이면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처방이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추사는 "중의 살가죽이 어떻게 사슴 가죽과 같겠는가. 사슴 가죽을 붙인 후에는 곧바로 일어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눈에 띈다. 오랜 벗이 나눌 수 있는 해학적 요소는 추사의 해학적 일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해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순리를 아는 자의 여유에서 나온 성찰일 것이다.

아무튼 초의의 부상 소식은 바람처럼 퍼져 나갔다. 유정이 말한 것처럼 팔이 부러졌다는 소문도 그 중 하나이다. 다른 한편으로 초의와 교유하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초의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당시 초의와 교유했던 사람들은 우려와 함께 퍼져 나갔던 풍문이 얼마나 장황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유정의 편지는 실제와 다르게 퍼져 나간 초의 부상 소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편지인 셈이다.

한편 초의는 제주를 가기 전에 자신의 고향 신기마을을 찾았다. 그 때가 1843년이다. 당시 그는 '고향에 돌아가(歸故鄕)'를 짓는다. 출가승이었던 그가 4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은 것이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의 고향, 신기마을 집터를 바라보던 초의의 회한은 "아득히 고향을 떠난 지 40년 만에/ 머리가 하얗게 센 줄도 모른 채 돌아왔네/ 신기의 집터엔 풀이 우거져 옛 집이 어딘지/ 이끼로 덮인 옛 무덤, 걸음마다 수심이 인다"라고 읊었다.

초의는 아마 자신의 고향에서 무상과 공(空)의 이치를 피부로 느꼈을 터이다. 하지만 초의는 출가승이었다. 세속의 정에 단호했던 수행자의 풍모는 '고향에 돌아가(歸故鄕)' 말미에 "외로운 사람 다시 구름 따라 떠나려 하니/ 아! 고향 찾음이 부끄럽구나"라고 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고향을 돌아 본 후 제주로 떠났던 초의는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한 셈이다. 이들의 해후의 기쁨은 추사의 편지에 그 잔영이 스며있다. 1843년 9월 경에 보낸 추사의 또 다른 편지에는 뭍으로 돌아가는 초의를 위해 순조로운 바람, 뱃길도 여의하길 비는 내용이 보인다.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이처럼 성의를 다하는 관계였다.

초의에게 걸명(乞茗)을 청한 추사의 차 애호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거니와 유정의 편지 또한 1843년경 제주에서 한철을 보낸 초의의 일상이 단편적으로 유정의 편지에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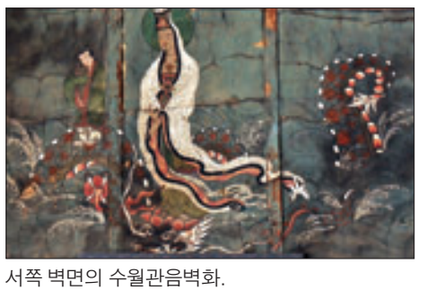
우주만유, 자비의 봄 물길로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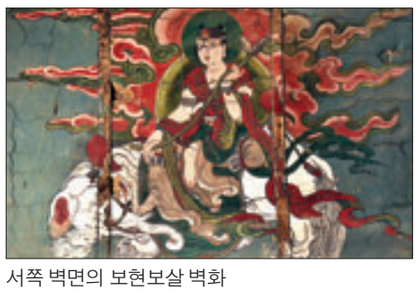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⑥ 김천 직지사 대웅전


대웅전 불단의 핵심 장면들. 정병과 산사의 정토에서 정화한 물로 생명을 탄생시키고 화엄의 화장세계를 연다.


서쪽 벽면의 수월관음벽화.

해상군선도 한 장면 같은 수월관음벽화
후불벽 세 칸 전면에 관음벽화로 장엄
정병, 산사의 정화된 물에서 생명탄생


서쪽 벽면의 보현보살 벽화


후불벽 관음벽화의 남해용왕과 선재

보현-관음-문수보살 벽화와 비천벽화

직지사 대웅전은 천정장엄 뿐만이 아니라, 사찰벽화, 불단장엄에서도 탁월한 경영능력을 드러낸다. 천정의 범자장엄이 그러하듯이 전면 5칸 규모의 건물크기에 조응하듯 벽화와 불단, 나아가 삼존불의 후불탱화도 화면의 크기에 있어 스케일을 갖춰 조성한 특징이 두드러지다. 원래 직지사 대웅전은 '대웅대광명전'으로, 전면 5칸의 중층 건물이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49년에 이르러 정면 5칸은 유지한 채 오늘날 모습인 단층으로 중건되었다. 불단이나 벽화 등에서 스케일 갖춘 대형화면이 나타난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직지사 내부벽화는 90점에 이른다. 서, 북쪽 벽면과 후불벽 뒷면에 조성한 대형벽화 6점을 비롯해서 포벽, 내목도리 상벽, 창방, 평방 등에 고색창연한 벽화들이 현존한다. 그 중에서 대형벽화 6점은 섬세한 필력이 밴 사찰벽화의 명작들이다. 고색의 색채감에 장중함마저 갖춰 깊은 감명을 준다. 특히 서쪽 벽면의 세 칸에 조성한 보현보살-관음보살-문수보살 벽화는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보현보살은 손에 연꽃 줄기를 든 채 흰색 코끼리를 타고 있다. 결가부좌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밑으로 내린 반가부좌 자세를 취했다. 보살의 배경에는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붉은 기운이 뻗쳐 신령함을 북돋운다. 보현보살은 하화중생(下化衆生)을 행하는, 보살행의 실천을 상징한다. 보현보살의 벽화는 중생에게 보살행을 부단히 실천하는 보현원행(普賢願行)을 일깨운다.

그에 조응하는 반대편은 문수보살을 배대해서 그렸다. 일반적으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탄 모습으로 묘사한다. 직지사 대웅전 벽화에선 날개 달린 황룡을 탄 모습으로 묘사해서 특이하다. 날개 달린 용을 타고 가는 동자 그림은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의 충량 벽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용이 가진 물의 기운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용의 몸통을 온통 붉은 점들로 뒤덮었다. 용 위에 앉았든, 사자 등에 앉았든 문수보살이 앉은 그 자리가 사자좌일 것이다. 문수보살은 위로 진리를 구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지혜를 상징한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자리이타 구도행의 원천인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서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불이(不二)의 한 몸이다.

두 보살벽화 사이에 관음보살 벽화를 배치했다. 벽화 속 관음보살은 흰 백의를 길게 늘어뜨린 백의수월관음이다. 벽화의 공간배경은 큰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다. 관음보살은 바닷가 바위나 연화좌에 앉은 자세가 아니라, 바다색의 몸통에 붉은 반점을 가진 용의 몸통 위에 서 계시는 독특한 구도로 조성했다. 마치 민화 〈요지연도〉에 나오는 '해상군선도'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관음보살께 법을 구하려 찾아 온 선재동자 역시 관음의 상징지물인 정병을 들고 용의 몸통 위에 맨발로 서있다. 화면 속에는 진리를 찾아온 구도행자라기 보다는 관음의 시동처럼 표현하고 있다. 대개 선재동자의 시선은 법을 청하는 형국으로 시선이 관음께 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벽화에서는 두 인물의 시선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 까닭에 선재동자의 구도행의 모티프를 읽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벽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요소들도 더러 보인다. 관음께서 서 계신 곳은 용의 몸통이 아니라, 용머리 위임을 알 수 있다. 용머리에 붉은 연꽃 두 송이를 마련해서 각각 한 발씩 내딛게 했다. 파도가 일렁이는 거친 공간배경에도 불구하고 관음보살의 자태는 대단히 유려하다. 그것은 관음의 목, 허리에 선의 흐름을 굴곡지게 해서, 소위 콘트라포스토(contrapposto)라 부르는 삼곡(三曲)자세로 몸의 선을 부드럽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북쪽 벽면 좌우의 벽화는 각각 공양비천과 주악비천상을 소재로 삼았다. 향좌측의 공양비천상은 남성성이 강하고, 향우측의 주악비천상은 여성성의 경향을 띈다. 공양비천상은 오른손에 보주와 용의 뿔, 초록 잎을 담은 접시를 받쳤고, 왼손에 붉은 보주를 움켜쥐었다. 접시에 담은 공양물들은 식용의 음식물이 아니라 물과 푸르름을 통한 영원한 생명성의 메타포로 보아야 한다. 녹색과 적색의 강렬한 대비로 벽화에 신령한 기운을 불어 넣는다. 힘차게 나부끼는 붉은 천의와 보주에서 뻗치는 붉은 기운의 선율들이 화면 가득 폭발적인 힘으로 발산한다. 그에 비해 주악비천상은 선율의 흐름이 부드럽고 순하다. 영롱한 빛의 구름과 천의의 색채마저도 파스텔 톤으로 여성적이다. 손에 쥔 젓대 관악기를 통해 주악비천의 이미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후불벽의 최대규모 수월관음 벽화

하나의 문화원형은 확산되고 시대와 예술가의 창의적인 태도에 따라 또 하나의 원형, 혹은 변형을 만들기도 한다. 직지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벽화는 그 창조적 변형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먼저 장대한 크기의 후불벽 세 칸 전면을 수월관음벽화를 장엄하는 데 적극 활용해서 벽화의 위용을 갖춘 점이 파격적이다. 가운데 칸에 수월관음을 조성하고, 향우측 벽엔 선재동자를, 향좌측 칸엔 용왕을 표현하는 구도를 취했다. 이런 구도양식은 직지사 외에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후불벽 수월관음벽화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국내에서는 그 두 곳에서만 관상할 수 있다. 선재동자는 초록의 버드나무 가지를 꽂은 검고 커다란 정병을 들고 있으며, 남해용왕은 용의 뿔과 보주가 담긴 커다란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 특히 선재동자는 동자가 아니라 성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직지사 대웅전 후불벽 관음벽화는 국내에 현존하는 후불벽 수월관음도 13점 중에서 최대 규모에다 회화의 소재도 가장 풍부하게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장인물인 관음과 선재동자, 남해용왕은 물론이고, 서사의 배경이 되는 바다와 보타락가산의 암반, 대나무, 정병, 버드나무 가지, 파랑새에 이어 용왕의 공양물과 용까지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형과 단청으로 장엄한 화장세계 불단

직지사 대웅전에서 미묘한 단청의 빛은 장대한 불단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청, 적, 황, 흑, 백의 오방색에 녹색까지 추가하고 색마다 이 빛의 바림을 풀어 풍부한 색채의 향연을 구사했다. 직지사 불단은 여러 불단의 편년을 연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대연도를 갖추고 있다. '순치팔년 신묘 사월(順治八年 辛卯 四月)'이라는 1651년에 기록한 묵서(墨書)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편년의 중요성과 조형의 심미성에 의해 2015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지정한 그 외 불단은 영천 은해사 백흥암 불단과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 등이 있다.

직지사 불단은 구조와 문양의 구성에 있어 어떤 판타지의 세계를 파노라마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한다. 불단의 양 끝에서 중앙으로 귀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에서 중앙으로의 진행은 정병의 두 입구에서 각자 용과 오색구름의 형태를 띤 신령한 기운이 천지간에 퍼지면서 시작된다. 그에 대비해서 왼쪽에서 중앙으로의 진행은 바위기운으로 둘러싸인 산사에서 막이 오른다. 산사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이상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너 채의 전각과 삼층석탑, 커다란 전나무, 암자, 토굴을 갖추고 있다. 산사의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에서 용이 붉은 여의보주를 취하려 용솟음치고, 그와 동시에 같은 계곡에서 오색구름의 기운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프롤로그를 연다.

왜 한쪽은 정병에서, 또 한쪽은 계곡에서 플롯의 전개가 시작되는 것일까? 두 곳은 모두 물을 상징한다. 그것도 정화된 물이다. 하나는 정병에서, 하나는 산사의 정토에서 정화된 물이다. 물은 생명에 대한 자비력이자 생명의 근원이다. 그로부터 고귀한 생명이 탄생하고, 화엄의 연화장세계가 펼쳐지는 조형원리다. 불단의 하단에 물고기, 게, 조개, 개구리, 달팽이, 물총새들이 공존하는 연지의 세계를 펼쳐 놓았다. 우주만유의 생명은 봄같은 자비의 물길로 열리는 법이다.

〈사진작가〉



불교는 시장과 자본 친화적 종교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⑥ 시장경제와 불교



그림 · 박구원

부처님은 사유재산이 있었을까?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깨달으신 뒤 급속도로 제자가 늘어난다. 기존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신흥 종교인인 사문 중에서 부처님은 가장 성공한 사문이 된다. 성공한 부처님이 최초로 고향인 카필라 성을 방문하였으며 경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를 데리고 카필라 성을 방문한다. 아버지 정반왕은 부처님이 당연히 성안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성밖 숲속에 머무른다. 설상 가상으로 아침마다 걸식을 위해 제자와 함께 줄을 서서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정반왕의 눈으로 볼 때는 구걸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한탄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부처님이 제자를 데리고 카필라 왕국을 방문하자 부처님의 아내인 야수다라가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에게 "너의 아버지는 재산이 많다"고 말하면서 유산 분배를 요청하라고 부추긴다. 부처님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유산을 달라는 라훌라에게 부처님은 출가하라고 지시하자 라훌라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된다.

출가자에 사유재산 허용

사유재산이란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불교 출가자에게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었다. 생전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사후에 왕이 탐낼 정도였다는 어떤 출가자의 사례도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노비를 데리고 출가한 귀족도 있었다. 불교는 출가자에게조차 사유재산을 허용하였으며 사유재산도 물적 자원을 넘어서 인적자원에까지 허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전의 구절이 있고 스님 소유의 집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허용했다.

불교는 친시장, 친자본적인 종교였다. 불교는 농민이 주축이 된 종교가 아니었고 이른바 도시귀족이라 불리웠던 신흥 상공업자가 주축이 된 종교였다.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불교교리가 도시귀족의 문화에 부합했기에 부자들이 대거 불교를 믿었다고 한다. 불교의 친시장 친자본적인 경제관은 부자에게 전혀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불교의 혁신성은 부자에게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주로 평민계급 출신이었던 부자에게는 인도의 4계급제도를 부인하고 능력과 노력을 강조하는 불교가 마음에 들었으리라.

출신보다 능력, 자본가 활동 인정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경제에 대해 아주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부자가 많은 종교인 탓으로 설법시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이며 이는 부자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불교는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재물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버는 것은 장려할 일이며 사회에 유익하다는 생각이야 말로 불교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관이다.

불교를 기독교와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많이 발견된다. 초기 기독교신자는 원시기독교라고 불리우는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공산주의와 유사하다는 후세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반해서 불교신도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다. 도심에서 포교한 불교는 신도가 주로 시장에서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주로 했으며 원거리 무역에 종사하기도 했다. 상인에 의해 불교가 전파되고 상인의 기부에 의해 불교교단이 확장되었기에 불교를 상업불교라고 부른다.

불교신도와는 반대로 불교출가자는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불교 출가자는 초기 기독교신자의 경제생활과 유사하지만 불교신도는 기독교신자와는 달리 시장자본주의 하에서 자유롭게 사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불교를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진 교단으로 보는 일부 학자의 주장은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주장이며 재가자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다.

불교는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 하에서의 경제활동을 장려했다. 부처님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인정했고 거래에 있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다만 출가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또한 자본가가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기에 자본주의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불교는 친시장, 친자본이며 시장자본주의를 경제의 주요 근간으로 인정한 것이다. 시장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자본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재가자는 물론이고 출가자의 경우도 사유재산을 인정한 불교는 매우 친시장, 친자본적인 종교였다.

경제활동에 우호적인 교리 구성
금융 '이자' 필요성 인식
자본 소외 계층 위한 법문도

기독교 · 이슬람 모두 '이자' 금지

오늘날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큼 금융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부처님은 농사 만이 아니라 상업, 목축, 심지어 돈을 저축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하고 집을 지어서 빌려주고 세를 받으라고 부동산 임대업까지 권장하는 등 아주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는 구절이다. 이자를 받지 못하면 금융업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중동의 오일머니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려다 기독교의 반대에 직면하여 포기한 적이 있다. 중동의 오일머니는 중동이 석유 수출로 축적한 금융기관의 보유 자금이다. 다른 나라의 자금과 달리 오일머니를 허용하려면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 이슬람교는 이자를 금지하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즉 투자의 형태로 돈을 빌려 이자를 투자의 과실로 되돌려준다.

이슬람 뿐이 아니라 기독교도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자를 금지했다. 유태인이 유럽에서 특히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기독교인과 달리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독교도가 이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시절에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홀로 금융업에 뛰어들어서 로스차일드 같은 세계적 금융기관이 탄생한다. 캘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기독교가 이자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캘빈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했다. 그것을 봐도 이자의 허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알 수 있다.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자를 악한 것으로 보았지만 캘빈은 이자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불교는 2600년 전 금융 장려

불교는 2600년 전에 이자를 허용했다.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려까지 했다. 우리는 이자를 허용하는 불교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비교해보면 매우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아함경은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으로는 재물을 구하고, 그리고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4분(四分)으로 만들라.' …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나머지 1분에는 이자(利子)를 나게 하고…"고 설한다. 돈을 절약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는 주장은 알고 보면 금융업을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초기 불교 시절 사찰은 부동산의 대부,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해왔다. 한국 불교에서도 계의 전신에 해당하는 보(寶)는 처음에는 불교의 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사원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자사업의 기능을 했다. 중국에서도 무진장, 장생고 같은 금융기관이 사찰에 설치되어 경제에 중요한 활동을 했다.

부처님은 이자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했지만 돈 빌리는 사람은 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이자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았다. 중아함경은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빈궁한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빌리는 것은 큰 고통이며,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빌려 이자가 길어 가는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빚 주인의 독촉을 받는 것은 큰 고통이며,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의 빚 주인이 자주 그 집에 가서 독촉하는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빚 주인에게 묶이는 것은 큰 고통이라 하느니라."라고 설한다. 부채가 얼마나 큰 고통이며 이자가 늘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 소외 계층 위한 대안도 제시

빚진 사람을 출가하여 빚쟁이가 끌어가게 했느냐고 부처님이 꾸짖고 있기에 빚을 지면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전은 "구족계를 주려면 남의 빚을 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주어야 한다."고 설한다. 따라서 빚진 사람은 비구로 받지 않았다. 부채가 있는 자 이외에도 부모가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자, 주인의 허락이 없는 노비, 현역중인 관리나 군인, 완전한 남자가 아닌 자, 나병 등 6가지의 병이 있는 자는 비구가 될 수 없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금융이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불교는 일찍부터 금융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허용했다. 금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찰이 직접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유부율'에서는 삼보(三寶)를 위해서라면 무진물(無盡物)을 회전하여 이익을 추구해도 좋다고 설한다. 중생구제를 지향하는 대승불교는 불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며 자비의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이 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했을지 모른다.

시장자본주의는 지난 몇 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성취했지만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불교의 경제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욱 더 시장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오늘날 시장자본주의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쩌면 친시장, 친자본의 관점에서 시장자본주의를 수용하되 불교적 해법으로 보완했던 불교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불교자본주의가 해답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5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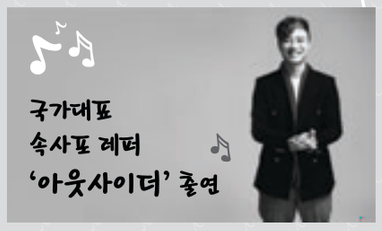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찬불가경연대회

제30회 전국 어린이 · 청소년

연꽃노래잔치



일시 및 장소
예선)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 진각문화전승원 공연장
본선) **2018년 4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 동국대학교 중강당 제30회 기념식 개최



참가대상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 · 청소년
(만 4세 이상 ~ 16세 이하)

참가부문 독창 / 중창 / 합창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견지동) 전법회관 406호
(우편번호)03144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
전화 (02) 738-7860, FAX (02) 738-7863 이메일 burec@daum.net

접수자 명단확인 및 본선 입상자 확인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 연꽃노래잔치 게시판

주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주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연꽃노래잔치
안내 바로가기

반야바라밀서 지혜의 빛을 보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⑪ 〈반야심경2〉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여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자(起) 사리불은 관자재보살에게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묻는다(承). 관자재보살이 답하기를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려는 이는 반드시 만물을 공성(空性)으로 파악하는 안목으로 실천행을 하라고 한다.(轉). 그러자 부처님은 관음을 지극히 칭찬을 하시고, 대중들은 기쁨으로 이 경전을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하며 끝난다(結).

광역반야심경은 완전한 기승전결의 구조 속에서 관세음을 통해 우리가 행복이라는 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색 곧 공이요, 공 곧 색이니 수 · 상 · 행 · 식도 또한 이와 같다."

색(色)과 공(空)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다. 색을 나라고 한다면 공은 내가 부딪치는 모든 상황들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기본적 안목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으니 애달프게 붙잡으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바라보듯 살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철학적으로 '공과 색'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라는 가르침이다. 어린아이가 동생을 하루 종일 등에 업고 있다가 내려놨을 때 등짝이 사라진 것 같다는 표현처럼,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드는 홀가분한 마음처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이것이 바로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마음이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 공한 상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나니, 이 까닭에 공 가운데 색 없어 수 · 상 · 행 · 식 없고,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없어, 색 · 성 · 향 · 미 · 촉 · 법 없되 안계 없고 의식계 까지 없다."

집착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찬란한 아름다움이며 본래 부처님 자리인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들여다보자.

내 안의 청정한 마음은 갑자기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것도 아니며, 마구 늘어나는 것도 아닌 본래 청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안에 여여하게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멋진 모습을 하고 있다. 특출난 사람만이 지닌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나의 이런 모습(6根)이 일상에서 여러 상황들과 마주칠 때, 긍정적인 반응(6境)과 부정적인 반응(6塵)을 하게 된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긍정의 자리이타(自利利他)와 모두 같이 죽자는 부정의 자사사타(自死死他)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모두 알고 있듯이 자리이타,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나의 정신세계에 추억과 기억으로 지혜롭게 저장해야한다(6識). 이것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 가치관을 만드는 나만의 세상인 18계(界)다.

자성이 청정한 것을 불성이라 한다. 부처의 성품을 지닌 이는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란 가치관이 드디어 형성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들이 서로 스치고 지나가며 온갖 희노애락을 만들어 내지만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지혜롭게 고통의 삶을 벗어나기 위한 고집멸도의 사성제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하면 걸림 없이 홀가분해질 것이다. 그 때 미지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여의고 반드시 해탈의 길에서 행복을 만날 것이라는 행복설계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를 닦아야만 갈 수 있다하여 '반야바라밀의 길'로 부른다.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지혜의 빛으로 가자고 소리 높혀 노래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서울 반야사 주지〉

물건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쳐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⑪ 금강경 제3분의 현실 응용

내가 선지식을 처음 만날 당시는 육군 공병단에서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야공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동기생은 10여 명 정도 되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기생을 만나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은 유일한 낙이었다. 서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인접 부대에 근무하던 동기생 한 명이 자신이 아끼던 반지를 나에게 보여주며 마치 선물이라도 주는 듯 "이 반지 네가 끼고 있어라"고 하였다.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본 같은 부대 한 장교가 "김 소위, 잠시 내가 그 반지를 끼워 볼 수 있을까?"라며 그 반지를 잠시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했다. '잠시 끼워 볼 수 있을까?'는 말에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거절하기 힘들어 반지를 빌려주었다. 역시나 며칠이 지나도 전혀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고심 끝에 "중위님, 그 반지는 실은 제 반지가 아니고 동기생이 잠시 빌려준 반지입니다. 돌려주어야 하니 어서 주시지요"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웃으며 반지를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였다. 그에게 자꾸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결국 그와 싸움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싸우지 않고 돌려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한참 망설인 끝에 선지식에게 이 사실을 여쭈었다.

묻기 전 생각이 많이 들었다. '선지식은 이 질문에 대해 무어라 답하실까?'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어째서 나에게까지 가져오느냐?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않느냐고 하시지 않으실까?' 등 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놀라웠다.

"반지를 되돌려 달라 요청하지 말고, 그 반지를 그리 속히 가져오게 되었나? 얼마 후 선지식의 말씀을 통해 반지를 돌려받게 된 전모가 알려졌다.

"반지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반지를 돌려받고 싶은 생각을 바친다면 그 반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질문이 나왔다.

"그 생각을 잘 바친다면, 그 사람은 정신없이 반지를 가지고 너에게 달려 올 것이다."

나는 선지식의 그 말씀을 고지식하게 믿고 반지를 되찾고 싶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려고 노력했다. 반지를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니 마음이 편해지기는 한데 과연 그 마음을 바침으로 선지식의 말씀처럼 반지를 정신없이 가져오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반지 빌려 준지 한 달이 되도록 바치는 공부가 계속 되었지만 소식은 감감하기만 하였다. 이렇게 되니 선지식의 말씀이 틀리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제대로 바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생각이 오락가락했다.

반지를 되돌려 달라는 생각을 포기한 순간 놀랍게도 그 중위가 반지를 되돌려 주었다. 조금 전까지 전혀 반지를 되돌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던 그가 어째서 반지를 되돌려 주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반지를 빌려 달라던 상급자는 빌려달라는 순간 되돌려 줄 생각이 없었다. 네가 반지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려 했을 때 내가 말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너의 요구만으로는 도저히 상급자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 반지에 대한 애착심을 부처님께 바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지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것은 무슨 뜻 인고. 반지에 손과 발을 묶어 놓은 것을 풀라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이다. 반지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쳐 애착을 해탈하게 된다면 이는 마치 묶인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반지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치는 결과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게 되고 그 순간 그 반지는 네반지가 아닌 부처님의 반지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반지가 되는 순간 그 누구도 반지를 가지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느냐."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마음을 밝히고 참성품을 보다

달마스님께서는 외식제연(外息諸緣) 내심무천(內心無喘) 심여장벽(心如障壁) 가이입도(可以入道)라고 하셨다, 즉 "밖으로는 여러 반연(攀緣)을 끊고, 안으로는 부단한 욕심으로 헐떡거리지 않고, 마음이 철석같은 흔들림이 없어야 도에 이른다"는 말이다.

'반연심'이란 반연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반연은 인연과 연관이 있다. 원인이 조건 즉 연(緣)을 만나는 것을 반연한다고 하며, 그래야 과보를 낳게 된다. 마치 씨앗이 물, 온도, 영양분을 만나야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것을 의식 작용서 살펴보면 마음이 외부 경계에 반응하는 것을 반연한다 하지만, 내부 의식이 업식을 상대해서 생겨난 생각, 기분, 감정들도 반연심이다. 이것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 아닌 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 작용으로서 마치 본래 마음이 물이라면 물위서 생겨난 물결(번뇌망상)과 같은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은 육근을 거둬 들여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쫓아 살피고, '이 뭣고'로 비추면 생각을 떠난 청정한 자기의 마음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담담하게 고요히 하고 '이 뭣고'로 비추어 보면, 곧바로 오온(五蘊)이 다 공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해 마침내 한 일도 없게 된다. 이렇게 밤낮으로 다니고 앉고 눕거나 한결같이 공덕이 깊어지면 참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된다. 참선 목적은 재명심견성(在明心見性)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이란 곧 여래의 지혜와 덕상이다. 화두 '이 뭣고'가 순일해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없어지는 것을 고요함(寂)이라

"수행하는 사람은 육근 거둬 한 생각 일어나는 곳 살피고, '이 뭣고'로 비추면 생각 떠난 청정한 마음에 도달한다"

하고, 그 속에서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無記)라 하며, 고요함 속에서도 '이 뭣고'가 어둡지 않은 것을 영지(靈知)라고 한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수식관 등 명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기공(無記空)속에 빠져 귀중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구름 잡고 안개를 움켜 쥐는 살아 있는 용(龍)이 어찌 썩은 물에 잠겨 있겠으며, 해를 쫓고 바람을 따르는 용맹스런 말이 어찌 마른 동백나무 밑에 엎드려 있겠는가? 계속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선정(禪定)은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격이고, 문자만을 찾는 미친 지혜는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세는 것이니, 그것은 모두 걸림 없는 기틀과 자재(自在)하고 미묘한 작용을 하는 화두 '이 뭣고'를 모르는 것이다.

이근원통(耳根圓通)이라, 들음을 돌이켜 자성(自性)을 들어야 한다. 도를 알려면 '이 뭣고'의 '이'를 심안으로 비춰 보아야 하며, 이것은 곧 관심(觀心)이며,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시(是)인 참성품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을 본다는 것은 곧 마음을 '이 뭣고'로 관(觀)하는 것이며, 원만이 청정한 깨달음을 비춘다고 하는 청정한 깨달음은 곧 이(是)인 마음인 것이다.

〈원각경〉에 보면 무변허공(無邊虛空) 각소현발(覺所顯發)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허공계의 온 우주가 모두 내 것이니 마음을 탁 놓고 살라는 의미이다. 무변허공도 각(覺) 즉 '이 뭣고'의 시에서 나툰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각성(覺性)이라는 마음 그릇은 이처럼 신령한 것이니 이런 신통묘용이 우리 앞에 현전(現前)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여아동근(天地如我同根) 만물여아동체(萬物如我同體)라는 말처럼 하늘과 온 대지가 나와 한 뿌리인 시요,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가 나와 한 몸인 시인데, 천당은 갈 곳이요, 지옥은 못 갈 곳이라면, 우주가 내 한 몸이요, 천당과 지옥이 내 한 집인데, 중생은 한 세계를 둘로 갈라 놓고, 한 몸을 분신시켜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 보내니, 이것이 중생의 업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신화불사

■ 전통한옥 철거, 매입 매매.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조각.
■ 25평 요사채. 팔작지붕. 육송재목 상태좋음 (재목만) 기와포함. 4천만원
■ 38평 제실, 법당으로 매우 좋음. 가격 매우 저렴.
■ 60평 법당, 요사채 (2층 가능) 상태 A급, 맡배지붕, 저렴함.
■ 산신각 9평 (기와포함 6천만원)
■ 5층,7층 석탑(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이동식 주택 30평, 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양도가 21억원 (서울) 잔고증명要 2억(보증금) 월1천만원(세입자 있음)
■ 사찰부지 4,800평 (포천) 양도가 15억, 다수의 석물 있음.
■ 80평 요사채, 4천만원

010-6545-2020
그외 다수의 매물 있습니다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

조계종 사서실장에 금곡 스님

3월 21일, 설정 스님 '下心' 당부



조계종 사서실장에 양양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신임 사서실장에 금곡 스님〈사진〉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금곡 스님은 그간 오랫동안 활동하며 누구와도 잘 융화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서실은 어느 곳보다도 더 하심하고, 오는 이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서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곡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 재무부장 · 호법부장 및 보광사 · 흥천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선암사 · 낙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전통불교의식 교육에 앞장"

태고종 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 취임



광주전남종무원장에 취임한 월인 스님(오른쪽)이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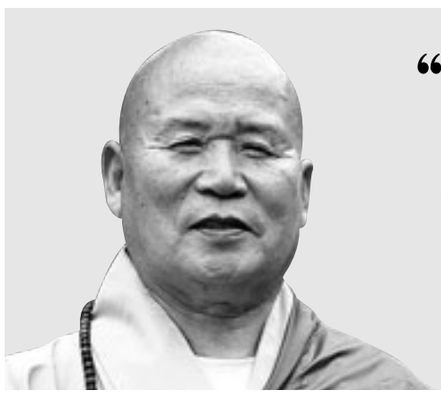
제16대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에 월인 스님이 취임했다.

월인 스님은 3월 18일 광주 운림동 수자타에서 열린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이 · 취임식서 공식취임하며 '전통불교의식전수관' 건립과 종단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제16대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에 취임한 월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도들의 자질 향상과 잊혀가는 전통불교의식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2000평의 부지를 마련해 전통불교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인 스님은 1967년 광주 증심사 지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광주 광덕사 주지, 광주전남종무원 총무국장,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법륜사를 창건했다. 2014년 광주시무형문화재 제23호 전통불교영산재로 지정돼 불교의식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시 · 서화에 조예가 깊은 월인 스님은 2015년 전남미술대전 초대작가 겸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광주미술대전에 입선과 특선, 우수상 등을 20회 넘게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평화의불 든 1080불자 북녘 찾아 밝힐 것"

Interview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양에 평화의불 봉안 추진

신계사 등 사찰 순례도 계획

1080명 순례단 구성해 교류

조계종 제210차 임시중앙종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가운데 그동안 평화의불의 북한사찰 봉안을 추진해온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이 남북불교교류에 앞장선다. 108산사순례기도회와 108평화순례단, 53선지식순례단을 바탕으로 1080명 규모 순례단을 구성, 평양 광법사를 비롯해 금강산 신계사 등 북한 5대 사찰에 평화의불을 봉안할 계획이다.

선묵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와 108평화순례단 등은 사찰순례를 넘어 먹거리 구매를 통한 농촌과의 상생, 순례 지역 소외계층 돕기 등 불교계를 대표해 다양한 사회운동도 펼쳐왔다. 이런 까닭에 남북교류에서도 신행활동을 통한 남북불교도 교류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2010년 신계사 성지순례를 추진한 108산사순례기도회는 그동안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전국 주요 사찰과 군사찰 100여 곳에 봉안했다. 이번 종회 결의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진행하는 '평화의 불' 봉안을 종단 차원에서 북녘에도 밝히길 촉구하는 것이다. 종회에서는 조계종 민추본 등 종단차원의 주최 단체를 명시하고, 결의문 자구를 수정해 차후 공식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선묵 혜자 스님의 발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동안 민간이 진행해온 물적교류에서 인적교류로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 당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된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신계사 성지순례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경색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혜자 스님은 "신계사 순례를 준비하며 불단에 올릴 공양미 300석을 모연하는 등 각별한 준비를 했지만 총격 사건으로 무산됐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급진전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며 "종단의 공식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순례는 '평화의 불' 봉안이란 구체적인 불자들의 구심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일차적으로 평양에 위치한 광법사와 금강산 신계사에 평화의불을 봉안하는 것을 추진하며 이후 묘향산 보현사, 개성 영통사 등에서도 순례를 진행한다.

혜자 스님은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 당시 복원의 길을 연 고인들의 극락왕생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글을 풍경에 새겨 헌공한 바 있다"며 "그때의 감동을 불자, 그리고 국민들이 느꼈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첫발은 한민족 정체성을 간직하고 계승해온 한국불교계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스카우트, 비전 2027로 활성화"

제2대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취임

교육 확대 · 지도자 양성 앞장

해외 자매결연 지속 추진도



불교 스카우트를 이끄는 새 수장에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사진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취임했다. 성행 스님은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제2대 연맹장 취임법회서 "스카우트 활동 프로그램을 현재 활동이 미미한 전국 사찰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적극 권장해 신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우리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행 스님은 취임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불교 스카우팅'을 골자로 2027년까지 10년간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스님은 그동안 불교스카우트에 대해 사단법인 동련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로 구성돼 있던 불교계 어린이청소년활동에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음을 강조한 뒤 창립 5주년을 맞은 불교스카우트가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대표단체로 자리 잡길 서원했다.

스님은 미래비전으로 "첫째 야영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스카우트 교육방법을 기반으로 5000명 이상의 불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성 함양을 통한 불교스카우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장하겠다. 둘째는 포교를 담당하는 스님과 포교사, 국제포교사와 일반신도 그리고 종무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교스카우트 지도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셋째는 템플스테이 등의 활동을 통해 일선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성함양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넷째는 일본, 태국, 대만 등 불교스카우트 회원국과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연맹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과 후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우리 불교는 신도가 줄어들고, 출가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불교스카우트가 사찰과 종립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와서 신나는 스카우트 활동과 종교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봄날에 찾아온 자비의 쌀

탑사 · 쌍봉사 백미 1,800㎏ 전달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3월 19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홀몸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총 20㎏ 90포를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차례 불전의 공양미를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연탄나눔, 고추장 나눔 자원봉사축제 등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찾아가는 경로당 '孝 잔치'

부산 옥련암, 지역경로당 위문행사



부산 옥련암(주지 지연)은 3월 20일 동주경로당을 방문해 '효 잔치'를 개최했다. 효 잔치는 지난해 9월 시약경로당에 이어 두 번째다. 옥련암은 이날 경로당서 민요 노래한마당과 색소폰 연주 등의 공연을 펼치고, 손수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경로당을 방문해 부처님 자비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짜장면으로 전한 이웃사랑

부산 용호복지관, '사랑의 짜장면 데이'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3월 20일 관내에서 '사랑의 짜장면 데이'를 열고, 지역 저소득 어르신 800여 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행사에는 (사)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가 함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피부 · 치아건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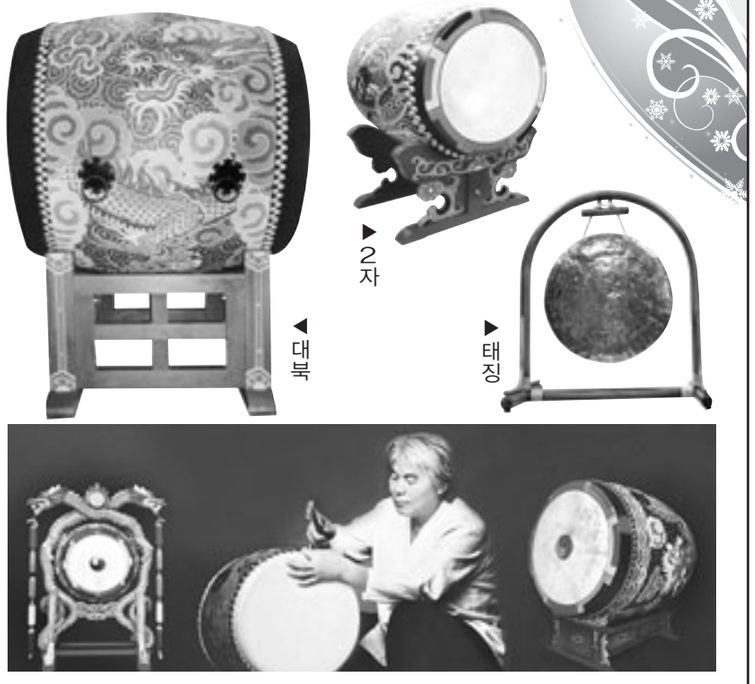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 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 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 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전생의 기억이 현생을 지배한다"

전생상담사 모집

옛 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성어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생 상담의 특징은 단지 전생을 체험하는 자체 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이나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면을 이용한 전생 상담 기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일입니다.

20여 년간 5,000여 명의 전생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기법만을 엄선하여 누구나 쉽게 배워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수해 드립니다.

TV 방송에 300여 회 출연한 임재형 원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개 강 :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총 5회 과정
일 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교육비 : 50만원 (수련 CD 및 교재 제공)

한국최면과학원 (042)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석교동 주민센터 옆)

“광주청소년 문화소양 책임진다”

동구청소년수련관 개관, 미래세대 위한 첫걸음



광주지역 불교계 최초로 수탁한 청소년시설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이를 기념해 개관식을 열고, 청소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연합 광주지부(지부장 소운, 관음사 주지)는 3월 21일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체육관에서 수탁기념 개관식을 개최, 청소년 포교를 위한 첫 여정에 나섰다.〈사진〉

출발을 축하하는 행사에는 원일 스님(정광학원 이사장), 보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혜공 스님(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 대표),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을 비롯해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강기정 前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난타, 성악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 △취임식 △축사 △동구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기념 떡 절단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이날 도제 스님(길상사 주지)과 이동배 교법사(정광고등학교)는 10년 가까이 파라미타청소년연합 광주지부를 운영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소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많은 분들이 이런 열망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실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한 강금단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성과 엄마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사회부터 승가까지 자비사상 전파”

부산 문수사,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설립

3월 29일, 창립기념법회 봉행
재가노인시설 운영 시작으로
승려노후복지 요양시설도 계획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노인을 비롯한 부산지역민과 승려복지를 동시에 아우를 전천후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탄생했다.

부산 문수사(주지 지원)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 · 이하 문수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로 불타의 자비 사상을 전할 것을 밝혔다. 문수복지재단은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 30분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문수복지재단은 21일 기자간담회을 개최하고 재단 설립 취지와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를 통해 해외 구호활동 및 대북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역할을 담당했으나 사단법인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금 더 다양한 분야, 특히 국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에서 힘을 기울이는 승려복지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에서 도움을 줄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수복지재단은 먼저 국내 복지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복지사업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문수복지재단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지역봉사사업, 노인인식개선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에는 △아동복지사업(보육시설 운영) △노인복지사업(노인전문복지관 · 치매전담노인시설)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복지사업(사회복지관 운영 · 장학사업) △다문화복지사업 등 국내에 복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 스님은 “고령화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적극 대처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며 “노인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존경 받는 새로운 노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수복지재단은 승려복지시설을 마련해 승가공동체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지원 스님은 “종단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승려복지를 위해 함께 발맞출 계획”이라며 “스님들은 출가수행자다. 마지막까지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노후에도 정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복지재단은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전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선방 및 법당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승가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할 요양시설을 건립할 것을 밝혔다.

문수복지재단 설립은 3년 전 복지 전문화를 위해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이사들의 발의로 논의 됐으며, 이후 올해 2월 2일 설립 허가를 정식 인가 받았다. 현재 이사진은 대표이사 지원 스님, 이사 혜총 스님(대각회 이사장), 상임이사 연담 스님(제주 천제사 주지) 등 일반이사 6명 및 외부이사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지원 스님은 “스님 외 다른 이사들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복지전문가로 전문성을 높여 조직됐다”며 “앞으로 복지 전문으로 활약할 문수복지재단에 관심과 응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3월 19일 김제 금산면 원평장터에서 열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이 행사에 금산중 · 고교생 50여 명이 동참했다.

원평장터 울린 학생들의 “대한독립만세”

금산중 · 고교생 50여 명, 3.1만세운동 행사 동참

전북 유일의 불교종립 학교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금산중 · 고등학교(교장 조영석)가 김제시 금산면 원평장터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가했다.

3월 19일 김제 최초 만세운동 발생지인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금산중학교 40명, 금산고 10여 명이 참가해 3.1절 노래 제창과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만세운동 재현극을 공연했다.

이날 학생들은 원평장터에서 만세운동 거리 행진을 비롯해 나라사랑 페이스페인팅과 캘리그라피, 손태극기 만들기 체험행사에 참여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애국정신의 모범을 보였다.

조영석 교장은 “금산면 지역사회에 민족수난사 극복을 위한 행사가 크게 열렸다. 학생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불교종립학교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원평장터는 1919년 음력 2월 19일, 장날 오후 6시에 독립투사 9명(배세동 · 전도명 · 전도근 · 전부명 · 이병섭 · 김성수 · 전천년 · 이완수 · 고인옥)의 주도아래 장꾼들과 김제지역 최초로 일제 탄압에 항거하는 3 · 1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곳이다. 광복군 이종희 장군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활동 근거지로도 유명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행사, 4월 21일 대단원 시작

반야심경燈 점등… 봉축기원탑 대폭 보완

올해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일정 윤곽이 드러났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3월 19일 전주 수현사 2층 강의실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축일정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부위원장)을 비롯한 국장 스님들과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대표, 전주 · 완주 지역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해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봉축위원회는 봉축위원과 집행위원회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봉축위원회는 봉축행사 주제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로 정하고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도내 각 지역에서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4월 21일 전주역 앞 마중길 봉축 반야심경 등 점등을 시작으로 5월 초 전북어린이 큰잔치, 35사단 연등제, 임실 6탄약창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이 각 지역에서 열린다. 5월 19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전북지역의 각 도시 주요도로에 봉축 연등을 설치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전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로 봉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봉축 기원탑을 대폭 보완해 전주역 앞 마중길 LED 터널 양쪽 약 1.5km 구간에 반야심경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불교문화행사로는 전주 수현사 큰법당에서 불교합창제와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잔치,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전북 주요도시에서는 시차를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연등축제가 봉행된다. 또한 각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와 교도소 방문 등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전북봉축위는 전주시의 청년 신용불량자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신용회복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북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통해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불청부산지구 “청소년 포교 마중물 앞장”

4월 7일 청소년 창립법회… 문화활동도 확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가 올해 청소년 계층 포교를 위한 중점사업을 펼친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유진상)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법회와 각종 문화축제를 연다. 먼저 대불청부산지구는 매월 1 · 3주 토요일마다 부산지구 사무국에서 청소년법회를 봉행한다. 대상은 14~19세 청소년이며, 법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청소년에게는 봉사점수가 부여된다. 창립법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아울러 대불청부산지구는 3월 15일 ‘2018년 해운대구 청소년 어울마당 및 동아리활동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대불청부산지구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을 주관하고 청소년 포교를 위한 다채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불청부산지구는 해운대 일대에서 청소년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재능과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와 동아리 부스를 설치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6회에 걸쳐 행사를 마련하며, 주제는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년문화 시상식 △청년 성년이 되다 △청년문화운동회 등이다.

유진상 회장은 “현재 어린이 법회는 사찰 내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해 청소년기를 보낼 모임이 전무하다”며 “향후 불교지도자로 성장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법회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자 문화교류의 장을 담당하게 됐는데 참가 학생들이 불교를 더 친숙하게 여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귄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즉 생명은 아버지의 혈통으로부터 받고 육체는 어머니의 태에서 받는 것이다.

- 부모은중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비법전수 사주 강의
3개월 완성(주1회)으로 구성
비법 역학을 공개 강의합니다
장소 : 충남 논산
시외버스터미널옆 2층 /
회비 : 월 50만원
010-6473-1569 남전

참선 강좌
"깨달음의 정수"
마음공부, 화두타파, 명상
공부 길이 하실 분, 검증이 필요하신 분, 명상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심리상담 -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등)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우송 합장 (대구 내당동 소재)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9년
수량 14000사이 (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010-2294-4747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칡 심마니 모집
산수 좋은 곳에서 수행하며
조용히 자립하고 싶은 분.
1일 5만 ~ 30만원 능력제.
건강하고 나이제한 없음
010-5060-3265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 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스님 안 계신 절 및 인연처 구함
각종 제의식 및 방편술 보유한 세납59세 승납25세된 비구승 성운 입니다. 오래도록 인연처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010-4876-1042

비구니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동호사)
60대 전후 운전가능
010-3376-6601

함께 기도수행 할
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010-8620-43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마산)
010-5045-3545
010-3597-3545

경북, 경남지역
절집
구합니다
010-3717-53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도 가능, 60세이하)
041-673-838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99

-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주상담 가능하신 분)
- 공양주 모십니다
(숙식가능)
(부산)
010-2630-6082
010-5777-1906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린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 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단체접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이메일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음의 변덕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순하고 고요함을 지니도록 하라.

– 법구경 –



논산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400㎡
- 논산 IC부근 운영 잘되고 교통 편리.
- 양도 : 1억 2천만원 (타지방 불사로 양도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지리산기도사찰(급)안내
- 산중멋진사찰 ● 토지 18,000㎡
- 목조 법당. 요사채. 목조 산신각
- 경관 우수한 사찰. 조용 깨끗함
- 현재운영 잘됨
- 양도 : 7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 및 전세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 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전세가격 : 7,000만원 월세 50만원

010-6603-145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100평 ◎ 부지 : 800평
◎ 건물 : 60평 ◎ 법당 : 50평, 차량진입
◎ 요사 : 60평 외 ◎ 요사 : 60평
◎ 매가 : 26억 ◎ 매가 : 25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구서동에 위치한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건물
- 위치 : 경북 영덕 창수 창수령
- 대지 : 1,507㎡
- 건물 : 180㎡
- 국유림 아래
- 가액 : 9,500만원

010-8899-8899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도심속 산중 암자
-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 단독 주택 시내가 한눈에 보임
- 방3칸 인법당. 산신각 1동. 넓은 텃밭
- 화장실 2개. CCTV 유
- 가액 : 8,000만원

010-5628-9338

사찰(포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 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 그린상가
- 건물 : 1, 2층 전체
- 대지 136.5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 1층 요사채 겸 식당 주차장 완비
- 가액 : 평당 천오백

010-3752-2601

토굴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문백면
- 모든기도 성취 영험도량
- 평수 253평, 2필지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별채 포함합니다
- 가액 : 2억 8천 (융자 1억 2천 8백만) 시세조정가능

010-5496-641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백양산 밑 전망 좋은 곳
- 대지 45평
- 4층 건물
- 총 92평
- 가액: 5억 5천

010-9881-7363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면 갈산리 447번지
- 대지 : 전 343평, 종교용지475평, 임야 507평
- 건평 : 40평 1동
- 방2개,큰거실1개,주방,창고방3개
- 가액 : 5억(절충가능)

010-5403-773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시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
- 종교 부지 570평, 주차장 44평 텃밭 278평, 임법당 32평, 삼성각 10평, 창고 겸 요사채 17평
- 가액 : 이억 칠천만원 (급양도) 정남향

011-369-3859 (스님직통)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네비게이션 전화 033)744-3859번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용전전화국 옆
- 제반시설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개, 60평
- 2층건물 2층,옥상 60평 사용가능
- 교통요지,터미털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84-0122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 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7,8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차령산맥 세종 천안 각 20분
- 대지 : 3만 5천평, 건물 4동
- 지방문화재보유한 100년 도량
- 가람 불사금 20억 동참 도반 원함
- 가액 : 4천 8백만원

010-4448-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32평, 창고 화장실 15평
- 총건평 80평 가량, 철골 지붕 강판 기와
- 가액 : 1억 6천 절충가능
- 터밭 별도 450평, 년15만원

010-4726-649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 대지:110평, 2층법당29평, 1층요사채35평 외 약 5평 정도 공양간 시설되었음
- 신도로와 구도로 교차로변(근처) 국민관광지역. 절 앞까지 서울시내 좌석버스 30분간격 운행중
- 가액 : 3억7천만원(융자1억 포함)
-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건물, 법당, 사진, 메시지나 카톡으로 전송하겠습니다

010-9259-0108번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 마산
- 평수 : 약 15평
- 약사불
- 보증금 : 1천만원, 월30만원
- 방 2개, 거실, 욕실, 부엌
- 난방 : 도시가스
- 주택 밀집지역 포교 적합
- 시설비 : 백만원

010-8583-30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소방서 앞 (100년 넘은 사찰 대지 187평, 종교시설임) 이외 주차공간 넓음
- 법당 20평 5년전 신축 불사 하였음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9평), 요사채 2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꼭 하실분 가격절충)

010-3881-6405

암자(동해)안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 (등대. 바다조망)
- 임야 3,349(대지 400평)포함
- 건물 : 5동. 약120평(1동80평신축건물)
- 특징 : 유명한 약수물 있음. 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 경내 차량진입
- 창건 : 1945년 암자. 소쿠리터
- 가액 : 은행설정. 2억 안고 1억2천

010-4491-555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천만원

010-5258-15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 ~ 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21평, 법당 20평, 삼성각 4평, 용왕당3평
- 호신불당 : 소불600불 봉안
- 공양실 : 15평, 종무소, 주지실
- 주차장 : 3대 주차
- 창건 : 120년
- 가액 : 4억 2천만원

010-2720-158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시장 옆
- 평수 : 40평
- 법당, 공양간, 요사 완비
- 시장주변, 상가밀집지역
- 가액: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3,500만원
- 최고 시설, 몸 만 오시면 됨

010-4709-0108

암 자 임 대
- 위치 : 진주 시내에 있는 암자
- 임대 금액 : 2,000만원 월세 없음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702-629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사용 공간 200평
- 시설 일체 제공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일억 3천

010-5491-2347

사찰(토굴)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8백만원

010-8525-1959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세 놓습니다
- 위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 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1동 아양교지하철역 2분거리
- 3층 상가 건물 2층. 약 50평
- 아미타삼존불 모셔저있음.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가금 2천 절충가능)
- 계약 즉시 입주가능

010-9823-58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 평수 : 20평, 3층 건물
- 삼존불 조성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10-3866-59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 답 1100평 중 대지 300평 법당(대웅전) 25평 요사채 15평 석가모니불
- 기백산 등산로입구 차량 진입가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은행융자 9천만원)

010-3806-3271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 대지 380평, 전 290평
- 전통한옥ㄱ형 본채, 별채(2채)
- 약 70평 (부속 건물 포함)
- 준공일 2012년, 12월
- 가액 : 10억 (답사후 절충가)

010-7449-2925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등산로 둘레길에 위치
- 법당, 산신각, 공양간, 상담실 포대화상, 해수관음상 텃밭도 있습니다.
- 법적 지상권만 있습니다.
- 인연있는 분에게 양도 하고 싶습니다
- 가액 : 1억 5천(협의가능)

011-9387-4446

독채포교당임대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약 40평 인법당
- 1층(25평) : 방 거실 부엌 화장실
2층(20평) : 방3, 거실
- 도로변 대문 3m 연결
- 냉난방 시설 올수리 일반 주택구조, 동남향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800만원 (에어컨, 주방기구 인테리어)

010-6838-3140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150m거리)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 뒷마당있음. 건평90평. 각30평. 3층건물
- 1층. 방3개해우소 / 2층. 법당. 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 연등. 700. 인등. 영가인등. 해우소 3층. 주택. 방3개. 화장실2개. 외부. 내부 뼈대외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日 신세대 포교 현장

“언제까지 구식으로만 포교할텐가”

DJ출신 스님의 테크노 법회
극락 모티브 클럽도 열려
모델 출신 스님의 패션쇼
부처님 좌우로 런웨이길
고양이 앞세워 포교하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젊은 세대에게 포교하기 위한 노력이 종교계 전반에 만연한 가운데, 특별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포교하는 일본 사찰들이 있어 화제다.

일본 ‘마이치니 신문’, ‘탄바신문’, ‘IT미디어 뉴스’ 등이 이색적인 포교사례를 소개했다.

3월 18일 ‘마이니치 신문’은 후쿠이시(福井市)에서 열린 야외 테크노 법회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월 24일 후쿠이역 앞 공원에는 극락정토가 펼쳐졌다. 스님들은 무대조명과 빔프로젝터로 연출된 극락에서 테크노 리듬에 맞춰 염불했다. 후쿠이시 쇼온지(照恩寺)의 주지 아사쿠라 쿄센(朝倉行宣) 스님이 출가 전 DJ와 조명기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젊은 세대를 포교하기 위해 고안한 법회다. 이미 2016년 5월에 쇼온지에서 시작해 화제가 된 이 법회는 이제 절을 떠나 역 앞 광장으로 나왔다.



테크노법회를 개최한 아사쿠라 쿄센 스님.
사진출처=MAKE.F



법회서 열린 패션쇼 현장. 사진출처=단바신문



절보다 더 인기가 많은 고양이모양 호신부.
사진출처= IT미디어 뉴스

교센 스님은 “중세에는 스님들이 길가에서 설법하는 길거리 설법이 유행했다. 불법의 장소가 절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절에 한정됐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앞 공원에서 테크노 법회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테크노 법회에 다른 DJ들을 초청, 법회뿐만 아니라 극락을 모티브한 야외 클럽을 개장했다. 법회장의 한 쪽에는 야외 바, 노점들이 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자유롭게 불교를 체험할 수 있었다.

‘단바신문’은 패션쇼를 통한 불교 포교 현장을 보도했다. 3월 10일 사사야마시(篠山市)의 간쇼지(願勝寺)에서 열린 특별한 패션쇼 현장이다. 이번 패션쇼는 간쇼지의 연례 춘계법회의 마무리 행사로 개최됐다. 원래는 가요 콘서트나 특별강좌, 만담 등이던 행사를 현대적이고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 바꿔보자는 의견에서 이번 패션쇼가 마련됐다.

이후 여러 안들이 나왔으나 불교와 패션이라는 두 주제를 한 데 모으기 위해 디자이너로 나카무라 나츠키(中村南月) 스님의 의상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나츠키 스님은 모델 사무소를 경영하면서 출가해 수행 끝에 주지 자격까지 취득한 현역 모델이기도 하다.

간쇼지는 본당의 가운데 빨간 카펫으로 런웨이를 만들었다. 부처님의 좌우로 모델들이 걸어 나왔다. 의상들은 보살이나 천녀(天女)들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옷들로 마치 불화 속에서 나온 듯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매료했다.

한편 일본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신부(お守)로 젊은 세대에 어필하는 사찰도 있다. 3월 16일 ‘IT미디어 뉴스’는 고양이 모양의 호신부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절이 있다고 전했다.

토치기현의 죠라쿠지는 애묘인인 주지스님이 유명한 절로, 이미 명물인 절 고양이들을 보러 오는 참배객들이 많다. 절의 마스코트가 된 고양이들을 본떠 만든 고양이 호신부가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연보라색의 호신부는 건강과 교통안전을 위한 부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영험이 있다고 광고되며,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둔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다. 현재는 절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곧 온라인 판매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만서 卍 vs 卐 논란

펑후 지역 챠오인 사찰서
건물에 사고로 잘못 기재
올바른 모양 여부는 논란



논란이 된 펑후의 챠오인 사원.
사진출처=타이완 뉴스

대만 펑후 사원, 만(卍)자의 잘못된 설치로 ‘나치’ 심볼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화제를 모았다.

‘타이완 뉴스’는 3월 20일 대만 해협 소군도 펑후(澎湖)에 있는 챠오인 사찰(Chaoyin Buddhist temple)이 만(卍)자를 뒤집어 설치해(卐), 나치의 상징과 같아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교만다라가 원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확하다며 문제없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분분하다.

화제의 챠오인 사찰은 1963년에 건축돼 1973년에 3층 건물이 추가됐다. 그러나 원유, 바람, 비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재 준공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준공 관계자는 공사를 마치고 당시 설치한 임시가설물과 발판을 뜯어낸 뒤에야 만(卍)자가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왼쪽으로 돌아간 모양이 나치의 심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관계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즉시 계약 업체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장만다라 등의 불교 만다라 이미지를 예로 들며원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다라의 형태(卐)가 옳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은 중국의 좌 만자(卍)를 중시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기본적으로 좌방향이든 우방향이든 동일한 상징이다. 우리나라에도 우방향의 만(卐)자가 쓰인 문화재들이 남아있어 역사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진형 기자

캐나다서 ‘불두파괴’ 훼불 충격

스리랑카 사원의 석가모니상, 피의자 파악중

캐나다 오타와에서 훼불사건이 일어났다고 지난 16일 캐나다의 ‘CBC 뉴스’가 전했다. 16일 아침 오타와의 스리랑카 불교사원인 ‘힐다 자예왈데나라마야’ 사원의 앞마당에 모셔져 있던 불상의 머리가 파괴된 채로 발견된 것<사진>이다.

최초발견자인 수네타(sunetha) 스님은 “우리는 이곳에서 자비와 평화를 가르치고, 내면의 평화를 상징하며 이 불상을 건립했다. 이러한 테러를 당한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불상은 4달 전에 약 8천 달러를 들여 스리랑카에서 직접 이운해온 불상으로 1.5m 선정에 든 형상의 석가모니불이다.

절의 회계를 맡고 있는 매노스 다 실바(Manoj Da Silva)씨는 “사건이 일어난 추정시간은 15일 저녁으로 이날은 사찰에 명상수업이 있어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찰의 마당과 건물 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며 “훼불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쇠몽둥이를 불상 근처에서 찾았다. 이곳에 상주하시는 스님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불교학자 아소카 웨라싱히(Asoka Weerasinghe)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과격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성숙한 시민사회가 자리 잡은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다”고 밝히며 “우리 불교도들은 상대가 누구이든 이 도시에서 공평하고 조화롭게 지내야 한다. 비록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상대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챙기자”고 캐나다의 불교도들에게 권고했다.

오타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사찰 관계자들과 스님들에게 사정청취를 가졌으며 주변의 목격자가 없는지 찾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국 인기 그룹 “불자의 마음으로 노래해”

인디 팝으로 명상 풀어내
불교 알고 시야 넓어지고
세상 보는 눈 달라져…



미국 북동부서 인디 팝을 해오던 인기 2인조 그룹 튠-야즈<사진>의 최신 앨범에 불교와 명상을 자세하고 깊게 풀어낸 노래가 담겨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 로어’는 미국 2인조 팝 그룹 튠-야즈의 신곡 ‘Honesty(정직)’를 소개했다. 튠-야즈는 이 음악을 “인디음악장르에 명상을 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특히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튠-야즈의 보컬 메릴 가버스는 “불교를 알게 된 순간 마치 새로운 렌즈를 낀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특히 인종차별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자체가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를 치는 네이트 브레너는 “불교는 정말 진보적인 종교다. 논리적이며 철학적”이라고 말했다.

이 두 음악가는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모여 불교를 공부해왔다고 한다. 명상은 지속적으로 해왔다. 가버스는 “명상은 충동적인 요소를 다수 가라앉게 한다”고 설명하며 사회 · 정치적 이슈로 내용을 확장했다. 특히 다른 것을 해치지 말라는 교리는 소극적 자세로 달성될 수 없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버스는 불교의 교리가 전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불교와 명상을 음악에 접목시킨 튠-야즈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백인우월주의 탈피와 인종차별 금지다. 이들은 불교에서 이에 대한 가장 큰 영감을 얻었다고 전한다.

한편 튠-야즈는 2006년에 결성된 미국 뉴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그룹이다. 대부분 메릴 가버스의 보컬과 네이트 브래너의 악기 연주로 음악을 구성한다. 네이트 브래너는 전자 베이스 기타뿐 아니라 루프 페달, 우쿠렐레 등을 사용해 폭 넓은 범위의 음악을 해왔다.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요.
Get in touch
With the physical sensations
coursing through your body.
내 몸에 흐르는 모든 감각에
집중하세요.
(Honesty)
정직하게
Breathe
호흡하세요.
(Honesty, honesty)
정직하게, 정직하게

-신곡 Honesty(정직) 중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마음새김으로 기르는 자비심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1. 자비선이란 무엇인가?

3) 생각의 힘

둘째, 명상을 할 때 상(想)을 떠올려서 그 상을 관하는 명상법을 관상법이라 한다. 관상(觀想) 명상은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는 명상으로 집중과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을 얻게 한다. 바로 사마타 명상이다. 관상명상은 상상을 이용하는 아주 탁월한 명상방법으로 사회에 두루 쓰이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① 스포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을 활용하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농구선수는 농구공을 많이 넣는 것을 상상하고, 역도선수는 상상으로 역기를 반복해서 든다. 이러한 결과들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등이 바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라 할 수 있다.

② 의사들도 관상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2006년 KBS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이용한 암치료 사례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1970년대의 말기 암환자 치료 전문의인 칼 사이먼트 박사가 환자들에게 암세포를 스테이크로 상상하고, 백혈구를 개로 상상하게 했다. 그리고 백혈구의 개가 날마다 암세포인 스테이크를 먹어치우는 상상을 하루에 3번씩 하게 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환자들이 생겼다고 한다.

③ 과학자들은 사고실험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10년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지구에 남아있는 형제는 10년을 늙지만,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갔다 온 형제는 안 늙을 것인가?' 라는 상상으로 사고실험을 했다. 사고실험은 실제로는 수행하기 힘든 실험을 생각만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과학자들도 이 사고실험을 통하여 우주를 시각화하여 마치 그림을 보듯이 보면서 사유하는 것이다.

④ 또 시뮬레이션이나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상상의 원리 그대로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큰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해보고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심리치료에도 이용된다. 예를 들면 이라크에서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증후군을 앓게 되자 가상현실을 만들어 치료했다. 즉 전투했던 그 장소를 그대로 재현, 군인을 그곳에 투입시켜 적응훈련을 받게 하며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로병사' TV프로에 20년 동안 술을 하루에 한 병씩 마시던 알코올중독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이분은 술을 끊어야만 사는데 습관이 되어서 끊지를 못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으면서도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죽어서 화장하는 과정까지를 날마다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술을 끊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 비디오를 이용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시뮬레이션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원리이다.

〈관무량수경〉에는 16관상법이 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 극락세계, 또는 아미타부처님을 상상하여 그 이미지를 관(觀)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밀교수행에도 주먹만 한 부처님 상을 눈앞에 떠올려서 주시하는 집중명상법이 있다. 상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바로 형상이 실체가 없어 비어 있음[空]을 아는 마음인 지혜로 만든다. 그래서 이미지는 공성의 형상화이며 그 형상화 이미지의 본질이 공임을 알면서 그 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법이다. 마음이 만든 그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이 사마타이고 공임을 아는 그것이 바로 위빠사나다. 이렇게 명상하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현상이며 마음이 만든 우주의 이미지가 실체가 없는 공인 것을 알게 되어 유식(唯識)에서 설하는 유식무경(唯識無境), 〈화엄경〉에서 설하는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깨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상법에는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같이 들어가 있다. 차명상도 이 방법을 그대로 활용한다.

일상에 다수 활용되는 관상법
분석과 사유로 드러나는 지혜
자비선 명상법과도 맥락 같아
사랑 · 연민이 지구 위기 구해

셋째, 사(思)라는 생각은 기억이 의식 위로 떠올라 글이나 언어로 표현되기 전의 추상적인 것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물이나 일을 머릿속으로만 인식할 때 직접인식으로 알 수 없는 경우나 눈앞에 현물적인 대상이 없을 때는 지각이나 기억의 활동만으로 그 대상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 그래서 헤아리고 판단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인식은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추론하는 정신 활동을 말한다. 결론을 얻으려는 사유의 과정으로 어떤 매개물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간접 인식이다. 이 인식의 정신 작용이 사유(思惟)라고도 하는 사(思)라는 생각이다. 즉 매개물을 이용하여 추론한다는 것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선악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어 반드시 어떤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명상수행의 수단으로 사물의 본질을 분석하여 아는 바로 그 사유다. 선(禪)을 사유수(思惟修)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생각으로 닦는다는 것이다. 즉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공성은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의식의 작용인 이 분석사유에 의해 공성이 드러나고 그 공성에 집중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선정에 의지해서 오온(五蘊)을 분석 사유하는 것이 위빠사나다. 〈대승기신론〉에서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위빠사나' 라고 이르고 있다.

위의 설명을 다시 정리하면 생각 염(念)은 직접인식의 집중명상인 사마타와 즉각 알아차려서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등의 위빠사나로 작용한다. 상(想)은 집중의 대상과 집중을 도와주는 환경이 되고, 또한 명상 스토리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사(思)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을 분석 사유하여 간접인식으로 아는 위빠사나로 작용한다. 염 · 상 · 사 이것이 모든 존재의 진실상을 알게 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명상의 수단이다. 염 · 상 · 사는 각각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염과 상이 같이 사용하거나 상과 사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먼저 염과 상의 적용을 살펴보자. 남방불교의 수행론서인 〈청정도론〉에 의하면 호흡의 수를 헤아리거나 들숨과 날숨의 들고 나는 호흡의 움직임을 알아차려 집중명상하는 사마타는 수식관이다. 수식관은 염으로 한다. 그러나 호흡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감각을 알아차리면 이 알아차림은 위빠사나의 염이다.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좋은 흙을 채취해서 둥근 원판을 만들고 1m앞에 놓고 주시한 후 눈을 감으면 그 원판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것은 바깥의 대상을 내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똑같이 만들어 주시하는 것으로 즉, 시각화한 심상(心像)을 투사하여 투사된 영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하다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이미지가 목화솜 또는 빛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수행하다보면 감정과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선정이 생긴다. 이것이 상이라는 생각을 수단으로 하는 사마타명상이다.

〈청정도론〉에는 심상을 투사하여 선정을 얻는 명상방법이 40여 가지나 된다. 이렇게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은 상이며 투사된 영상에 집중하는 것은 염이다. 이 때 염은 기억의 뜻이 있으므로 영상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므로 마음새김이라고도 한다. 자비관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어머니를 떠올리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진자리 마른자리를 가리고 젖 먹여 길러주신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명상한다. 이것은 상과 사를 같이 사용하는 명상으로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이다. 자비선의 명상방법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4) 왜 자비선(慈悲禪)인가?

자는 사랑이다. 기쁨을 주는 것이다. 비는 연민이다.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이다. 사랑과 연민이 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다. 사랑과 연민만이 환경오염과 온난화 그리고 테러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구제할 수 있다.

[파리 협정] 지구온난화는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 시한을 하루 넘긴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 기후체제다. 31쪽 분량의 최종 협정문에는 장기 목표, 감축, 이행 점검, 재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 가량 상승한 상태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경우 시베리아 영구동토층,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선을 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IPCC는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2℃ 상승할 경우 △10~20억 명 물 부족 △생물종 중 20~30% 멸종 △1000~3000만 명 기근 위협 △3000여 만 명의 홍수 위험 노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심장마비 사망 △그린란드 빙하, 안데스 산맥 만년설 소멸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의 역사적인 성과를 취재한 외신들은 '인류의 화석시대가 이날로 점진적 종언을 고했다' 고 일제히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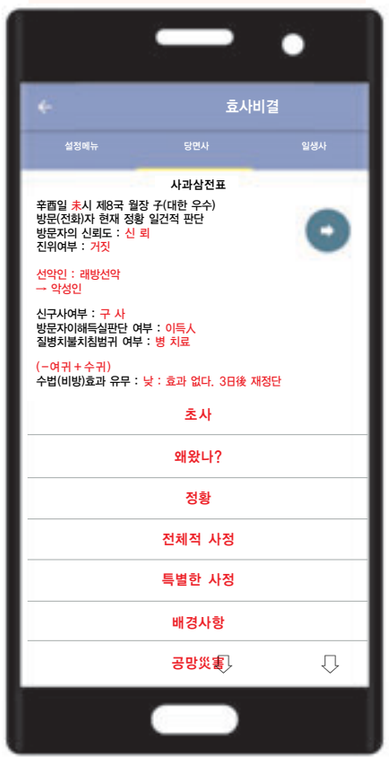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위험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자비와 반하는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분노하라〉의 저자 스테판 에셀은 달라이라마 스님과 대담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고귀한 연민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테러와 지구온난화는 모두 지나친 욕망의 산물이다. 고기 맛을 보기 위하여 소, 돼지, 양, 말, 닭 등 많은 동물을 키워야한다. 이때 똥, 오줌, 하품에서 18%의 탄소가 발생한다. 화석연료는 14% 탄소를 발생시킨다. 학자들은 사람들이 채식만 하더라도 지구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무지로 인한 탐욕과 분노이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휴대폰에 육임 CD프로그램
'효사비결 최신완결판'을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든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당면사 27개 항목, 일생사 17개 항목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 효과성 · 신속도 · 간편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① 육임 당면사 즉단 27개 항목



② 육임 성부판단 24개항목과 12띠별 확정



원터치 기능

- 상대의 공 · 사적 비밀 사항 적시
- 귀신 · 부정 · 산소탈 침범 적시
- 질병 치·불치·오래끔 적시
- 천도 · 시식 · 기도 효과 유무 적시
- 대적자 처신 방침 적시
- 묻는 사항 24개 항목 띠별 성부 적시 등등

- 정 가 : ~~30만원~~ → 20만원 (3월 31일까지 할인)
- 계 좌 : 기업은행 024-086103-04-019 (예금주 : 천기종)
- 설 치 : 입금 확인 후 10분 이내 본인 핸드폰에 설치됨
- 참 고 : 본인 실명으로 개통된 핸드폰
- 전 화 : 주 · 야 010-6400-0939 일과시간 02-738-8685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80ml × 60팩
13만원



굴셀건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다 놔야 된다. 그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마음이 편해진 다음의 공부

질문 저희가 마음공부를 해 나갈 때 처음에는 무조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마음의 번뇌가 사그라들고 마음이 편안해져 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깨달음은 아닌 것 같은데, 다 놓아서 마음이 편해진 다음의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시쳇말로 공부하는 과정을 시(詩)로 한마디 읊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들으시고 또 이날까지 가르쳐 드린, 가르쳐 줬다고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자가발전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숭상하던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같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 불이 진동하여
이름 없는 이름이
그대로 여여하더라



그림 · 최주현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말도 아니요, 누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살핌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한 티끌만도 못하고 깨알쪽만도 못한데…, 다 실은 뜻입니다. '또 한 말 다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읊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主人空)에 놔라. 맡겨 놔라." 이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觀)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대답해 봐.', '당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것이 공부라면 이것은 영 발전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이만하면 족한 것을….' 한다면 그걸로써 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공(空)에 빠지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내 대답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앞서의 그 습을 다 놨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일 단계는 다 놔야 된다.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다음에 발견해 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체험하고 실험을 통해서 생활에 조금도 걸림 없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시 보임(保任)을 하면서 다시 굴리면서, 안으로만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볼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 잘된 것을 말할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가 아니냐?" 이러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나와 남이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두루 같이'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모든 게 두루, "두루 같이 죽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남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이 안으로 굴려서 안에다 놓고 말을 하면서, 안에다 놓으면서 말을 했어도 말을 한 사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발견했어도 만약에 그 습이 앞을 가린다면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다면 그 '깨달았다'는 거기에서 그만 더 진전을 못하고, 더 계발을 못하고, 두루 물리가 터지지 못한 채 그냥 멈춰 버리고 말고 미(迷)해집니다. 해산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이 십육년 동안을 그렇게, 깨달아서 바리때를 이어받아 가지고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달마 대사 역시 면벽을 했고, 깨달았어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같이 두루 나투는 방법을,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정열적으로 확고히 알려고 했던 거죠.

생활이 불법이자 진리이자 과학이기도 합니다. 안에서 생각했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니깐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도 내가 '나'라는 게 없는 공부가 바로 진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승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죠. 자기는 시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 가르치는 자기로서, 자기는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놔야 하고 자기는 바로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는 역시 각오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앞서 그 "같이 나투고 두루 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돈오(頓悟)나 점수(漸修)나 물 흐르는 데 붙지 않듯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과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들과 보이는 세계의 생명들이 둘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두 분이서 어린애를 다섯을 낳을 수도 있고 한 명을 낳을 수도 있지만 저 짐승들이나 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낳는 알 수효를 보십시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한생각에 그렇게 수효가 많은, 모습 없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산 사람들이 감당해 나갈지, 그것도 모르는데다가 함부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귀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짓을 안 한다면은 귀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깨달았어도 타의에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산기도를 간다 또는 법당에서 부처님을 찾는다 또는 무엇을 바깥에서 찾는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이든지 뭐든지,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찾기만 하면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여건이 있죠. 바깥에서 찾는 데서 오는 게 있고, 유전성으로 오는 게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쇼크를 받아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시렵니까. 바깥에서 찾는 것은 그렇게 타의에서 와 가지고 "얘, 난 아무개다. 난 네 할아버진데. 난 네 아버지야. 나는 아무 때 죽은 누구다." 이러고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미쳐 죽을, 환장해 죽을 노릇이죠. 내가 여러분을 접해 가면서 수없이 겪어 왔던 일입니다.

너무 지겨워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딱 뒤집어서 말입니다, "이건 바로 너니까 너한테다 너가 장난을 하는 거니까, 이건 장난하는 그 이름들이 너를 떠보기 위해서 이름을 이거다 저거다 들고 나오는 거다. 바로 그것이 타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다, 바로." 이렇게 얘길 하죠. 그러면 다행히 그걸 들으면 즉시 낫고 그걸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낫지도 않죠. 타의에서 온 거는 참 빼득빼득하니 이런 말을 해 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심부름을 해 줘야

☞ A18면으로 계속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❶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진 …… 1매
- □ 주민등록 등본 …… 1통
- □ 반명함판 사진 …… 3매
- □ 사찰 법당 내 · 외부 사진 …… 각1매
-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❷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 □ 사찰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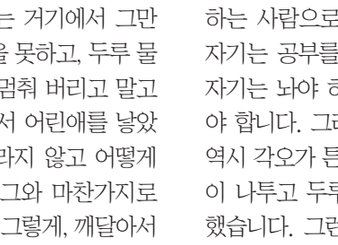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남 · 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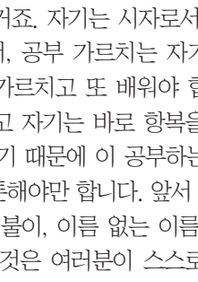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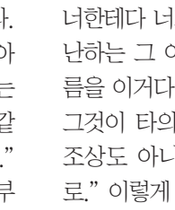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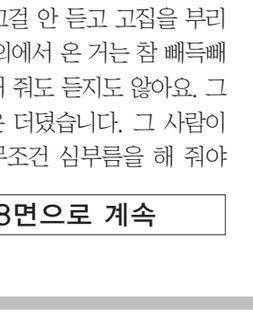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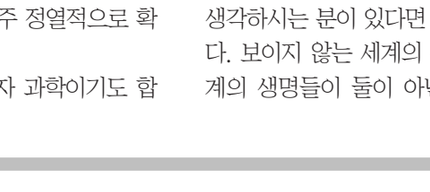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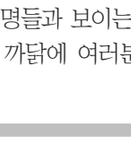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 A17면에서 계속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같이 들면 쉬울 것을, 들지 않을 때는 같이 들지 못해서 쉽지가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일체가 무엇이며 무엇을 관해야 하나

질문 관(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체를 관해야 한다' 하는데 일체가 무엇이며, 무엇을 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요새 모두 화두를, 일체를 놔두고도 또 화두를 잡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는데, 일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찰나찰나 화(化)해 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일체지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일체" 하죠. 그러니 지금 '일체 모두 놓고 관(觀)하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날더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형성시켰고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네가 나를 운전해 왔어. 진화시켰어. 형성시켰어. 그러니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도 너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속에 닥쳐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 놓는다면, 앉으나 서나 바로 도량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앉은 자리에 자부처는 있는 것이죠. 자부처부터 알아야 바로 우리 마음속의 그 모든 의식 자체 생명들이 같이 화합을 해 주게 됩니다. 내 국토부터 다룰 줄 알아야, 바로 보살로 화해서 남의 국토도 내 국토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 화두마저도 공했다 했거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거늘 거기에다가 또 남의 화두까지 받아 가지고 '이게 뭣고?' 하고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 년, 백 년을 가도 지금 시대에는 아니 된다 이거죠. 왜냐. 전자에는 그게 씨가 먹었지만 지금은 모두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또 지리학이니 의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것이 전체, 머리의 알음알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먹질 않습니다. 밥 한 그릇 남이 준 거를 들고 '이 뭣고?' 하고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공했고 그것도 공했거늘 어찌 그거를 들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느냐 이겁니다.

또 좌선을 할 때는 내 안으로 관한다면 그게 같이 들리지마는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왜냐.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모든 소용돌이가 찰나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혹성이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도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는데, 좌선을 하고 앉았으면서 하루 8시간을 앉았다 하더라도 단 5분 한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좌선을 할 때에 관하라니까 화두를 들고 그것이 끊어질까 봐 애를 쓰고 '이게 뭣고?' 하는 게 관하는 건 줄 안다 이 소리죠. 새 물이 들어오면서 헌 물은 배출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그냥 두고 있다면 그 썩은 물을 그냥 우리가 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죠. 선지식들이 "위로 눈을 뜨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 보지도 말고 코끝을 내려다보고 아주 정연하게 관하라." 이런 말을 했거늘, 그것은 무슨 소리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내다봐라. 그리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바로 중도에서, 중용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이런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요.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남의 소리나 듣고….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진짜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뚫어 보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뚫어 봐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나를,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 놔라. 아집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직껏 살면서도 고정되게 보신 게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그러니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불성과 영혼에 대해서

질문 『한마음요전』의 원리편에 "불성은 영과 다르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은 각자 생각 내는 그릇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불성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헷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람마다 다 본체가 있습니다, 근본 본체. 즉 말하자면 본체라는 것은 근본과 이체와 둘이 아닌 그 자체를 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기에 그 불성 자체를, 하늘과 땅을 기준해서 불기둥이라 한다면, 불(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직결이 돼 있고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이 모든 일체 만물이 자라는 그 땅과도 합류화가 돼 있습니다, 천지가 합류화 돼 있듯이.

그래서 그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끼고, 수레가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사윤회 일체가 돌아가는 것이 그 기둥을 끼고 돌아가는데, 그 기둥은 움죽거리질 않습니다. 움죽거리질 않으면서 그 능력만 배출해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자동차가 가는 것도 바퀴를 굴리려면 그 심봉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바퀴를 꿴 그 심봉은 움죽거리질 않습니다. 움죽거리질 않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게끔 그 힘만 배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움죽거리질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돌아가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바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못 쓰면 그 바퀴에 나쁜 게 감기고, 또 좋은 마음을 써서 악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선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영(靈)이라고 그럽니다. 영! 그리고 혼백(魂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본 불성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되, 악하게 쓰면 안 되니까 선하게 써라 이러는데, 부처님의 마음공부에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쓰다 보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쓰다 보면 악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양면을 다 놔라 이겁니다. 그 양면을 놓는 법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일러 드리는 그것입니다. 선은 감사하게 놓고, 악은 '악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다.' 하고 모두 거기다가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 재차 말을 하자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갔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에 인과가 붙어 있습니다, 영혼에. 자기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악한 인연도 선한 인연도 모두 합세해서 인연이 되죠?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진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입력이 되는데, 즉 말하자면 과거의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또는 인과성 · 윤회성 · 업보성 · 세균성 · 영계성 이 모두 다섯 가지를 합친 그것을 바로 인연 삼아서 영혼이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정자 난자를 택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깡통에게 갈 것은 깡통에게 가고, 금한테 갈 것은 금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 되는데, 이 몸속에도 가족이 돼 있고 바깥에도 가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납니다. 구성되는 것이 이렇게 철두철미합니다. 우연히가 없습니다. 그래서 깡통은 깡통대로 만나니까, "누구의 탓도 하지 마라. 서로 깡통의 차원이어서 깡통끼리 부딪쳐서 소리만 요란한 것이니까 이것도 깡통이 된 내 탓이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자비한 마음으로써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준다면 서로가 '아,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도 저렇게 선하게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아지고, 녹아지면서 또 이쪽도 그렇게 서로 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응해지죠. 그럼으로써 화목해집니다. 그러면서 화목해지면 돈도 그 화목한 집에 들어가지 악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영혼 이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성이라는 것은 한 근본을 말하는 거고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 몸체와 마음 내는 거와 불성을 통합한 겁니다. 지금 주인(主人)이면서도 공(空)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자체를 바로 딱 집어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공부가 잘되도록 하려면

질문 제가 선원에 다니고 있는 지는 몇 년이 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선원에 나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선원 불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부가 잘되지 않습니다. 이 공부가 잘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좋은 법문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염불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대로 그냥 찰나찰나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찰나찰나 없어지면서 자기 한 발로 그냥 뚜벅뚜벅, 그래서 한 발이죠. 한 발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손 없는 손과 발 없는 발이 그대로 여여하게 함이 없이 하는구나.' 이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상에다가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기니까, 자기 모습이니까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부처님을 몇 번이나 부순 줄 아십니까? 자기 모습과 같다이겁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겠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한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면 세 번을 절하는데, 둘로 보지 말고 다 거기다 맡겨 놓고 둥글게 예배를 하세요. 또 네 번째 예를 올릴 때는 전부 둥글게 자기 주인공에다 다 한데 합쳐서 하고 나가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뭐, 뭐, 뭐, 뭐, 안 된다 된다를 자꾸 나누면 도는 이루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알면 거기서 의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전체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부지런히 일을 하되, 그것이 공덕을 짓는 인연이죠. 인연을 짓되 함이 없이 하는 걸 알아야 그게 큰 공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야, 이놈아!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거기다 하는 거지 아, 되기만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안 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알죠. 이 세상이 밤낮이 생기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거, 이것이 그냥 진리거든요. 우리가 그 진리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아주 담담하게, 마음을 절대로 물러서게 하지 마시고, 허툴게 하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오직 그놈입니다. 오직 그놈이 하는 건데 내가 걱정을 해서 뭘 합니까.

>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主人空)에 놔라. 맡겨 놔라."
> 이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觀)해야 됩니다.
>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대답해 봐.'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 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 현불 논단 |

돈의 함정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시중 은행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구입까지 21년 걸려
소비 줄였음에도 가계부채 늘어나

세계 석학 꼽은 한국인 불행 원인
물신화 · 만족 못 하는 삶 · 경쟁사회
결국 돈이 우리 행복 저해 주인공

바른 사회 구현위해 돈의 흐름 중요
돈 다스리기, 탐진치 다스림과 유사
스스로 함정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매우 팍팍하다고 한다. 한 시중 은행이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의하면, 전세 거주자가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1년이 걸리고, 월세 거주자는 40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가구소득은 낮아졌고 허리띠 졸라매고 소비를 줄였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고소득층의 주식과 펀드 수입은 높아져가고 있다. 양극화의 고착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자본의 사회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다. 생존의 밑바닥에서부터 교육 등 자기실현의 여러 단계에 이르기까지 돈의 역할과 위력은 대단하다.

한국인은 불행하다고 한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P)등 세계 유수의 기구들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또한 자살율, 이혼율, 40대 남성 돌연사율, 직장 스트레스 등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세계적 연구가인 디너(Ed. Diener)교수는 한국인의 불행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물질적 가치에 과도하게 치중하여 화폐의 노예가 되었고, 기대의 과도화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치열한 경쟁적 삶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단정적인 평가에 저항감도 들지만 돈이 한국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인공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돈은 행복의 초석으로 볼 수 있다. 춥고 배고프고 병들면 행복은 불가능하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런데 삶의 객관적 지표로 보면 한국의 생존적 구비조건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인은 왜 불행을 많이 느끼는가? 돈은 삶의 여정에 필요한 수단적 가치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부자가 되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부자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부자는 불행해 질 것이다. 돈의 수단적 가치가 목적적 가치로 전도될 때 돈은 사람을 불행케 만든다. 돈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돈과 물질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수레바퀴에 짓밟히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리라.

행복하고 바른 사회는 우리의 이상이다. 이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돈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돈의 흐름 문제는 사회정의 구현의 제일 큰 과제다. 즉, 배분적 정의와 기회구조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경쟁규칙의 불평등 등이 큰 과제로 떠오른다. 한국 불교의 공업(共業)적 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인간이 함께 살면서 해결할 영원한 과제로 계속 등장할 것이다. 시지프의 운명처럼.

급한 것은 내 자신이 부자가 못되고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고 뜻있게 사는 지혜를 찾는 것이다. 여기에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탐진치(貪瞋痴)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독(毒)이다. 오늘날 돈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제일 큰 요인이다. 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는 탐진치를 다스리는 문제와 연결된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무명(無明)을 넘어서는 팔정도(八正道)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니 그 무게를 어찌 감당하랴. 그래도 돈이 부족해 불편을 느끼더라도 불행해지고 싶지는 않으니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붓다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옛날 옛적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런 시대가 오기는 오는 건가?

社 說

법진 스님, 선학원 이대로 방치할 건가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시국성명을 낸 원로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실상은 변명으로 얼룩진 불통의 장이었다. 선학원 이사회가 원로들에게 보낸 공문을 훑어보면 모양새는 그럴싸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미 그 안에 초청자 자격을 현직 창건주와 분원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시국성명에 39명이 참여했지만 회의장에 출입 가능한 스님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사회가 선학원 구성원을 대중이 아닌 창건주와 분원장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이것뿐이었다면 비난도 함께 그쳤을 것이다.

원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법진 스님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주장했다. 성추행 혐의 또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임을 강조했다.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법에 의지하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자세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밤늦게 여직원을 불러내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강원도로 달려가 변복하고 음주한 일은 스님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그렇게 떳떳한 법진 스님은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 1500만원을 제시했다.

또한 조계종과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음에도 선학원을 대표하는 법진 스님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관심 갖지 않았다. 다음 달 전국분원장회의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사표만 던진 채 책임을 다했다고 면피한다면 선학원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일선 분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해결책 모색에 나서길 바란다.

불교스카우트 활성화가 불교 미래

2012년 6월 9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는 1500여 사찰 청소년이 운집했다. 42개 사찰에서 모인 이들 청소년들은 바로 스카우트불교연맹 회원들이었다. 불교스카우트는 불교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참선 등 불교적 수행을 통해 정서 함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창설됐다.

창립 6주년을 맞은 2018년 2대 연맹장으로 성행 스님이 취임했다. 스님은 2002년부터 의왕 청계사 주지를 맡아 지역 포교와 복지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동련 이사장을 비롯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어린이 · 청소년 포교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래서 이번 스카우트불교연맹에 거는 기대는 크다. 불교계에는 어린이 포교의 동련, 청소년 포교의 파라미타 등이 있다. 하지만 체험 활동이 각광 받는 현대 어린이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스카우트불교연맹의 활약은 절실했다.

이런 기대에 맞춰 스카우트불교연맹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연계해 청소년 캠프를 여는 등 대외적인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번 2대 연맹장 취임을 기해 스카우트불교연맹은 비전 2027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종립학교, 사찰 등과 연계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수정,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불교계 내에서는 그동안 세대전승에 실패,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은 사찰에 나가지만 아이들은 사찰에 보내지 않는 것이 불자들의 특징이란 지적도 있었다. 새로운 비전을 공표한 스카우트불교연맹의 발전에 기대를 걸며, 불교스카우트 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보다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제주 4.3 불교 연구와 종교편향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지는 이에 맞춰 제주 4.3항쟁과 불교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인 한금순 제주대 외래 교수를 와이드 인터뷰했다.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서 생생한 피해 사례 관련 이야기와 그간의 고충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제주 4.3과 불교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고충이었다. 한 교수가 이야기한 고충을 분석하면 내부와 외부적 요인으로 나뉜다.

우선 내부적 요인을 짚어보면 불교계 피해자인 스님들은 후손이 없어 피해 접수와 명예 회복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사 피해를 입었더라도 시대가 이를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후학 스님들의 관심도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외부적 요인은 일종의 관료주의와의 마찰이다. 한 교수가 함께 공부했던 제주불교사연구회는 1998년부터 4.3과 제주지역 불교계의 피해 사례를 조사 · 연구하고 있었고, 이 결과는 2004년 조계종이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제주도편〉에 실렸다. 그 후 제주 4.3평화재단서 분야별 피해사례 연구가 시작됐지만, 불교 관련 연구는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연구 사업을 위해 사업을 제안하면 종교간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불교 연구가 중심이 될 경우 종교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얼핏 들으면 합당한 이야기다.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서 종교색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피해사례가 명확한 경우는 다르다. 4.3 당시 종교계 피해는 불교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 당시 개신교나 천주교가 있긴 했으나, 교인은 얼마 안됐어요. 불교보다 세도 적었고요. 또, 불교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서 피해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평화재단에서도 종교 부분을 정리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뭐든 제안을 하면 '종교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서, 다른 종교에서 편향적이라고 제기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인가. 평화재단이 만든 진상보고서에는 종교계 피해 사례는 별도로 집계돼 있지 않다. 4.3 사건일지에만 관음사 전소와 사찰 피해, 스님이 희생됐다는 아주 짧은 기술만 남겨 있다.

4.3 당시 제주불교계는 민중을 돕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당시 관음사 주지 오이화 스님은 무장대를 숨겼다는 의혹으로 토벌대에게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성봉 스님은 사찰에 마을 주민을 숨겼다가 총살당했다. 신흥연 스님은 마을 청년들을 절에 숨기고 밥을 해먹였는데, 토벌대의 죽창에 생을 마감했다.

당시 희생된 스님들 대부분은 제주 민초들과 함께 하다가 사망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버린 그들의 자기희생은 진정한 종교인이 무엇임을 보여준 사례다. 이는 종교를 떠나 의인(義人)으로서도 귀감이 될 만하다.

피해 사실은 분명한데 '종교라는 이유'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야 말로 역사를 오독하는 행위다. 바르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4.3을 주목하는 이유임을 잊지 말자.

제 12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뜻을 같이할 종도스님을 모집합니다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깨달음 종교
팔만대장경을 6강사상으로 압축하다.
BTN불교TV의 각설하고를 이 책에 담다.
팔만사천 법의 덩어리를 관찰하고 이 책을 쓰다.
저자 진귀장자
<깨달음 종교> 책은?
1. 팔만대장경을 6강사상으로 압축하다.
2. BTN불교TV의 각설하고를 이 책에 담다.
3. 팔만사천 법의 덩어리를 관찰하고 이 책을 쓰다.
제1강 사성제 제2강 법화사상
제3강 반야사상 제4강 유식사상
제5강 화쟁사상 제6강 화엄사상
※ 전국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NAVER 깨달음 종교 검색
Daum 진귀장자 검색
•문 의 : 1899-9532

“4.3민중과 함께 한 스님들, 참 종교인 모델”



테마人 한금순 제주대 외래교수
제주불교 전문 연구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4.3 당시 제주불교계 피해는

스님 16명 사망, 사찰 37곳 피해

문화재급 불상·탱화 등 거의 소실

관음사 일원 최대 격전지이기도

제주불교계 사실상 無佛시대 맞아

불교, 4.3을 왜 기억해야 하나

불교, 핍박 민초들 외면 못해 희생

중생구제 원력 그대로 보여준 사례

“가만히 있었으면 존속은 됐겠지만

사람 떠난 사찰이 무슨 의미 있나”

제주도는 아름답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사시사철 장관이 펼쳐진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주 지역 민중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 군대가 점령해 말 목장을 설치했고, 조선시대에는 주요 유배지로도 활용됐다.

근현대에 와서는 이념 갈등으로 인한 상흔이 남아있다. 바로 제주 4.3 항쟁이다. 제주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민중 봉기 및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약 7년여 간의 기간동안 비공식적으로 약 3만여 제주주민이 희생됐고, 강경진압에 의해 제주 중산간 마을의 경우 기옥 95%가 전소됐다. 희생자 중에는 일종의 연좌제인 대살(代殺)로 인해 주민들이 이유없이 학살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겁화를 불교도 피해가지는 못했다. 스님 16명이 죽거나 도일(渡日)·행방불명됐고, 37곳에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완전 전소된 곳도 18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피해 스님들은 사찰 경내에서 총살을 당했고,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은 스님도 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항쟁에서 불교계의 피해와 희생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제주와 불교에 대해 끊임없이 천착했던 연구자가 있기에 가능했다. 바로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이다. 그는 ‘한국 전쟁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현황과 분석’, ‘제주4·3사건과 제주불교’ 등 연구 논문들을 발표해왔다. 지난 3월 14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4.3 70주년 학술세미나서도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수난’을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주는 모두 4.3 관련자다

70주년 세미나 직후 만난 한 교수에게는 제주인에게 4.3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는 4월 3일을 즈음하여 마을별로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다. 대부분의 집이 4.3당시 희생된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통계에는 1만4000여 명이 희생됐다고 조사됐지만, 3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4.3 평화공원 내 전시장에 있는 문구처럼 당시 고립된 섬 제주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 면면히 전해져오는 피해 사례는 끔직하다. 무명천 할머니는 1949년 1월 12일 한경면 관포리에서 토벌대의 총격으로 아래턱을 소실해 정상적인 언어 구사와 음식 섭취를 하지 못했다. “대낮에 마음껏 돌아다녀보고 싶다”는 증언자의 구술도 있었다.

1949년 1월 17일 발생한 북촌리 학살 사건은 4.3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준다. 당시 북촌리 부근 군경 토벌대가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흥분한 군인들이 북촌리 주민들을 옴팡밭으로 끌고 가서 총살했다. 이로 인해 300~400명의 주민들이 희생됐다.

“4.3이 70년이 지나면서 1세대들은 거의 돌아가셨고, 후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육지서 건너온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제주도 내에서 4.3하고 관련되지 않은 집안이 한 군데도 없는 거에 비해서 4.3의 피해가 불교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불교계도 피해 스님들이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후손이 없다보니 피해 규명 주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관심을 갖기도 불가능했고요. 2000년대 와서 연구를 통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죠.”

“불상 타서 터지는 소릴 들었다”

그의 말대로 4.3당시 불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적지 않은 스님이 희생되고 사찰과 불상, 탱화 등이 소실됐다.

“당시 토벌대는 대부분 사찰에 불을 질렀습니다. 스님들은 불을 지르니까 맨손으로 나왔던 거죠. 불상도, 탱화도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전각 채로 불을 지르니 안에 있는 금동불 같은 것은 ‘쾅, 쾅’ 터질 수밖에 없죠. 당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불상들이 터지는 소리였던 것이죠. 육지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왜 제주도에는 불상과 탱화 문화재가 없냐”고 묻는데, 4.3 당시 전부 타서 없어졌습니다. 스님들이 급히 불상을 업고 나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 훼손돼 땅을 파고 묻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나마 건진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있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희생은 막 태동하고 있던 제주불교계로서는 뼈 아픈 손실이었다. 당시 제주불교를 대표한 승려인 이일선은 선운사에서 출가해 백양사서 공부하고, 1938년 백양사 포교사로 제주도서 활동했다.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주도 승려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친일을 반성하고, 왜색화 된 불교 풍토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주도했다.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정동원부에서 활동하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인 의장단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광사에서 예비검속돼 산지포구서 수장됐다.

표훈사 중향강원 강사로 활동했던 이세진 스님은 1948년부터 민중들과 함께 무장대로 활동했다. 무장대 지휘부였던 이덕구 등 15인과 관음사서 기거하며 활동했는데 군·경 토벌대에 잡혀 1949년 7월 산지 앞바다서 수장됐다.

화엄사 제주포교소 포교사로 제주 순회포교 활동을 전개했던 이성봉 스님은 자기 희생의 표본이다. 이성봉 스님은 1949년 10월 자신이 주석하던 금봉사로 피신 온 마을 주민들을 숨겨주다가 토벌대의 총에 희생됐다. 당시 토벌대는 스님에게 마을주민의 행방을 물었고, 모른다고 답하자 곧바로 총 8발을 쏘아 스님을 죽였다.

B2면에 계속

한금순 교수는… 1960년 제주 출생. 1979년 숙명여대 불문과에 진학해 서울로 유학하고, 파리에서 잠시 살았던 것을 제외하면 거의 평생을 제주에서 살아온 제주 토박이다. 본업은 교사. 불어 교사였지만, 지금은 일본어로 전공을 바꿔 현재는 제주 남녕고 일본어 교사로 재직 중이다. 제주 보리도량 주지 오성 스님과의 인연으로 제주불교사연구회에 참여했고, 결국 제주대 사학과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다. 현재는 제주불교사 전문 연구가로 교사 이외에도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 제주도 문화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논문으로는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등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선종 이외의 선사들

B5 문화
고성 옥천사 ‘만행, 돌아온 성보’ 展

B6 학술·문화재
아시아 불교 연구서 발간 잇달아

“제주·불교, 정체성이자 화두”… 지역 고승총서 발간 계획

‘한금순 교수’ B1면에서 계속





제주 보리도량 주지 오성 스님이 창립한 제주불교사연구회의 구술조사 모습들〈사진 왼쪽 · 오른쪽〉. ‘제대로 된 제주불교사 정리’를 원력의 세운 스님과 함께한 연구자들로 인해 제주 4.3항쟁 당시 불교계 피해 사례들은 정리 · 연구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조계종 총무원이 2004년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 -제주도편〉에서 발표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사진 제공= 한금순 교수

4.3 당시 불교 피해 알려지기까지

이렇게 4.3 당시 불교계 피해가 확인될 수 있던 것은 한 교수와 그가 소속된 연구 단체인 ‘제주불교사연구회’의 역할이 컸다. 보리도량 주지 오성 스님을 중심으로 제주불교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오던 학술단체인 ‘제주불교사연구회’는 2004년 조계종 총무원의 의뢰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 -제주도편〉 발간에 참여했다.

제주불교사연구회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주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정리했다. 보고서로는 △사찰연혁과 피해상황(한무주) △한국전쟁의 서막 제주 4.3사건(김봉현) △한국전쟁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 현황과 분석(한금순)이 수록됐다. 이후 세간에 발표된 한 교수의 4.3 관련 불교 논문들은 이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학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이후 일본어로 전향해 제주 남녕고에서 일본어 교사를 하고 있는 한 교수가 사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제주불교사연구회와 은사 스님인 오성 스님의 영향이 크다.

“오성 스님께서 제주불교사를 정리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연구회를 만드셨죠.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했어요. 역사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발행 신문 중 제주불교 관련 기사만 발췌해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지난한 작업이었죠. 자료수집과 번역을 하다보니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불어 과목도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했고요. 결국 청주 한국교원대서 일본어 전공을 했습니다. 이후 제주불교 연구를 하며 책과 논문도 내놨는데, 학위가 없으니 인정을 잘 안 하더군요. 스님이 또 저를 꼬셨죠. 이번엔 ‘사학과에서 박사 학위 받으라’ 고요. 그래서 제주대 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지역불교 연구자

한 교수는 2010년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개항기에서 해방시기까지 제주불교의 흐름 속에서 제주불교의 시대적 특징을 고찰하며 근대 제주불교의 역동적 면모를 밀도있게 규명했다.

이후 발표한 논문들도 주목할 만하다. 한 교수는 최근 발간된 〈대각사상〉 제28집 기고논문 ‘유배인들이 제주 불교에 끼친 영향’에서 제주도에 유배왔던 유학자들의 영향과 이로 인한 제주 유림들의 불교 활동에서 근대 제주불교 태동의 뿌리를 찾았다.

제주 유배를 온 추사 김정희가 제주 지역 유림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가 가진 불교적 성향들도 그대로 전해졌으며, 이들 지식인들이 하여금 근대 제주불교가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근대제주불교의 특징을 보여줄 인물을 발굴하기도 했다. 바로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 ‘김석윤(1877~1949)’ 스님이다. 한 교수는 〈대각사상〉 19집에 기고한 논문에서 제주 출신으로 항일운동가인 김석윤이 유학자이면서 스님이었음 밝혔다.

실제 김석윤은 14세 때 스승이었던 김병규 문하에서 〈금강반야경〉을 수학하다 크게 감복해 17세 때인 1894년 전주 위봉사서 만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후 다시 제주로 돌아와 훈장과 교사를 하면서 1908년 비구니 봉려관 스님을 도와 관음사를 창건하고 법정사 창건에도 참여했다. 이후에도 제주교무원 고문으로 위촉되는 등 소위 ‘제주도 큰 스님’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세 아들 중 2명도 출가의 길을 걸었으며, 막내 아들인 김덕수는 4.3 당시 토벌대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근대 제주와 불교사를 관통하는 인물인 것이다.



한금순 교수가 3월 14일 열린 제주 4.3항쟁 70주년 학술세미나서 주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4.3 관련 불교연구 어려운 이유

후손 없다보니 유족 차원 조명 힘들어

피해 말하기 어려운 시대 상황도 한몫

불교계 희생 스님 추모·선양 연구 시급

제주와 불교에 천착하는 이유는

제주 태생… 불자 집안에 나고 자라

‘제주+불교’ 연구, 은사 스님 영향 多

“제주 주민에게 4.3은 숙명과도 같아”

이처럼 제주와 불교 그리고 4.3에 주목하는 것은 한 교수 스스로가 ‘제주인’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제주와 불교는 정체성이자 화두였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타지역은 잘 모르고, 불자이기도 해서 연구 주제를 ‘제주불교’로 잡았죠. 4.3은 제주도 사람이면 모두 관심을 갖고 있죠. 기회가 됐으면 접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접근하기가 어려웠죠. 군사정부일 때는 국가 폭력이 민중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좌익 폭도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이니까요.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이 같은 기조가 사라지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주 태생이자 불자인 제게 ‘제주·불교·4.3항쟁’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구 주제인 것이죠.”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하는가

제주와 불교, 4.3을 연구하는 한 교수에게 궁금해졌다. “제주 4.3항쟁서 벌어진 불교계 피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바로 즉답이 돌아왔다. “불교의 사회참여 정신을, 중생구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서”라고.

군경 토벌대에 쫓겨 온 사람들을 숨겨주기 위해, 민중과 함께 맞서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은 스님들은 참된 수행자가 그리고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희생된 스님들 대부분이 제주도가 격랑 속에 휘말리니까 적극적으로 민중 편에 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사회 참여인 셈이죠. 사태가 일어나서 온 제주도가 난리가 났는데 제주도민이 다 죽어 가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누가 그 종교를 존중하겠어요? 물론 나를 위해 사찰을 지키기 위해 민중을 외면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자신은 사찰은 존속됐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없는 절이 무슨 소용있을까요. 현재 불교계가 4.3을 되새겨야 하는 것은 희생된 스님들이 보여준 사회참여와 중생구제 모습들입니다.”

이어 4.3 관련 불교계의 추모·선양 사업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4.3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관음사를 중심으로 한 순례길 조성을 서둘 것을 비롯해 희생 스님에 대한 면밀한 기초 조사·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음사를 중심으로 한 순례 유적 코스를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제주도민들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들의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개별 스님에 대한 연구와 조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불교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꾸준히 조사·연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말미, 한 교수에게 향후 연구계획을 물었다. 제주 근대기 고승들에 대한 열전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스님이자 유생이었던 김석윤, 관음사 주지였다가 4.3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오이화 스님 등 10명의 고승을 선정해 책으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쉬운 작업은 아님에도 원력을 세운 것은 ‘기억’ 때문이다.

“근대시기 제주불교 태동을 위해 산 스님들은 기록하고 연구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억해주 않는 것은 정말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 연구는 여러 사람이 당시 스님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되살려 주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의 추모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 연구가 스님들의 선양하고 일반인들에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초기 선사들 밀주 결합해 수행

〈密呪〉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⑥ 선종 이외의 선사들



그림 · 강병호

동한 말엽에 안세고가 전한 '안반선'과 '12문' 등 소승선법, 지루가참이 전해준 '반야선'과 '수능엄삼매' 등 대승삼매선법(염불선)은 중국불교사 및 선종사에서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당시의 정황으로 비교해 볼 때 안세고의 초기선법인 '안반선'은 상대적으로 시대를 주도했던 것 같다. 때문에 이러한 선법들은 중국선법에 용해되어서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초기 선법이 중국에 전해져서 중국선(조사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중국불교역사에는 존재한다. 특히 초기선법에 있어서 각 방면에 영향을 주었던 당시의 몇몇 선사들의 활약상과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승조(僧稠) · 현고(玄高) · 담무참(曇無讖) · 담요(曇曜)등이 그들이다. 당시 이들은 순수한 선법수행만 한 것이 아니고, 각자 수행법에 밀주(密呪)를 결합해서 수행한 특징이 있으며 신이(神異 · 신통력)한 능력을 가진 선사들이었다.

초기선법이 중국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과정을 고찰해 보면,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전들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다량으로 선법에 관련된 경전들이 번역되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법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유행하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남북조시기에 유행했던 선법을 세 가지 종류로 압축해서 말하기도 한다. 첫 번째는 안반선 위주인 소승선법으로 수식관 혹은 호흡법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중국학자들은 이러한 선법을 선수학(禪數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수식관 내지 호흡관 등의 초기선법은 숫자를 세는 방법으로 선법을 지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관불(觀佛)혹은 관상(觀想)위주로 번뇌의 성향에 맞도록 대소승 선법을 겸용해서 지도 했던 수행법이다. 즉 오정심관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세 번째로 대승불교의 여래장 불성인 여래선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선법들이 중국 토양에 씨를 뿌리면서 중국선의 밑그림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래로 안세고의 소승경전 번역을 필두로 지루가참의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교경전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실천수행도 따라서 유입 되었는데, 그 가운데 북위에 이르러서 중국 낙양의 소림사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선법이 전해졌다. 하나는 불타발타라선사(佛陀跋陀禪師 · 각현) 계통의 선법으로 그의 제자인 승조(僧稠)가 전승되었고, 다른 하나는 달마선사(達磨禪師) 계통의 선법이다. 당시 승조 및 현고 등은 관선(官禪)의 대표적 주자로서 그들의 선법은 우세한 위치에 있었으며, 동시에 매우 유행하고 있었다. 불타발타라선사가 전한 선법과 달마대사가 전한 선법에 작은 차이점이 드러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쌍방간 대등한 위치가 되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또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 크게 두 개의 지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서 주로 북방에서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한 방편의 선법이 초석을 이루면서 발전해 가고 있었다. 특히 북위 때의 잦은 전란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위수. 석로지〉에 의하면 태무제가 태연(太延 · 439) 5년 양주(凉州)를 멸망시키고, 양주의 승려 삼천인을 평성(平城)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한다. 양주는 본래 불교가 매우 발달하였고 동시에 선법도 매우 발달하였다. 당시 초기선법의 중요한 선사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북위 때 선법은 더욱 발전을 하게 되었다. 동쪽으로 이주해온 선사들을 살펴보면 승조(僧稠) · 현고(玄高) · 담무참(曇無讖) · 담요(曇曜) 등이 있다. 여기서 담요는 현재 산시성의 대동오굴(大同五窟)을 조성한 인물이기도 하며, 대체로 북위의 황제들은 선법 수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당시 남방에서는 중국전통사상인 현학(玄學)이 유행하고 있었다. 북방의 선학이 흥기하고 발전하면서, 북위시기의 선법은 이미 체계적인 전승법이 출현하였으며, 한편 그것과 상응하는 규모를 갖추기도 했다. 〈위서 · 석로지(魏書 · 釋老志)〉의 기록에 의하면 태무제(太武帝)때 사문 혜시(惠始)가 있었는데 "백거북에서 좌선을 하는데, 낮에는 성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정좌(靜坐)한다.(坐禪于白渠北, 晝則入城聽講,夕則還靜坐)"고 하고 있다. 즉 선수행을 하고 있는 당시의 풍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승려들은 서역불교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승려들은 신이(神異 · 신통력)한 색채를 띠기도 했다. 즉 밀주(密呪)와 결합한 선법을 겸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신이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각현 · 달마 양대 선법 형성
북방서 다양한 방편의 선법 발달
밀주(密呪) 결합된 비정통 선법 등장
북방 선법 동쪽으로 이동 발달
승조 · 현고 · 담무참 · 담요 이끌어

담무참(曇無讖)은 "처음에는 소승을 배우면서, 겸해서 오명제론(五明諸論)을 열람했다."고 하며, "후에 백두선사(白頭禪師)를 만나서, 담무참과 함께 논의를 했다"고 〈고승전 · 담무참전〉이 기록하고 있다. 백두선사의 선법도 역시 서역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밀교의 밀주(密呪)를 서로 결합한 수행을 하였다. 비록 이러한 선법들이 선의 본뜻에는 부합하지 않았지만, 북방지역에서는 매우 환영을 받았으며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정통의 선법이 당시는 상당부분 유행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이면에는 아마도 당시의 사회 환경 내지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측컨대 당시의 사회 환경이 잦은 전란으로 인해서 앞날은 불투명하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비적인 신통력을 신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특히 전쟁의 동란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고(玄高)는 12세에 출가한 후 오로지 선법을 닦았고, 그는 관중에 불타발타라(佛陀(馱)跋陀羅)가 석양사(石羊寺)에서 홍법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가서 참배하고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불타발타라는 현고가 선법을 깊이 익혀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여겨 스승의 예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정확하게 불타발타라에게서 선법을 전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불분명하다. 그 후 현고는 맥적산(麥積山 · 지금의 감숙성)에 은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의 선법을 배웠다고 〈고승전 · 현고전〉이 기록하고 있다. 그 후 현고의 선법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현고를 수장으로 하는 북방선학의 승단이 수립되었다. 일명 북방의 관선(官禪)이라고 한다. 그 후 현고는 양주(凉州)를 유역하다가 북양(北凉)의 저거몽손(沮渠蒙遜)의 중시를 받기도 했으며, 북위의 탁발도(拓跋燾)가 평성(平城)을 점령하였을 때 현고를 평성으로 영접해서 태자의 스승을 삼기도 했다. 후에 태무제(太武帝)의 훼불 때 해를 당하기도 했다. 현고의 선법은 안반수의선(安般守意禪)에 속한다. 안세고가 소개한 선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이승(神異僧)으로 많은 이적을 보이기도 했다. 역시 당시의 많은 선사들이 선법을 겸해서 밀주(密呪)를 염하고 신통력을 발휘하였듯이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승조(僧稠 · 480-560) 선사는 속성이 손 씨이며, 현재의 하북성의 형대시 거록현(邢台市巨鹿縣)의 사람이다. 그는 출가 전 이미 모든 경서 및 역사를 통달하였고, 이러한 그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지면서 태학박사(太學博士 · 벼슬의 일종)가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불경을 열람하다가 마음의 의문이 일순에 사라지면서 거록(鉅鹿) 경명사(景明寺)의 식(寔)스님에게 출가를 하였다. 즉 그는 처음에 도방선사(道房禪師)에서 지관(止觀)을 수행했다고 전해지며, 법맥을 살펴보면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불타제자 · 혜광(慧光)과 도방선사(道房禪師))→승조선사(僧稠禪師)로 이어지고 있다. 승조가 이은 선법은 비교적 복잡하다. 물론 기본 바탕은 불타발타라를 근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먼저 도방선사(道房禪師)에게서 지관을 전수받고, 최후에 불타발타라에게서 인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승조의 선법은 불타발타라의 선법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승조의 기본선법은 '사념처(四念處) 및 십육특승법(十六特勝法)'이다. 사념처 수행법은 소승선법으로 오정심관(五停心觀)을 수행한 후에 수행하는 관법이다. 그런데 사념처에 대한 순서 내용은 각 경전에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근본 뜻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다. 십육특성법은 조심(調心) · 수식(數息) · 관상(觀想) 등 구체적인 수행방법으로 최종에 역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자주 입정에 들어갔는데 "9일을 일어나지 않았다(七日爲期, 九日不起)"고 전해진다. 그리고 승조 선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행의 수행법인데, 그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물론 부처님 당시의 외도들이 한 고행 수행법이 아닌, 즉 성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금욕 · 식욕절제 · 사상(死想)등의 수행이다. 비록 승조의 선법은 소승선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비교적 수행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수행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관계로 당시의 승려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특히 고행수행법은 상층부 통치자들의 지지와 추종을 받았다고도 한다. 이와 같이 승조선사의 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태였으며, 당시의 보리달마 및 혜가선사 등은 그의 명성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당나라 도선이 지은 〈습선편 · 총론(習禪篇 · 總論)〉에서 승조가 선법에 대해서 편애가 있다고 적고 있으며, 달마선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다고도 한다. 승조가 '사념처'와 '십육특승법'을 의지해서 수행해, 비교적 이해하기가 간명하고 쉬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 들이가 용이했을 것이며, 동시에 광범위하게 유행을 했었던 것 같다. 반면에 달마선법은 자심을 직관에 의지해서 깨닫는 것을 주장했으며, 특히 '망언망념, 무득정관(忘言忘念, 無得正觀)을 위주로 최종에는 여래장불성에 대해서 자오자증(自悟自證)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기 때문에 이 수행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화적 소양 내지 직관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수행법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승조의 선법은 중국의 북방지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선법으로, 당시의 북방사람들의 심리상태에 적합한 수행법이었던 것 같다. 반면에 달마선법은 상대적으로 당시 북방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및 환경과 부합되지 않은, 그 어떤 거리감이 존재했던 것 같다. 특히 달마선은 당시로서는 반전통의 입장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달마 및 그의 제자들이 활동상에 제약을 받았던 것 같고, 특히 달마의 독살설, 양무제와 만남에 대한 전설, 숭산의 십년 면벽 등은 이러한 당시의 풍토를 잘 반영한 예라고 하겠다.

〈동국대 강사〉





정찬주 지음/작가정신 펴냄/전 7권

“이순신은 好佛敎의 대표적 무장”

백성과 함께한 인간 ‘이순신’ 그린 대하역사소설, 〈이순신의 7년〉펴낸 정찬주 작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싸움이 한창 급허니께 내가 죽었다는 말을 당최 허지 말으야 혀”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은 표준어로 다시 바꿔 들으면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금방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내 죽음을 헛되이 알리지 말라”이다. 그렇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서 전사하며 남긴 유명한 말이다. 사투리로 바꾸어 쓴 흥미로운 부분은 충청도 아산 지역 방언이다. 〈천강에 비친 달〉 등 불교적 사유가 배어 있는 글쓰기로 오랜 기간 소설과 명상적 산문을 발표한 작가 정찬주가 이번에는 이순신에 관한 대하 역사소설을 펴냈다.

정찬주 작가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서 “서울 건천동서 태어나 여덟 살부터 서른두 살에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충청도 아산서 살던 이순신이 서울말을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것은 이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호남 의병군들이 당연히 호남 사투리를 쓰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소설이나 영화 등 임진왜란을 무대로 하고,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그동안 많이 나왔다. 임진왜란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특별한 시기였고, 이순신은 그 안에서 빛나는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찬주 작가가 그려낸 이순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무결한 ‘영웅 이순신’이 아닌, 백성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간 이순신’이다. 충청도 아산 사투리로 이야기하고, 용맹함 이면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인간 이순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묘사했다.

실제로 정 작가는 “나는 신격화된 이순신이 아니라 백성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충청도 아산 사투리로 말하는 인간 이순신을 그려낼 것이다. 임금과 대신들은 부끄럽게도 의주로 도망쳤지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당시 백성들의 분투를 복원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헌정하는 소설이 되게 하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연재할 당시부터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은 이 소설은 정찬주 작가만의 심오한 사유와 유려한 필치를 통해 이순신이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해 1598년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기까지 ‘인간 이순신의 삶과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새롭게 조명한다. 전남 도청의 연재는 2001년 낙향해 전남 화순에 머물던 정 작가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정 작가는 “2014년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순의 내 작업실에 찾아와 호남을 대표할만한 작품이 없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해 이순신을 연구중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쓰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다”며 “당시 이낙연 의원이 전남 지사에 당선된 후 다시 내게 소설 연재를 부탁해 매주 1회씩 원고지 50~100장을 썼다. 총 1만장은 되는 걸로 기억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설 연재는 아마 내가 처음인걸로 안다”고 설명한다.

정찬주 작가가 그려낸 이순신의 면모는 지극히 인간적이다. 충청도 아산 사투리로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변방 장수로서 회한에 젖으며,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 이면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면의 밤을 보내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런 이순신의 모습은 충청도 아산 사투리에 묻어나면서 친근하고 인간미 넘치는 인물로 되살아난다. 또한 정 작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료에 따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몸 사리지 않고 분투한 백성들에 주목해, 명량 해전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린 조선 수군이 기사회생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소설은 선비, 장수와 의병, 승려, 이름 없는 민초들의 자취를 샅샅이 발굴해 그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이들의 활약상을 하나하나 복원해 써 내려감으로써 시대를 떠받든 조선 백성의 삶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임진왜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 책이 무엇보다 소설을 뛰어넘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도 주목해할 점이다. 10여 년의 치밀한 취재와 철저한 고증이 바탕을 바탕으로 직접 발로 현장을 누비고, 역사서는 물론 문중 족보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기나긴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당시 군 체계 및 화살의 종류와 쓰임새, 무기나 장비들, 거북선 건조 과정, 전술 변화, 조정 대신들의 당파 싸움 및 명나라와의 역학관계 등 전쟁과 관련된 것은 물론 의식주 문화를 핍진하게 묘사하고, 여러 지방, 특히 호남 사투리와 음식과 풍속에 관한 방대하고도 풍부한 이야기들을 펼친다. 수군 부대와 피난민들, 농민들의 생활상과 세시풍속 및 통과 의례에 대한 세밀한 서술을 보노라면, ‘16세기 호남의 풍물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호남 방언뿐만 아니라 팔도 지방어가 모두 등장하며, 개비, 부룩소, 뿌사리 등 멸실된 수많은 방언들의 재현은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 날카로운 비유와 농익은 익살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특히 이번 소설에서는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 소재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서 볼 수 없던 의승장과 의승 수군의 활동 등 불교 관련 이야기도 주목할 만하다.

경상도와 전라도 좌우수영에 의승군 머무는 의승청 존재사실 밝혀내
저자, 자운 대사를 삼혜 스님으로, 옥형 대사를 의능 스님으로 추정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진에서 초파일때 의승청 찾아 등 단 장면도 묘사

정 작가는 전라좌수영에 의승군이 머무는 의승청이 있음을 밝혔다. 정 작가는 “〈난중일기〉에 의하면 의승청의 우두머리를 이순신 장군은 수승(首僧)이라 불렀다.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 좌우수영에는 의승청이 있음을 추청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 참전하는 수승을 의승장이라 했고, 육상에 남아서 방어 작전을 하는 수승도 의승장이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순신 장계에는 의승장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광주 출신의 신해, 순천출신의 삼혜, 고흥 출신의 의능, 광양 출신의 성휘 등이 그들이다. 특히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자운 대사를 삼혜 스님으로, 옥형 대사를 의능 스님으로 추정한다”며 “의능 스님은 이순신 장군이 순절하자 여수 석천사서 천도재를 지낸 인물이며, 이 근거는 여수 향토지와 석천사 주지 스님에게도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정찬주 작가는 흥미로운 사실도 하나 더 소개했다. 정 작가는 “지금까지 거북선 건조 과정은 이순신 장군과 나대용 군관만 거론 됐는데, 삼혜 스님의 역할도 소설속에 삽입시켰다. 이는 〈여수 여천향토지〉에 삼혜 스님이 이순신 장군의 자문 역할을 했고, 거북선 모양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책 속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초파일에 관등했다는 〈난중일기〉의 기록대로 한산도 진에서 초파일 행사때 의승청으로 찾아가 등을 달아놓고 기도했다는 장면을 소설은 묘사한다. 이에 대해 정 작가는 이순신 장군이 호불교(好佛敎)의 무장이었음을 방증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문학평론가 홍기삼은 이 책 말미에 수록된 〈작품해설〉에서 이 소설의 가장 주된 특징으로 방언을 비롯한 언어 사용의 기법을 꼽는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소설서 주인공이 권력과 신분 상징인 계급 언어 대신 고향 사투리로 시종일관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 소설이 갖는 독특한 서사 책략에 주목한다. 이어 홍기삼씨는 “이는 권력 사회를 동경하지 않는 이순신의 탈권위적 태도와 백성의 신하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로써 권력 언어가 아닌 민중의 언어, 획일화되고 지배적인 단일성이 아닌 다성성(多聲性)을 통해 소설의 양감과 질감은 물론 주제적 깊이까지도 획득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작가는 ‘임진왜란’이라는 거시적 사건 뒤에 자리한, 미시적 삶과 일상에까지 조명을 비춰 하나의 ‘온전한’ 역사를 완성한다. 이는 사건과 자료의 충실한 재현서 나아가 과거의 경험에 내포된 ‘진실’에 근접하는, 리얼리즘적 역사소설의 성취이자 작가의 끈질긴 열정과 의지로 집약된 의미 있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역사적 외침의 피해가 막대한 참혹한 전쟁이었다.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어 경작지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약탈되거나 손실된 문화재도 상당했다. 임진왜란은 조선 전기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동아시아 정세를 급변시킨 국제전이었다. 일본은 히데요시가 죽어 에도시대가 열리고, 명은 가혹한 수탈로 인해 농민 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의 난을 거쳐 결국 청나라에 정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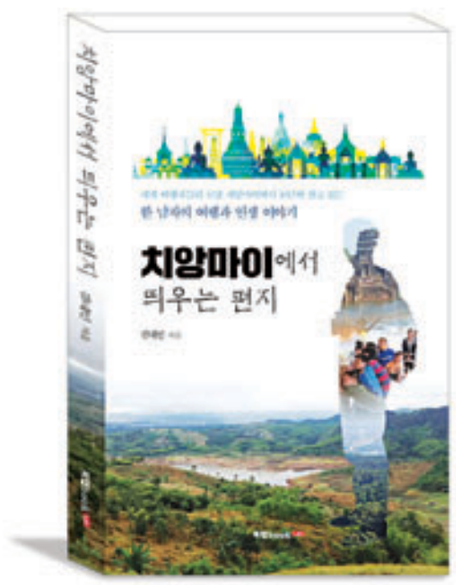
군사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조선 수군의 승리로 막을 내린 임진왜란은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강들의 알력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소설은 조선과 왜, 명나라 군대가 함께 싸운 한중일의 각축전이자, 동아시아 국제전의 양상을 띤 임진왜란을 마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사실감 있게 묘사하되 임란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정세를 균형감 있게 고찰하여 보편적 시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혼돈 속에서 위세 당당하게 자리한 이순신과 백성들의 의기와 충절이 더욱 감동적으로 와 닿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소설은 절대왕조를 중심으로 한 공고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 전투에 참가조차 할 수 없던 양민이나 천민, 집종, 백정, 관노 모두 똑같이 장수의 통솔을 받고 지시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그린다. 이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백성들의 투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 됨됨이를 존중하는 이순신의 가치관과도 통한다. 이순신이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보다는 효율과 합리를 앞세워 부하 장졸들과 협력해 거북선을 비밀리에 건조하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 또한 수평적이고 유연한 이순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지역주의를 넘어서려는 의지 또한 인상적이다. 영남, 경기, 충청, 관서, 관북을 왜군이 휩쓸고 있을 때 호남인들과 단결해 연달아 왜군을 격파하는 승전을 이루어내면서도, 호남, 영남의 구분 없이 나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태도는 의(義)를 위해 장수가 된 사람, 바로 이순신의 올곧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 작가는 〈이순신의 7년〉 7권을 완간하면서, “백성들의 충의는 넘쳤지만 그것을 담아낼 임금이 없었다”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 책은 한 영웅의 전기가 아닌, 한 시대를 살아낸 이들과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부침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바치는 소설이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보전하는 데 급급한 선조, 그와 야합하는 조정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국가란 과연 무엇이며, 한 나라의 군주가 지녀야 할 책무와 사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럼에도 국난을 이겨내겠다는 불굴의 민족혼과 이를 섬겨 마지않는 이순신의 삶을 통해서, 유교적 충효 사상 아래 맹목적 복종을 강요받던 시대에 어떻게 그토록 투철한 애국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감탄하게 된다. 7권에 달하는 대장정의 끝에서, 이 소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정찬주 작가의 묵직한 질문이자 울림이다.

정 작가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원래 내 소설의 키워드는 1권 표지에 나왔듯이, 이순신은 임금의 신하가 아니라 백성의 신하다. 그러니까 백성의 언어인 향토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임진왜란에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가장 거대한 담론이 될 수 있는데, 스님이고 재야 선비고 모든 백성들의 충의는 넘쳤지만 그것을 담아낸 임금, 혹은 지도자가 없었던게 임진왜란의 비극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과 기둥 하나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돌아올 성보의 귀환 염원하며

고성 옥천사, 6월 30일까지 '만행, 돌아온 성보' 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영남 일대에서 유출됐던 성보문화재를 전시한다. 동화사와 옥천사가 공동 주최하고, 두 사찰의 성보박물관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만행, 돌아온 성보' 전이 동화사 전시에 이어 3월 20일(화)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30일(토)까지 고성 옥천사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영남지역 성보환수를 기념하고 아직도 만행 중인 성보의 귀환을 염원하는 뜻으로 마련됐다. LA카운티박물관에서 소장해오다 환수된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동화사박물관 소장, 1841년)와 프랑스로부터 환수된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옥천사성보박물관 소장, 1744년), 경기도 모 박물관에서 보관하다가 발견되어 2017년 이른 봄에 돌아온 불영사 시왕도(불영사성보박물관 소장, 1880년)를 전시한다. 주요 화제가 지장시왕도이다. 또 이와 관련자료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지장보살본원경〉을 선보이며 지장보살의 지물인 육환장을 비롯하여 도난 성보가 환수되기까지의 과정도 공개한다.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는 1988년 도난당한 뒤 30년 만에 돌아온 작품이다. 1841년 동봉법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것으로 조선후기 양식을 지니고 있지만, 시왕도로서는 특이하게 병풍이 뒤 배경으로 둘러져있고 시왕과 판관 및 사자 등 인물의 자세가 자유로우면서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이 작품은 염불암의 극락구품도와 같이 조성되어 양식적 특징이 비슷하다.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는 명부전의 지장보살도와 같이 그려진 것으로, 시왕도 중 제1진광대왕도와 함께 도난당했다가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환수된 작품이다. 제2초강대왕은 죽은 후 2번 째 칠제(14일)에 만나게 되는 왕으로, 초강에서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왕이다. 이 작품에서는 붓과 홀을 쥐고 있고, 주위에 녹사와 판관, 동자, 동녀 등이 있으며 하단에는 형벌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옥천사의 시왕도는 지옥의 왕, 열 명을 각각 한 폭

환수된 '지장시왕도' 한 자리에
도난 성보 환수 과정도 공개
재구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
제작시기 등 학술세미나 개최

에 도해하고 있어 18세기 후반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의 시왕도 유형의 선구적인 사례이다.

불영사 시왕도는 1989년 도난당했다가 시왕도 7점과 사자도 1점 총 8점이 2017년 환수되었다. 이 작품은 원래 한 폭에 두 왕을 그린 5폭 작품인데, 반환되었을 때는 한 폭에 있는 시왕을 2점으로 나누어 액자의 형태로 7점만이 돌아왔다. 1880년 조성된 작품으로 화승 서봉응순, 만파정탁 등이 참여하여 19세기의 경북 일대와 경기도의 화풍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채운으로 구분된 2단 구도로 상단에는 시왕머리위에 보개가 대칭으로 있는 것이 독특하며 하단에는 지옥도가 표현되어 있다.



염불암 지장시왕도와 불영사의 시왕도 그리고 옥천사 초강대왕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후기 불화의 고요하면서도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표현기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동화사업경대와 함께 삶과 죽음이라는 업연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참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지장시왕도와 염라대왕 업경대를 소재로 해 스탬프로 재구성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이 어린이를 비롯한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도난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유출문화재가 모두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옥천사 전시는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기획으로 연화산 옥천사와 옥천사성보박물관을 응원하는 불자들이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았다.

이번 전시와 함께 학술세미나가 24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륜연대분석을 통해 옥천사 목조나한상의 제작 시기 고찰을 내용으로 한 김요정 박사의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옥천사 사적기를 번역하여 그 의미를 도해 스님이 발표했으며, 옥천사 대웅전의 석조불상연구는 최선일 박사, 옥천사의 지형과 인문학적 해석을 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 원장이 발표했다. 옥천사 소장 1737년 작 지장보살도에 관하여 김미경 문화재감정위원이 발표했다.

◀이번 옥천사 성보박물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는 제2초강대왕도는 지난 1976년 도난당했다. 초강대왕도는 한 프랑스인이 1981년 서울 인사동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뒤 프랑스로 가져가 35년간 보관했다가 2016년 5월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작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재청에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협의끝에 2016년 10월 환수됐다.

세계화로 새 지평 여는 불교무용

제4회 국제불교무용대전
4.6~22 성균소극장, 남산국악당
싱가포르, 홍콩 등 19개 팀 공연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무용예술의 저변 확대와 밝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제4회 국제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전환된 이번 행사는 4월 6일부터 4월 22일(매주 금~일요일)까지 성균소극장(종로구 명륜3가 소재)에서 진행되며, 4월 27일과 28일에는 남산국악당에서 진행된다. 공연에는 선정된 19개 국내외 단체가 무대에 오르며, 마지막 날에는 정명숙의 축하 공연이 열린다.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불교무용대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무용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의 주최로 2015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불교무용예술 진흥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종단 주최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불교무용대전은 올해 국내 17개 단체의 참가로 작년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창작무용과 전통무용,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한 데 어우러져 새로운 무용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제사업으로 발전한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무용단인 Oddysey Dance Company와 홍콩의 빅 8 중의 하나인 HKDC(Hong Kong Dance Company)에서 출품했으며, 2019년에는 이외에도 몽골, 인디아, 일본 그리고 스페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불교무용대전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 범아시아, 범세계적인 불교무용제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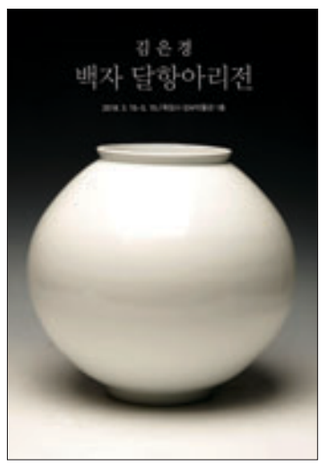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새로운 무용의 지평'이라는 주제로 3월 28일(수) 3시부터 기자간담회 및 쇼케이스를 개최함으로써 불교무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전반적인 공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8일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시상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쇼케이스와 간담회, 본 공연과 시상식을 마친 후 향후의 공연에 대한 개선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박재완 기자

지리산 화엄사 봄맞이

성보박물관 '백자 달 항아리전'
'봄의 향기 작은 음악회'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봄을 맞이하는 전시와 공연을 연다. 5월 15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백자 달항아리' 전을 열고, 4월 7일 오후 2시 각황전 앞마당에서는 '봄의 향기 작은 음악회'를 진행한다.

'백자 달항아리' 전은 15회 개인전과 8회의 그룹전을 통해 우리 전통 백자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알려온 김은경 작가의 백자가 전시된다.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 외래교수인 김은경 작가는 단국대 조형대학원에서 예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리산의 봄을 맞이하는 '봄의 향기 작은 음악회'는 무대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각황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비발디의 소나타 등이 연주되는 공연에는 각 분야의 음악가들이 기타, 클라리넷, 바이올린, 신디사이저 등을 연주하며, 화엄사 합창단 지휘자인 유환상 성악가가 봄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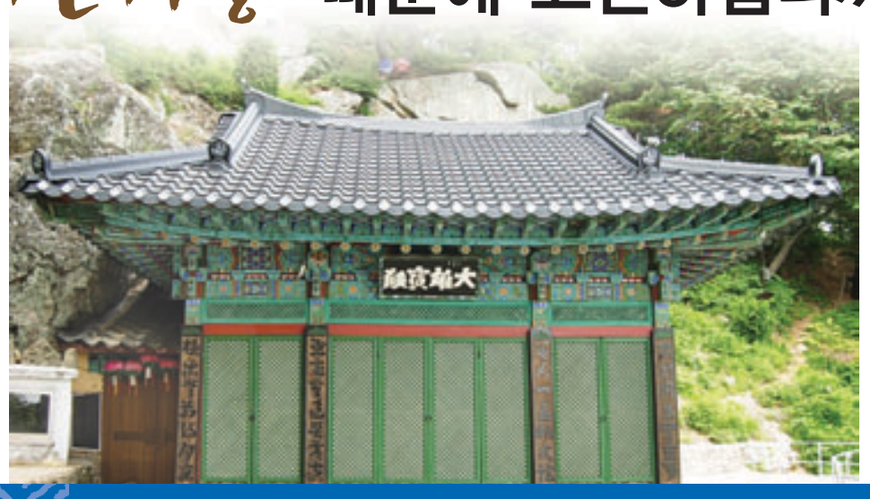
수법당장엄일체
미단 단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역사·미술·교류… 아시아 불교 연구 지평 넓히다

동남아·中·日 불교 관련 연구 학술서 잇달아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불교의 역사와 문화, 미술을 알 수 있는 학술 연구서들이 잇달아 발간돼 눈길을 끈다. 대부분이 '처음'이라는 수식이 붙을 정도로 연구서 발간의 의미가 크다.



불교평론 발간 '동남아불교사'

동남아 불교 다룬 첫 전문연구서
전문가 6인 참여…각국 상황 다뤄

불교계 유일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최근 〈동남아불교사〉를 발간했다. 동남아불교는 초기 불교 교단의 모습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세계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한국불교계에서 동남아시아 불교 연구는 백지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동남아불교에 관한 단행본은 외국 학자들의 번역본 몇 권에 불과하다. 동남아불교의 역사나 교리 사상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우리나라 불교학계의 관심이 아직은 대승불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불교 속에서 동남아불교는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빠알리 삼장을 문자로 기록해 유지·전승하고 있어서다. 스리랑카의 빠알리 삼장과 주석서들은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에 전해져 지금의 상좌부불교 국가들은 자국 문자로 기록된 빠알리 성전을 근거로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각국의 불교는 의례는 물론 승려의 수행방식과 신도들의 신앙 형태도 유사점이 많다.

〈불교평론〉에서는 동남아불교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자 지난해 동남아불교 특집을 진행했고, 독자들에게 별쇄 요청을 받는 등 높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동남아불교사〉는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동남아불교 첫 연구 개론서라고 할 수 있자.

책에는 전문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론과 스리랑카불교는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이 맡았으며, 미얀마불교는 조준호(고려대 문과대학 연구교수), 태국불교는 김홍구(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캄보디아와 라오스불교는 송위지(성원불교대학장)가 맡아 기술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반도를 포함하는 믈라유 문화권의 불교는 양승윤(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이 베트남불교는 이병욱(고려대 철학과 강사)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이번 〈동남아불교사〉에 대해 불교평론은 "동남아불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도 "이 책을 통해 상좌부불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깊이를 더하고 한국불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엄연기 원효회 의상회'

원효·의상 행적 그린 日국보 그림
'화엄연기' 숱 도판 처음 소개돼

신라의 고승인 원효(617~686)·의상(625~702) 스님은 신라를 넘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며 그들을 흠모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일본 고잔지(高山寺) 승려 묘에(明惠, 1173~1232)도 그런 사람도 중 하나였다. 그는 승려화가 조닌(成忍)으로 하여금 원효와 의상의 전기를 다룬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 이하 화엄연기)'이라는 두루마기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조닌의 그림에 묘에는 원효와 의상의 추앙하는 글을 썼다.

본래 '화엄연기'는 원효회 2권과 의상회 4권이었지만, 전국시대 병란으로 그림이 파손되고 뒤섞였다가 에도시대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각각 3권으로 정리됐다. 지금은 교토국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최근 민속원이 펴낸 〈화엄연기 원효회 의상회〉는 일본 국보인 '화엄연기'에 대한 해제와 도판, 번역문을 수록한 첫 연구·번역서이다. 한국에는 일부 도판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천연색 도판으로 전부 수록한 적은 없었다.

번역은 화엄연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던 김임중 일본 메이지대 겸임교수와 허경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원효 탄생 1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그림의 저작권을 알아보고 번역과 해설 작업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원효와 의상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재호의 '중국불상의 세계'

中불상·석굴 조명한 종합적 개설서
불상 교류 연구에 기초 자료 제공

25년 간 중국불상 연구에 매진해 온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가 내놓은 〈중국불상의 세계〉는 중국불상 전래부터 전개와 대중화까지 전반을 살펴보게 하는 개론서다.

지난 2005년 〈중국의 불상〉이란 개론서를 발간한 바 있는 배 교수는 이번 〈중국불상의 세계〉에서는 원·명·청나라 시기 불상과 최신 미술 이론들을 추가로 보강했다. 또한 중국불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불상을 비교·참고자료로 함께 수록하고 있다.

배 교수는 인도에서 불상이 전래된 이후 후한·삼국·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점차 중국화됐으며, 수·당 시대에 맞춰 대중화를 이뤘으며 원나라 시대부터 청대까지는 티베트화가 이뤄졌다고 시대를 구분한다. 책 역시 이 같은 시대 구분으로 전개된다.

"벽암 각성 조형활동, 일정 규칙 있었다"

문명대 교수, 미술사연구소 세미나서 주장
부휴계 사찰은 총괄, 다른 곳은 증명 참여



임진왜란 직후 조선 사찰의 불사를 가장 많이 주도했던 벽암 각성의 활동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조선후반기 최고 불교미술 조성자 벽암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벽암 각성의 불상 조형이 시대별로 3단계로 나뉘며 일정한 규칙이 있었음을 조명했다.

20건의 불상 조형을 분석한 문 교수는 벽암 각성 활동 단계를 △시주와 지도, 증명했던 37~51세의 1단계(1612~1626) △총괄·지도를 주로 했던 61~66세의 2단계(1636~1641) △총괄·지도·증명을 했던 73~82세의 3단계(1648~1657)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조형 활동 초기인 1단계에는 수조각승으로 현진, 2단계에는 청헌, 3단계에서는 무염이 참여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자신의 문중인 부휴 선수계 사찰의 불사에는 총괄 지도 위주로 관여하고 있으며, 거리가 있는 사찰에는 증명·지도로만 참여하는 등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벽암 각성 선사는 불상 조형에 있어 3단계로 나뉘어 불사에 참여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특히 3단계인 10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불상 조성의 총괄·지도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화엄사 벽암 각성비문을 통해 본 벽암각성의 생애와 사상',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벽암각성의 건축활동과 화엄사 중창'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韓·中학자, 화엄조사 법장 스님 집중 조명

동국대 HK연구단, 중국 인민대 등
23~24일 공동 학술대회 및 특강

중국 화엄종 제3조인 현수 법장 스님의 사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과 중국 중앙민족대·인민대는 3월 23일~24일 양일동안 동국대 다향관과 불교학술원 강의실서 제2회 공동학술대회 및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와 특강은 3개 대학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특강은 〈대승기신론〉을 주제로 매년 교차로 시행된다. 학술대회는 한국에서는 중국불교 인물을, 중국에서는 한국불교 인물을 주제로 개최하기로 협의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중국인민대에서 원효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중국 스님 가운데 법장 스님을 주제로 동국대에서 열렸다.

23일에는 먼저 〈대승기신론〉 특강이 열렸다. 특강은 리우청요우(劉成有) 중앙민족대 교수가 '풍우란의 기신론관'을 주제로, 장카이(張凱) 닝포대학 교수가 '기신론 삼대소의 7식설'을 주제로 강연했다.

24일에는 7명의 연구자가 법장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발표한다. 오전에는 장쉐송(張雪松) 인민대 교수가 '법장의 〈화엄삼매관〉을 주제'로 본서가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하면서 변형하는 과정을 살폈으며, 양샤오핑(陽小評) 인민대 연구자는 '법장의 〈화엄경탐현기〉에 나타나는 법계관'을 발표했다.

또한 주제의 다양성을 위해 동국대 HK연구단의 특별초청으로 참가하는 일본 동대사 화엄학연구소의 나카니시 토시히데(中西俊英) 연구원은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를 중심으로 법장의 실천사상과 화엄교리간의 관련성을 밝혔다.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법장과 종밀의 〈기신론소〉의 상위가 주로 〈원효소〉에 기인됐음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균여가 법장의 사상을 수용하고 응용하는 양상을 교판론과 법계관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요나라 선연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현 스님은 선연스님이 징관의 〈화엄경소〉를 주석하면서도 법장의 교판론을 중시했음을 화엄 사상을 근거해 밝혔다.

한편, 한·중학자들이 한데 모여 진행하는 학술대회는 내년에는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한국 불교인물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밝은사람들硏, '아인슈타인과 불교' 주제 강좌

4~6월 대전 올연선원서… 매주 수요일·총 12강

불교와 과학의 소통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오는 4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대전 올연선원에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를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총 12강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김성구 불교과학아카데미 대표(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가 강사로 참여하며, 3월 말 출간 예정인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가 교재로 사용된다. 참가비는 30만 원이다.

주요 강좌로는 △중도와 윤회 △불교사상과 용어의 시대적 변천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 △마음과 삶 △복잡성의 과학 △양자역학:공과 중도의 물리학 △실재성의 문제와 관찰자의 의식 △명상의 시대 등이 진행된다.

밝은사람들연구소는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과학아카데미와 협력해 '불교와 과학의 소통을 통한 실상/진리 탐구 강좌'를 진행한다"면서 "불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042)822-5648

신성민 기자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⑥ 사형수 방영근

죽어서나마 어머니 보고 싶어 했는데…

1976년 12월 26일. 한 젊은이를 다른 세상으로 보냈다. 옥중에서 다친 참새를 돌보고, 하루하루를 참회하며 살다간 사형수 방영근(당시 28세)이다. "스님과 약속한대로 참새를 그들의 고향인 하늘로 날려 보냈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과 "죽어서나마 어머니를 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1976년 이른 봄,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수 방영근을 처음 만났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매일 교도소를 드나들었지만 재소자들에게 불교는 생소한 시절이었다. 얼마 후, 사형수들에게 공양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이었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공양은 경건하고 차분하게 끝났다. 그 때 한 사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희들은 머지않아 죽음으로 죄 값을 치러야 하는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베풀어주시니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영근이었다. 선량하고 소박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와 나는 그렇게 만났다. 하지만 그것이 그와의 첫 만남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 전에 나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나를 보자 잊었던 기억이 살아난 것이다. 그는 열두 살 때, 보경사에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대중에게 절의 유래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수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다. 그는 열두 살이던 그 때, 집을 나왔다. 마을에 들어온 관광버스를 몰래 타고 고향을 떠났다. 그는 포항 어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유년은 불우했다. 어머니가 후처인 이유로 차가운 아버지와 본처, 이복형제들 사이에서 외롭게 자랐다. 본처가 죽은 후에 그의 친모는 집에서 쫓겨났고, 아버지까지 죽고 난 후에는 식구들의 냉대가 더욱 심해졌다. 가끔 찾아왔던 친모도 그를 거둘 형편이 되지 않아 언제부턴가 발을 끊었다. 그는 외로운 섬으로 살아야 했다. 그는 마침내 집을 떠날 결심을 했고 관광버스에 무작정 몸을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 역시 힘겹고 냉혹했다. 그래도 그는 허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구미 공단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연애도 하면서 희망을 키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학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해고당했고, 사귀던 여자마저 함께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힘겨움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해준 여자에게 고맙고 미안했다. 그는 그녀를 당연히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언니가 결혼 목걸이를 잡히고 마련해준 5만 원으로 살림방을 마련했다. 옹색한 살림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가 점점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처형은 패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남편과의 불화로 힘겹다며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살고 있는 주인집의 텔레비전을 훔치기로 한다. 아내가 잠든 후 주인집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들고 나오는 순간 집주인에게 들키고 말았고, 주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그만 집주인이 뇌진탕으로 숨지게 되었다. 그의 죄명은 '살인강도'였다.



사형수 묘지를 참배하는 삼중 스님(사진 가운데).

감옥에 부처님 모시고 참회기도
다친 참새 돌보는 이타행 모범수
형 집행까지 모친 끝내 못 만나



사형수 방영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천도재를 지내는 삼중 스님(사진 왼쪽서 네 번째).

그는 어느 사형수보다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했다. 자신의 영치금으로 임신한 여자 재소자들에게 기저귀와 분유를 사주기도 했고, 온갖 궂은일도 도맡아 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내가 마련해준 부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지난날을 참회했다. 다만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아내에 대한 걱정과 어머니에 관한 그리움이었다. 임신한 아내를 제대로 축복해줄 수 없는 자신이 괴로웠으며, 자신을 버린 어머니였지만 죽음 앞에 서고 보니 '어머니'라는 이름은 너무나 그리운 것이었다.

하루하루 죽음 앞에 서야했던 그는 어느 날, 둥지에서 떨어져 다친 어린 참새 두 마리를 키우게 된다. 다친 다리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였기에 더 그랬던 것일까. 그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느 쪽이든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그는 어린 참새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참새의 따스한 체온의 의미가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고 했다. 그렇게 그는 감방 안에서 삶과 죽음의 행간을 오가고 있었다.

시시각각 그에게 죽음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를 형장에서 만나야 했다. 스물여덟, 방영근. 그의 마지막 소원은 다섯 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이승에서는 못 뵙지만 무덤 속에서나마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를 그렇게 보낸 나는 그의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전국을 떠돌았지만 그의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1985년 MBC 드라마 수사반장('참새와 사형수')을 통해 방영근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그리고 얼마 후 방 씨의 모친과 인연이 있다는 한 여인으로부터 방 씨 모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방 씨의 어머니가 맞았다. 하지만 방 씨의 모친은 7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다. 결국 방 씨와 그의 어머니는 다른 세상에서 만나야 했다. 그를 생각하면 어디선가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자신의 죄를 부처님 앞에서 참회했으며, 자신으로 인해 불행해진 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작은 생명을 구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그리워했으니 그는 아마도 이 세상 어딘가에 불자로 다시 태어났으리라 믿는다. 경내를 거닐 때면 불현듯 그의 염불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⑥ 내소사 묵언스님 · 용문사에서





간밤에 많은 눈이 내렸다. 햇살에 빛나는 흰 눈에 눈이 부시다. 나뭇가지들이 하얗게 눈꽃을 피우고 산길은 발자국 하나 없다. 내소사 일주문을 들어서니 묵언 팻말을 목에 건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들고 있던 지팡이로 널려진 하얀 광목천 같은 눈 위에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다'고 쓰셨다. 분필 닿는 소리를 또박또박 내며 칠판에 쓰는 글씨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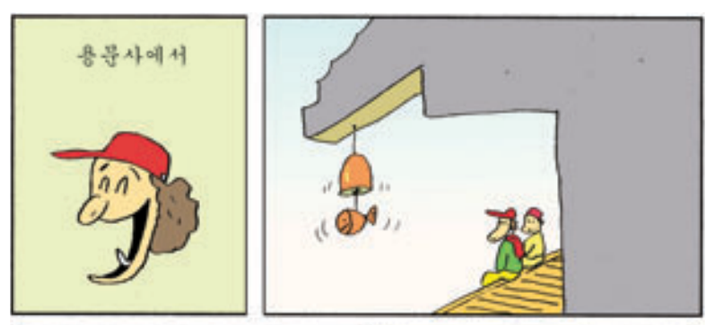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용문사에 갔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 동네에 다녀오다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래전에 가보았던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사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만 해도 1년에 한 번 부처님오신날에 등을 달러 가는 불교 동호인(?) 수준이었다. 다행히 기억은 나이를 먹지 않는지 은행나무가 있는 절이 맞았다. 참배를 마치고 잠깐 마루에 걸터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분이 말을 걸어왔다.

"저…, 실례지만 저기 처마 밑에 달린 생선 이름이 뭐지요?"

"네, 풍경(風磬) 말입니까? 절에서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처마 밑에 다는 작은 종 속에 붕어 모양의 쇳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 소리가 난다고 설명을 해 주었다. 그리고, 절에서는 지혜의 눈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도 있다고 알려 주었다.

누군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고 대답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봄(春)이 본다(見)는 뜻도 있다고 생각하며 내 눈(眼)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지기를 바라면서 두 손 모아 본다. 앞으로도 지혜를 전해주는 이웃집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는 나대로 재잘거리는 소소한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수경(부산), 청하(제주), 경수(목포),
만호(진주), 대명(공주), 해진(순천)
상기 스님들의 신규입종을 전 종도와 함께 환영합니다

종 도 모 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BTN 대표이사 서성두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처 : 02)2004-8216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